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TWIN LION STONE LANTERN OF JUNGHEUNGSANSEONG FORTRESS IN GWANGYANG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TWIN LION STONE LANTERN OF JUNGHEUNGSEONG FORTRESS IN GWANGYANG

일러두기

1. 이 책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의 일환으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관련 자료와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2. 일본어식 표현은 가능한 순화하고자 하였으나, 일제강점기 자료(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유리건판 등)는 원의미를 살리기 위해 직역하였다.
3.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의 명칭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일제강점기 자료 원문 공개 누리집을 따랐다.
4. 인명, 지명 등 외래어 고유명사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하였다. 한자는 한글 옆에 표기하되 발음이 다른 한자는 []로 묶어 표시하였다. 한자 병기는 각 장의 가장 첫 단어만 병기하고 이후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보고서 및 자료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시 병기하였다.

목차

I. 머리말	6
II.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원위치와 이동과정	10
III.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구조와 양식	34
IV.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과학적 분석	52
-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광물 및 암석학적 특성 분석	조연태 54
-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해체복원 전·후 형상 변화 분석	조영훈, 홍성혁 62
V. 맺음말	76
논고	80
- 신라 중·하대 호남지역 불교미술과 석등	진정환 82
부록	102
-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과 삼층석탑 관련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04
- 일제강점기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사진	138
국문·영문초록	144
참고문헌	146

표 목차

표 1.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이동 과정	30
표 2. 휴대용 XRF 정량 화학조성 분석결과	58
표 3. 쌍사자 석등의 이전복원 후 높이 실측 결과	66
표 4. 쌍사자 석등 석부재의 정량적 손상도 평가 결과	70
표 5. 쌍사자 석등 석부재의 해체복원 전·후 결과	72
표 6. 석등의 해체복원 전·후 부재 간 이격 측정 결과	74

도 목차

도 1. 국립광주박물관 역사문화실에 전시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2021년)	9
도 2.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과 삼층석탑(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조사자료, 촬영연대 미상)	13
도 3. 광양 중흥사에 복원된 중흥산성 삼층석탑과 쌍사자 석등 복제품 원경	14
도 4. 1872년 광양현지도(서울대규장각 소장, 奎10500)에 표시된 석탑	15
도 5. 중흥산성의 위치(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조사자료, 1930년대 지도)	16
도 6. 중흥사와 중흥산성의 위치(1:50,000 수치지도, 2022년)	17
도 7. 중흥산성 내 폐사지의 위치(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작성본, 1931년 3월 20일)	18
도 8. 중흥산성 원경(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1년 3월 22일)	19
도 9. 쌍사자 석등 및 석탑 원경(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1년 3월 21일)	21
도 10. 쌍사자 석등 및 석탑 도괴 상황(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1년 3월 21일)	22
도 11. 쌍사자 석등 및 석탑 도괴 상황(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1년 3월 21일)	22
도 12. 쌍사자 석등 도괴 상황(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1년 3월 20일)	23
도 13. 쌍사자 석등 도괴 상황(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1년 3월 20일)	23
도 14. 쌍사자 석등 도괴 상황(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1년 3월 22일)	24
도 15. 쌍사자 석등 도괴 상황(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1년 3월 22일)	24
도 16. 중흥산성 내 폐사지 평면도(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작성본, 작성연대 미상)	25
도 17. 중흥산성 삼층석탑 및 쌍사자 석등 도괴 상황도(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작성본, 1931년 3월 21일)	25
도 18.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옥개석 입면도(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작성본, 1931년 3월 20일)	26
도 19.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옥개석 및 화사석 평·입면도(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작성본, 1931년 3월 20일)	26
도 20.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간주석 및 상대석 입면도(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작성본, 1931년 3월 20일)	27
도 21.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하대석 및 화사석 입면도(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작성본, 1931년 3월 20일)	27
도 22. 경복궁 자경전에 건립된 석등(도쿄대학 소장 후지시마 가이지로 촬영본, 1932년 11월)	31
도 23. 경복궁 자경전에 건립된 석등(도쿄대학 소장 후지시마 가이지로 촬영본, 1932년 11월)	31
도 24. 경복궁 자경전에 건립된 석등(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2년 11월 10일)	31
도 25. 경복궁 자경전에 건립된 석등(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2년 11월 15일)	31

도 26. 덕수궁 석조전 야외정원에 건립된 석등(국립중앙박물관 유물카드에 부착된 등록사진, 1960년 이후)	32
도 27. 덕수궁 석조전 야외정원에 건립된 석등(국립중앙박물관 유물카드에 부착된 등록사진, 1960년 이후)	32
도 28. 국립중앙박물관(중앙청) 야외정원에 전시된 석등(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소장 사진자료, 1986년 이후)	32
도 29. 국립중앙박물관(중앙청) 야외정원에 전시된 석등(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소장 사진자료, 1986년 이후)	32
도 30.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1층 로비에 전시된 석등(1990년 8월 촬영)	33
도 31.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2층 역사문화실에 전시된 석등(2021년 촬영)	33
도 32. 정면 사진	38
도 33. 정면 실측도	39
도 34. 좌측면 사진	40
도 35. 좌측면 실측도	41
도 36. 우측면 사진	42
도 37. 우측면 실측도	43
도 38. 배면 사진	44
도 39. 배면 실측도	45
도 40. 보주 평 · 입면도	46
도 41. 옥개석 평 · 입 · 단면도	47
도 42. 화사석 평 · 입 · 단면도	48
도 43. 간주석 평 · 입면도	49
도 44. 하대석 평 · 입 · 단면도	50
도 45. 지대석 평 · 입면도	51
도 46. 정량 화학분석을 위해 표준시료 기반으로 작성된 원소별 검량선	55
도 47. 석등의 구성광물 입도 및 암상 조직	56
도 48. 석등 부재에 대한 대자율 분포	57
도 49. SWIR 분석결과	59
도 50.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전암 대자율 측정 모습	61
도 51. 해체 전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모습(2020년)	63
도 52. 해체 전 석등의 고입 및 충전재	63
도 53. 해체 전 지상레이저스캐닝 결과	64
도 54. 이전복원 후 지상레이저스캐닝 결과	64
도 55. 쌍사자 석등의 기준축 설정 과정	64
도 56. 쌍사자 석등 하대석의 3차원 폴리곤메시 및 텍스처매핑 모델	64
도 57. 쌍사자 석등 해체 전과 복원 후의 전체 형상 비교	65
도 58. 가상재조립을 위한 참조 모델과 대상 석부재	66
도 59. 석부재의 가상재조립 결과 및 단면	67
도 60. 쌍사자 석등의 손상지도	69
도 61. 해체복원 전 · 후 석부재의 회전각 및 중심축 변위량 시각화 결과	72
도 62. 해체복원 전 · 후 이격 변화를 보여주는 배면 화사석과 간주석 사이	73
도 63. 석등의 이격 측정 지점	73



I. 머리말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본관12804)은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중흥산성 내 폐사지에 조성되어 있던 석조물이다. 통일신라시기 불교 석조물로서 균제미는 물론 조형미가 빼어난 중요 유물임이 인정되어 국보로 지정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32년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최초 소장한 후, 1990년 8월에 이르러 원소재지인 광양시와 가장 인접한 국립박물관인 국립광주박물관에 이관되어 약 30년 동안 전시관 1층 로비에 전시되었다. 2021년 상설전시실을 개편하면서 석등을 현 위치인 전시관 2층 역사문화실로 옮겼다. 이전 복원에는 석등 부재 간 수평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던 고임 및 충전재를 이용하지 않고, 3차원 스캐닝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가상재조립 모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작업으로 석등 부재들의 접합면 일치도를 높임과 동시에 중심축을 정교하게 맞추어 석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다.

이번 보고서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하 쌍사자 석등)의 역사·문화적인 의미를 고찰하고, 향후 관리·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획하였다. 쌍사자 석등이 박물관에 소장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연구자가 정리를 시도하였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논문에 실리는 등 오류도 발생했다.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석등의 이동 과정을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쌍사

자 석등의 원래 위치와 국립박물관에 소장되기까지의 과정을 일제강점기 문서와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또 쌍사자 석등의 구조와 양식을 고화질 사진 및 정밀 실측도와 함께 살펴보고, 관련 연구자들의 조사성과와 논고도 함께 수록하였다. 부록에는 쌍사자 석등과 관련한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원본과 번역문, 일제강점기 촬영 쌍사자 석등 사진 자료를 수록하였다.

보고서 본문의 원고 중 I·II·V장은 노형신(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III장은 김영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작성하였다. IV장에서 석등에 사용된 석재의 광물 및 암석학적 분석은 조연태(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작성하고 장봉수(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박사과정)가 보조하였다. 석등의 3D스캔과 손상지도 작성은 조영훈·홍성혁(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이 담당하였다. 석등의 미술사적 의의에 대한 논고는 진정환(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작성하였다. 더불어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가 조사한 자료의 수집에는 교토대학[京都大学] 다나카 코오지[田中洸司],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가 촬영한 사진자료의 수집에는 도쿄대학[東京大学] 마츠호 사요코[松保小夜子]의 도움을 받았다.



도 1. 국립광주박물관 역사문화실에 전시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2021년)

Ⅱ.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원위치와 이동과정

ORIGINAL LOCATION AND MOVEMENT OF THE TWIN LION
STONE LANTERN OF JUNGHEUNGSEONG FORTRESS IN
GWANGYANG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과 삼층석탑
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조사자료

II.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원위치와 이동과정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하 쌍사자 석등)이 위치했던 사찰의 명칭은 조선시대 지리지나 고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1899년 『광양군읍지(光陽郡邑誌)』 산성(山城)조에 “中興山城在郡北十五里石築周圍八百尺內有一溪溪上有大塔今廢”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1872년에 제작된 광양현지도^{도4}에 백운산의 옥룡사(玉龍寺)와 중흥산성 옛터(中興山城古址)의 사이에 ‘塔’이라는 한자와 함께 탑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 이는 현재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중흥사라는 절에 위치한 중흥산성 삼층석탑(보물, 이하 삼층석탑)으로 추정된다(황호균 2021).

이후 쌍사자 석등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기수였던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가 조사한 문화재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¹ 이는 쌍사자 석등과 삼층석탑이 함께 세워져 있는 사진도²이다. 쌍사자 석등의 상태는 비교적 온전하지만 삼층석탑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처럼 위태롭게 쌓여있는 모양이다. 정확한 촬영 연대는 알 수 없는데, 뒤에 서술하겠지만 1930년 9월 18일 쌍사자 석등이 미상 인물에 의해 파괴되었을

때 사라진 보주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석등 사진이라고 판단된다.² 즉 최초 발견 당시에도 쌍사자 석등은 삼층석탑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쌍사자 석등과 관련한 기록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서 가운데 쌍사자 석등 및 삼층석탑과 관련된 문건은 총 10건이다(세부 내역 부록 참조). 이 문건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쌍사자 석등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었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일본 교토대학에 소장된 오가와 게이키치 조사 문화재 자료는 국립문화재연구소(1994)에서 목록을 정리한 바 있으나, 세부 자료 전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교토대학으로부터 도면 및 사진자료를 제공받아 이번 보고서에 최초로 공개하였다. 교토대학 제공 자료에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촬영일자과 기록 등이 남아있어 쌍사자 석등의 이동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정리할 수 있었다.

2 이 사진에 대해 국립문화재연구소(2001)는 오가와가 촬영한 사진 중 삼층석탑과 쌍사자 석등이 무너져 모두 흩어진 상태의 사진도 있다는 것과 비교하여, 오가와가 무너진 탑재와 쌍사자 석등을 원래의 자리에 놓고 복원한 후 촬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황호균(2021)은 사진의 해상도가 조사 당시의 다른 촬영본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근거로 오가와가 쌍사자 석등이 무너지기 이전의 사진을 입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았다.



도 2.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과 삼층석탑(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조사자료, 촬영연대 미상)

1. 석등의 원위치

1931년 3월, 오가와 게이키치는 쌍사자 석등을 조사하면서 석등이 위치했던 곳을 지도와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였다.^{도 5·7} 또한 주변의 지형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더불어 쌍사자 석등의 국유 등록과 관련한 일제강점기 문서에 석등의 주소지가 ‘운평리 산23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 주소는 현재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산23번지에 해당한다.³ 이 위치에는 근래에 창건된 중흥사^{中興寺}라는 사찰이 있고 그 사역 안에 중흥산성 삼층석탑이 보존되어 있다.^{도 3} 즉 쌍사자 석등의 원래 위치는 중흥산성(전라남도 기념물) 안에 있던 옛 절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쇼와 5~7년도 복명서』, 「전라남도 광양군 기타 고적유물 조사보고서」

3월 20일 맑음

아침 8시 옥룡면사무소를 출발하여 중흥산성에 올라갔다. 경사가 가파르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산봉우리 반대편이 나온다. 거기서 조금 완만하게 경사진 산길을 나아가면 성문지에 도착한다. 더 나가면 산꼭대기의 평탄한 곳이 나온다. 논도 있고 밭도 있다. 그 서쪽 성벽에 접하여 절터가 있다. 앞면은 작은 계곡이 있고 북쪽에 언덕이 있으며 남쪽을 향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조용하고 깊은 별천지이다. 돌담이 있다. 석탑과 석등롱이 있다. 오래된 기와 파편도 흩어져 있다. 석탑은 삼층으로 신라 말기의 명작이다. 등롱은 쌍사자로 구성된 일품이다.

(후략)

109쪽 참조

3 이 임야에 대한 일제강점기 임야조사부나 임야원도가 남아 있지 않아 당시 소유 관계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다. 현재 임야대장에 따르면 운평리 산23번지는 1945년 9월 25일 부로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이 된 이후 지금에 이른다.



도 3. 광양 중흥사에 복원된 중흥산성 삼층석탑과 쌍사자 석등 복제품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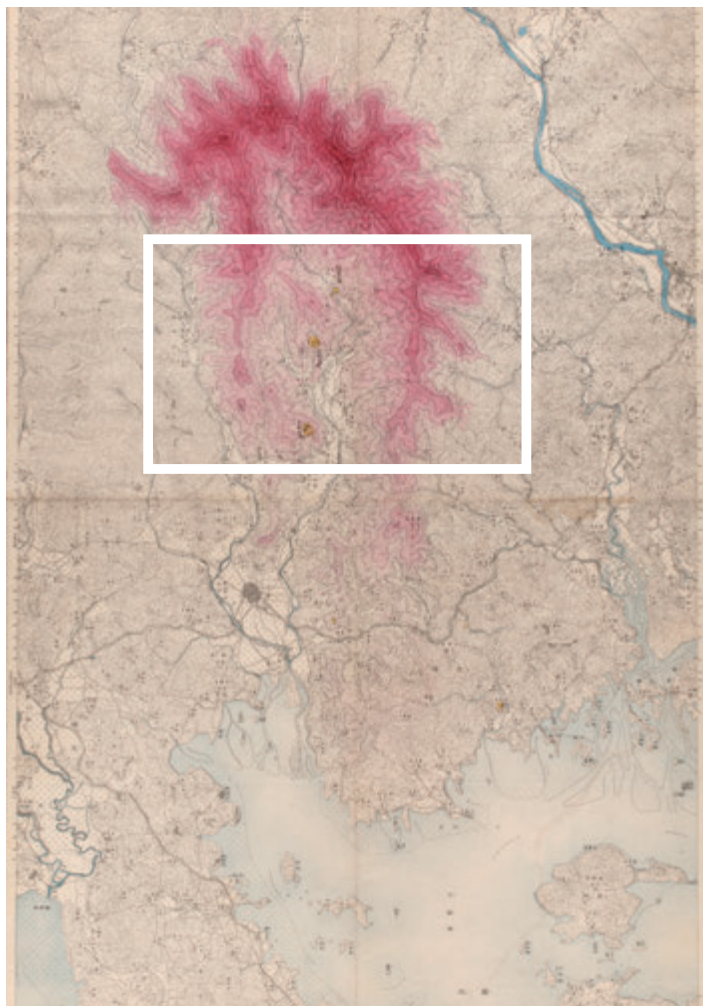
이 절터는 현재 운평리사지(雲坪里寺址)로 불리는 곳으로, 도선국사 또는 보조국사에 의한 창건설이 구전되는 곳이다. 임진왜란 당시 인근 중흥산성과 함께 승병과 의병의 훈련소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당시 전란으로 소실되어 폐사되었다는 내용이 전한다. 이후 20세기에 이르러 작은 암자시설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며, 1936년에 중건되었다가 곧 폐사되었고, 1958년에 중건되었다가 다시 폐사되기도 하였다. 현재의 중흥사는 1963년에 독지가 하태호에 의해 재중건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부터 현재의 규모로 중창되었다(순천대학교박물관 1993).

현재 중흥사에는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과 고려 말~조선 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석조지장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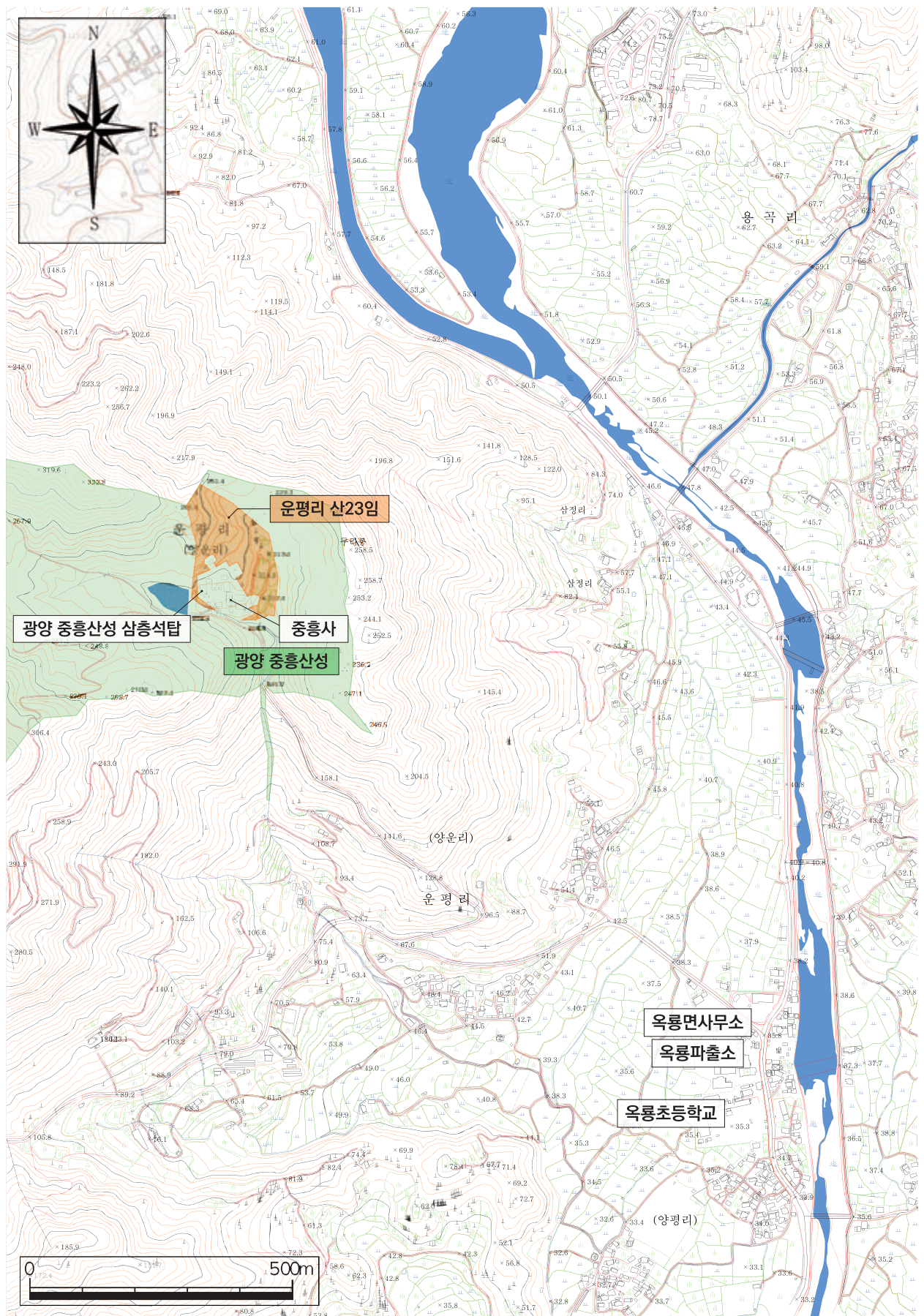
반가상(전라남도 유형문화재)이 남아 있다. 중흥사 주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압인문토기병 구연부편과 두께 1.6cm 정도의 중선문·두께 1.6~1.7cm 정도의 격자문·어골복합문(어골문+횡선문)·집선문(거치문, 사선집선) 와편, 연화문 수막새편, 분청사기편, 백자편 등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운평리사지는 통일신라~고려 초기에 초창·운영되다가 쇠락하고, 다시 고려 후기~조선 중기에 운영되다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조선 후기까지는 명맥만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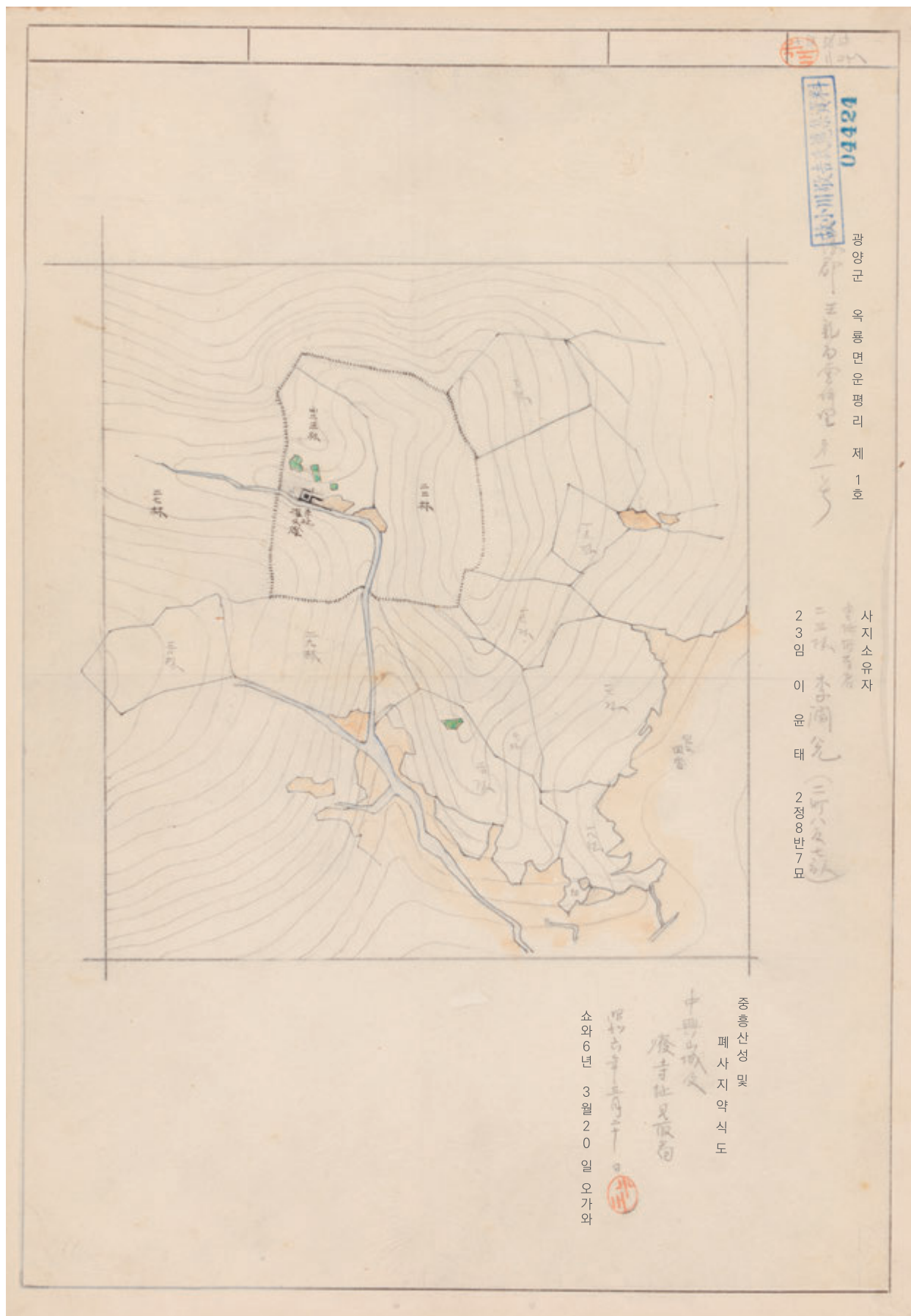
도 4. 1872년 광양현지도(서울대규장각 소장, 奎10500)에 표시된 석담



도 5. 중흥산성의 위치(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조사자료, 1930년대 지도)



도 6. 중흥사와 중흥산성의 위치(1:50,000 수치지도, 2022년)



도 7. 중흥산성 내 폐사지의 위치(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작성본, 1931년 3월 20일)



도 8. 중흥산성 원경(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1년 3월 22일)

2. 석등의 이동 과정

1930년 8월, 옥룡보통학교 후원회는 기본금을 조성하고자 옥룡면 운평리의 변정섭에게 옛 중흥산성터에 있던 쌍사자 석등과 삼층석탑의 매매를 의뢰하였다. 변정섭은 부산의 매수인과 흥정하였고, 이 매수인은 대구의 이치다⁴에게 전매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때 이치다는 조선총독부의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촉탁에게 상황을 전달했지만, 사무적 사정으로 조사 출장이 계속 미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후원회는 유물의 매매와 관련

한 사항을 군 당국과 상의하였으나 군으로부터 고적유물보존규칙에 의해 불가하다는 지시를 받고 유물을 매각하려는 시도가 중지되었다.

1930년 9월 17일, 토지 소유자인 이재영^{李載永}⁶은 본인 소유 땅에 있는 유물의 무단 매매 시도에 반발하여 광양군 경찰관 주재소에 유물 발견을 신고하게 된다. 그 다음날인 9월 18일, 미상 인물이 석탑과 석등을 고의로 파괴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광양군 경찰관 주재소의 조사에 의하면, 1930년 말부터 석탑 및 석등에 대한 훼손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쇼와 5~7년도 복명서』, 「전라남도 광양군 기타 고적유물 조사 보고서」

3월 20일 맑음

아침 8시 옥룡면사무소를 출발하여 중흥산성에 올라간다. (중략) 탑과 석등 둘이 있다. 오래된 기와 파편도 흩어져 있다. 석탑은 삼층으로 신라 말기의 명작이다. 등롱은 쌍사자로 구성된 일품이다. 둘 다 국보의 가치가 충분하다. 촬영하고 실측을 마친 후 산에서 내려왔다.

밤에 옥룡 경찰관 주재소를 방문하여 중흥산성 폐탑 매매에 관한 건을 들었다. 쇼와 5(1930)년 8월경에 옥룡보통학교 후원회가 기본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성 내의 석탑과 석등의 매매를 옥룡면 운평리 변정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뢰했다. 변이 분주한 결과, 부산부의 성명 미상의 매수인 2명과 함께 와서 견分^{見分}⁵ 시켰다. 그리고 750엔으로 매매의 약속이 성립되었다. 학교 후원회에서는 100엔 정도라면 팔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비싼 가격에 놀라서 군 당국에 상의했다. 그러나 유물의 매매는 고적유물보존규칙에 의하여 불가능하다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토지 소유주는 본인의 땅에 있는 것을 한마디도 상의 없이 무단으로 매매하는 것이 못마땅한 일이라고 해서 경찰관 주재소에 유물 발견 신고를 제출했다. 그것이 쇼와 5(1930)년 9월 17일이었다. 경찰은 현지에서 시찰하고 보고서 안을 가지고 광양

경찰서에 보고했다. 다음날 밤에 누군가가 와서 해당 석탑과 석등을 파괴하고 도망갔다. 이처럼 탑을 둘러싸고 여러모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이상이 옥룡면 경찰관에게 들은 개요이다. 부산의 매수인은 대구의 이치다 모북에게 전매하는 약속을 했는데, 이치다 모로부터 후지타 촉탁에게 상의가 있어 이번 출장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09쪽 참조

『34회 고적조사위원회』, 「광양경보 2352호」

(전략)

5. 현황

석탑·석등은 둘 다 장작을 채집하는 인부, 기타 사람에 의하여 쓰러지고, 원형을 유지할 수 없는 채 흩어져 있다.

(중략)

7. 관리 보존 상황

작년 말에 대상 유물에 주목하여 파편 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 소유자인 이재영은 감시인 등을 배치하여 유실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지난날 밤에 유물을 쓰러뜨리고 석탑 내 유물을 훔쳐 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일어났다. (토지)소유자인 이재영은 보존의 어려움을 느껴 이 땅의 유물을 대구의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에게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121쪽 참조

4 일제강점기 대구의 고미술품 수집가였던 이치다 지로[市田次郎]로 추정된다.

5 실지 답사를 의미함.

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에는 운평리 산23번지의 소유주 혹은 관리자로 이재영^{李載永}이라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이재영에 대한 기록은 현재 토지 대장 등본과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1915년에 생산한 지적원도(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지적 아카이브 참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890년 1월 25일생 이재영^{李載永}이 옥룡면 운평리 100·109번지 토지의 소유주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1931년 현장조사 당시 오가와 게이키치가 작성한 도면(도 7)에는 '운평리 23임^林 폐사지'의 소유주가 이윤태^{李潤兌}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해당 임야에 대한 일제강점기 임야 원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재영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감시인을 두었음에도 장작을 채집하는 인부에 의해 석탑과 석등이 쓰러지고 석탑 내부의 유물이 도난당했다는 것이다.

다음 해인 1931년 3월 20~22일, 조선총독부 기수였던 오가와 게이키치는 촉탁 홍석모와 함께 광양으로 직접 출장을 나와서 석탑과 석등을 실견하고 무너진 현장을 촬영하고 실측하였다. 당시 촬영사진과 실측도면은 다음과 같다.^{도 7~21}



도 9. 쌍사자 석등 및 석탑 원경(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1년 3월 21일)



도 10. 쌍사자 석등 및 석탑 도괴 상황(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1년 3월 21일)



도 11. 쌍사자 석등 및 석탑 도괴 상황(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1년 3월 21일)



도 12. 쌍사자 석등 도괴 상황(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1년 3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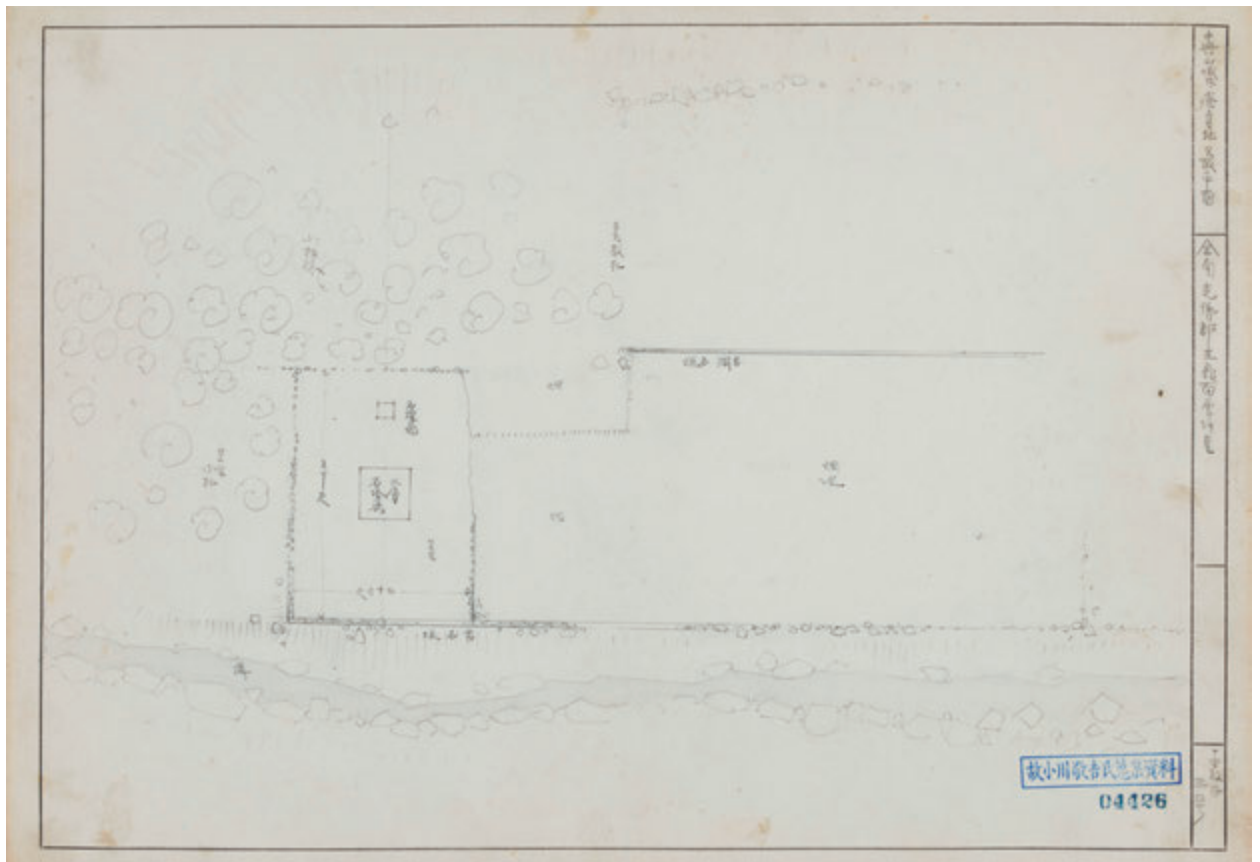
도 13. 쌍사자 석등 도괴 상황(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1년 3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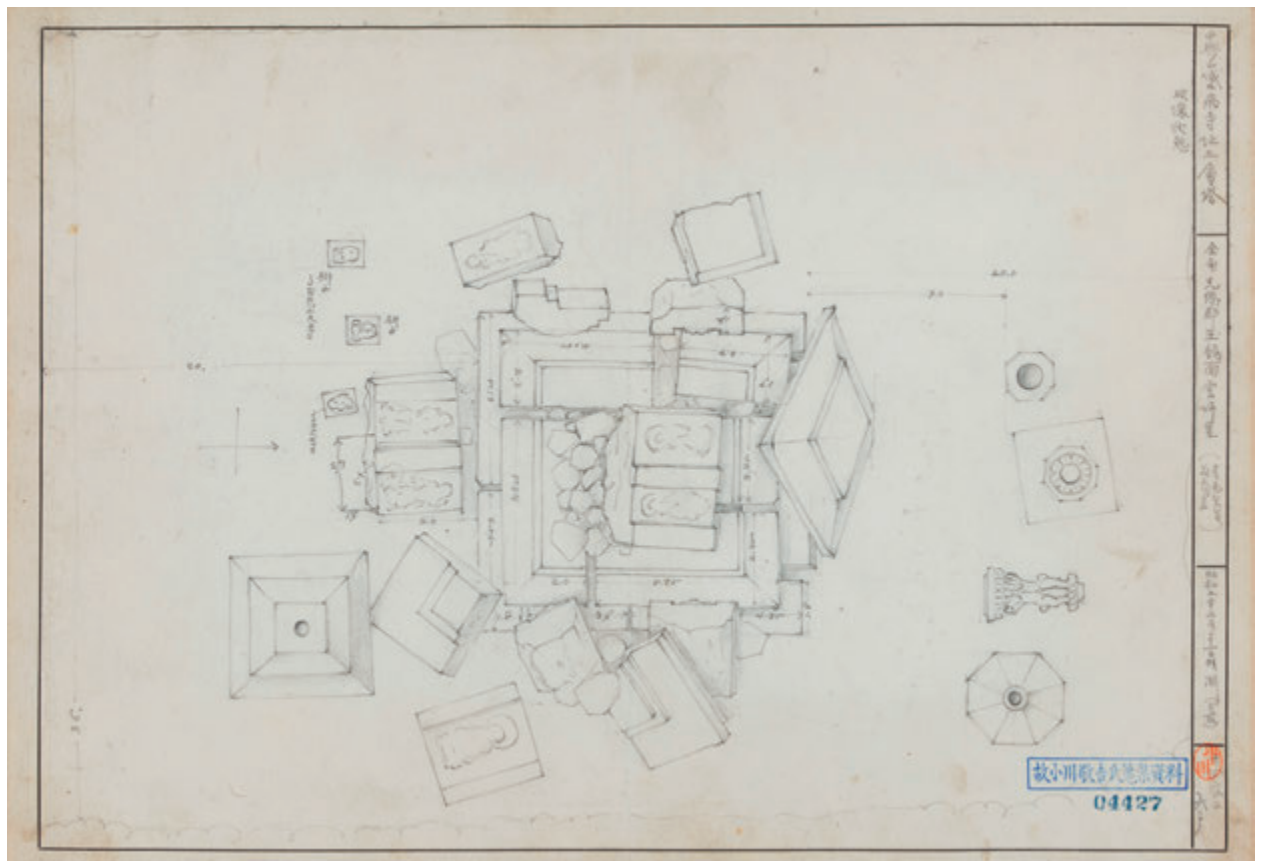
도 14. 쌍사자 석등 도괴 상황(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1년 3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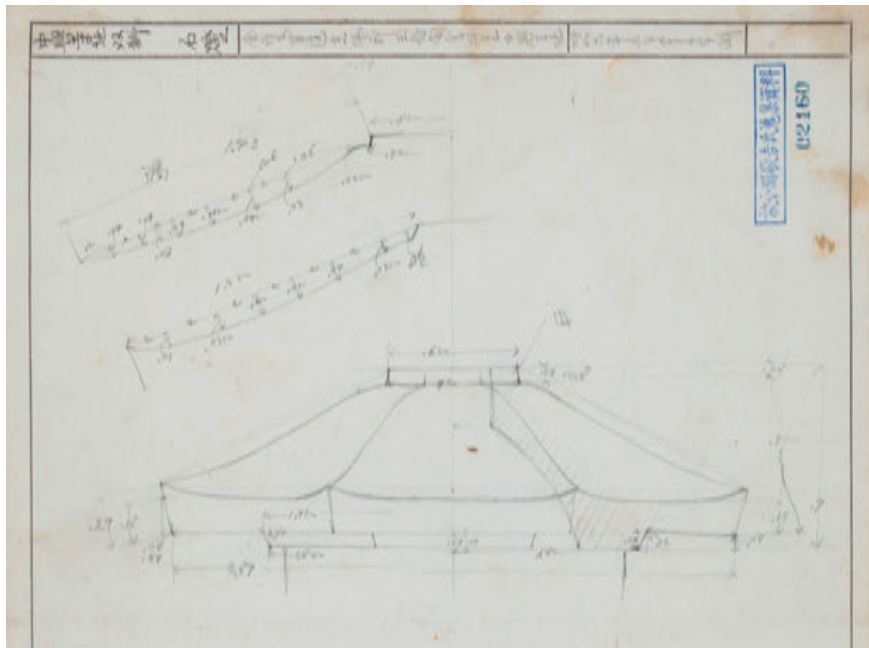
도 15. 쌍사자 석등 도괴 상황(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1년 3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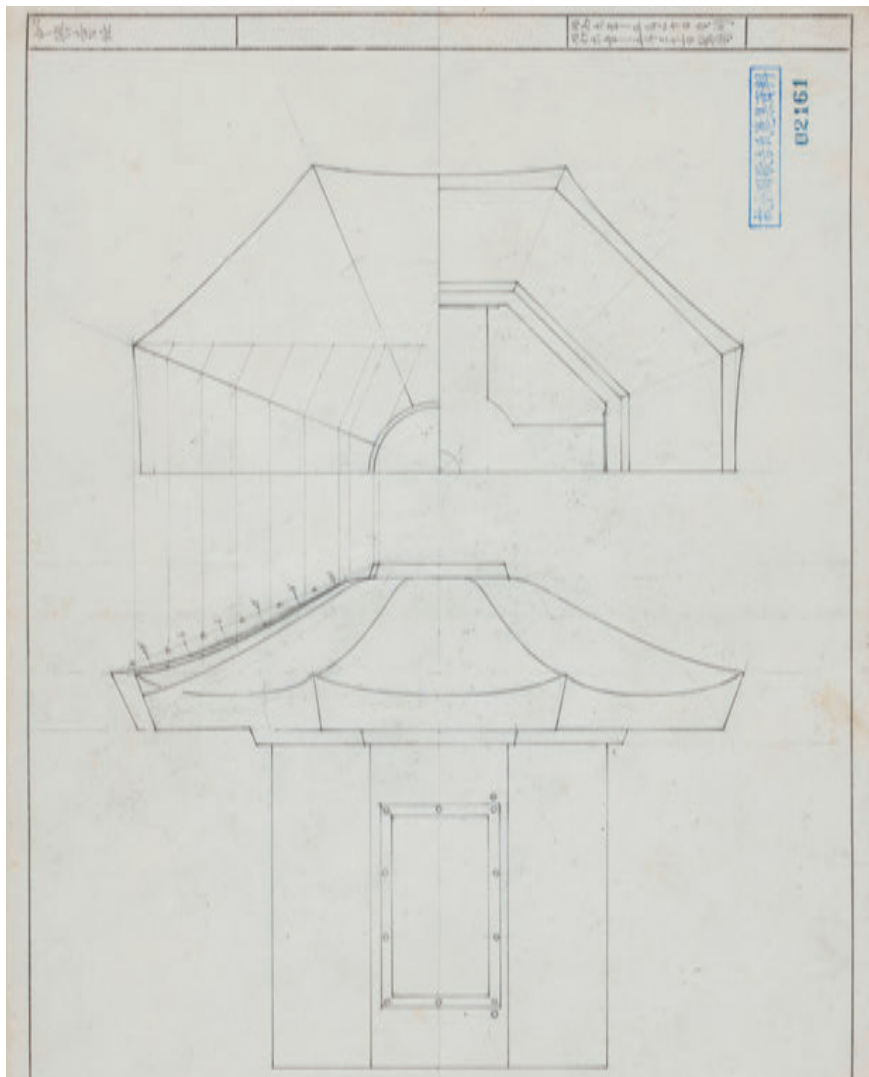
도 16. 중흥산성 내 폐사지 평면도(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작성본, 작성연대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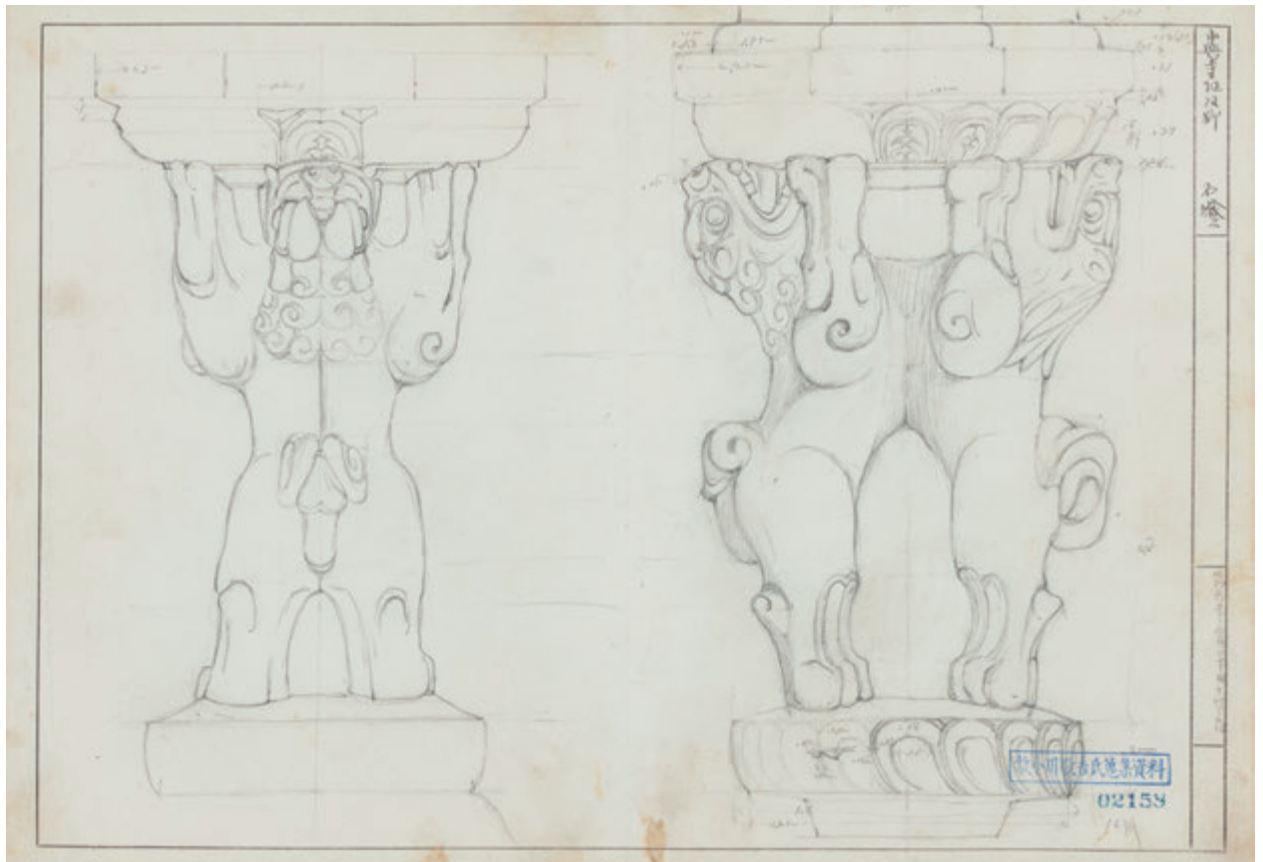
도 17. 중흥산성 삼층석탑 및 쌍사자 석등 도괴 상황도(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작성본, 1931년 3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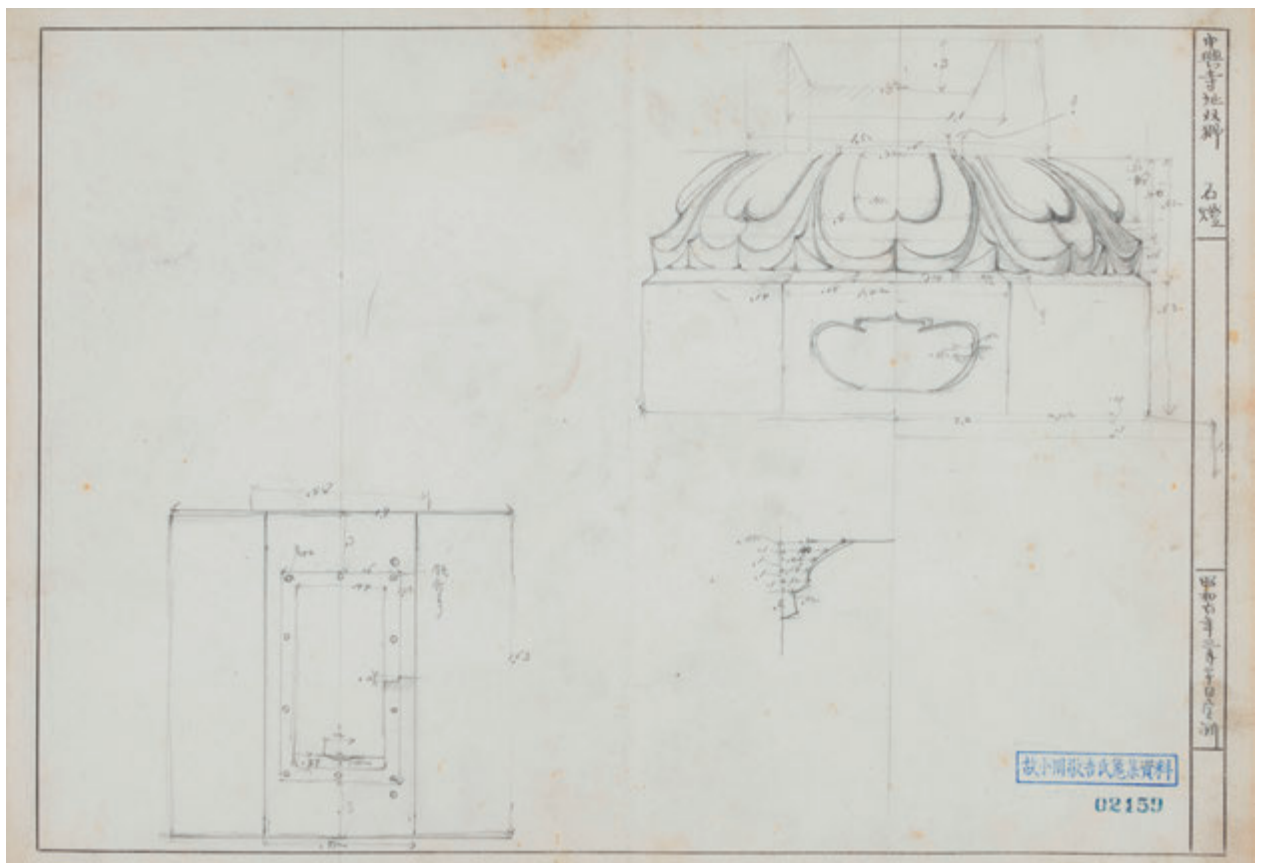
도 18.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옥개석 입면도(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작성본, 1931년 3월 20일)



도 19.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옥개석 및 화사석 평·입면도(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작성본, 1931년 3월 20일)



도 20.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간주석 및 상대석 입면도(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작성본, 1931년 3월 20일)



도 21.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하대석 및 화사석 입면도(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작성본, 1931년 3월 20일)

1931년 4월 상순⁷, 이재영은 대구부 동문정의 오구라 다케노스케⁸에게 400엔을 받고 산림을 매각하였다. 오구라는 매수 직후 산림 내 석탑과 석등을 대구로 옮기기 위한 운반 작업에 착수하였다. 작업자들은 석등을 먼저 운반하여 옥룡면사무소 근처까지 왔으나, 유물의 외지 반출에 반대하는 면민과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후 광양군은 유물의 보존 상태를 우려하여 석등을 원 소재지인 석탑 옆으로 다시 운반하려고 하였으나, 약 5만 엔이라는 큰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좌절되었고 조선총독부에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후

석등은 면사무소 부근 길가에 계속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1년 4월 11일, 유물이 매매로 일본에 유출될 것을 우려한 조선총독부는 34회 고적조사위원회를 거쳐 석탑 및 석등을 각각 제199·200호로 국유 등록하였다.⁹ 1931년 4월 22일, 오구라는 석탑 및 석등을 광양군 광양면 읍내로 옮기는 것을 허가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31년 8월 28일 개최된 제35회 고적조사위원회에서 옥룡면사무소 옆에 방치된 석등을 경복궁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 보존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결

『보물고적 대장용 재료』, 「국유 석탑 및 석등에 관한 건」

옥룡면 운평리 중흥산성 삼층석탑에 관해서는 4월 27일부 국유로 등록되었다는 통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탑은 국유 등록 전 임야 소유주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대구부 동문정 오구라 다케노스케에게 해당 임야를 매각했습니다. 그 결과, 오구라는 자동적으로 임야 내 물건인 석탑 등도 본인의 소유가 된 것으로 알고 올해 4월경 이 석탑을 대구로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옥룡면 일반주민은 이것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면민대회를 개최하여 이 처치에 관해서 군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군은 이 지방 경찰서장과의 협의한 끝에 일시적으로 운반을 중지시키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국유로 등록되었는데 현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반한 채 그 일부는 옥룡면사무소 부근 길가에 흩어져 있어 보존상 우려스러운 상태입니다. 이에 이것을 원래 소재지로 운반하여 보존하려고 여러모로 면과 협의하였으나 많은 비용(약 5만 엔)이 소요되어 도저히 면에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귀관께서 부디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겸하여 말씀을 올립니다.

133쪽 참조

『보물고적 대장용 재료』, 「광양경보 제2532호」 유물 보관에 관한 건

쇼와 6(1931)년 4월 11일부 제199호 및 제200호 유물로 등록된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운평리 산림 23번지 중에 존재하는 삼층석탑과 쌍사자 석등은 유물로 등록되기 전, 즉 올해 4월 상순에 해당 유물 소재지 소유자인 이재영으로부터 대구부 동문정 오구라 다케노스케에게 400엔으로 해당 유물과 소재지 산림을 매각했는데, 오구라는 해당 유물을 본인의 거주지인 대구로 옮기기 위해 매수 직후 운반에 착수하여 옥룡면 운평리 옥룡면사무소 옆까지 약 20정 이상 운반하던 중, 면민이 그것을 목격하면 소유물을 면민에 대한 양해 없이 무단으로 면 밖으로 운반하는 것을 못마땅해하여 물의를 빚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경찰서에서도 유물을 운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운반 중지를 명령했기 때문에 삼층석탑은 산림 중에, 그리고 쌍사자 석등은 옥룡면사무소 부근 길가에 있으므로 엄중히 조심하면서 보관 중입니다. 그래도 소재지는 산속 벽지인 관계로 감시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유물로서 등록된 뒤는 해당 유물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져 평판이 점점까지 오르며 이에 진기한 것으로 여겨져 구경하려는 사람 등도 날마다 증가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 어떤 불량자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분실될지 예측할 수 없으며 보관이 지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급히 어떤 처치를 마련해주시기를 사유를 설명하면서 보고드립니다.

135쪽 참조

7 「광양경보 제2532호」에 따르면, 이재영이 오구라에게 산림을 판매한 시점은 유물이 국유로 등록된 1931년 4월 11일 이전이라고 한다.

8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1870~1964). 일제강점기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한 기업가로, 조선에서 수집·반출한 문화재로 구성된 '오구라 컬렉션'으로 유명하다.

9 『보물고적 대장용 재료』 문건에는 국유 등록이 4월 27일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다.

정의 사유로 석등을 원위치에 운반하는 것이 어렵고, 방치되어 있는 유물이 파괴될 위험이 있음을 들었다.

1932년 1월 8일 조선총독부는 석등을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운반하였다. 『쇼와昭和 5~6년도 진열물품 청구서』 문서철에 따르면 석등은 2월 10일에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수장되었고, 12804번(현 본관번호)의 관리번호를 부여받았다. 『다이쇼大正 11년도 이후 진열물품 관계』 문서철에 의하면, 1932년 7월 15일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석등을 건립한 것으로 보이지만 건립된 시점은 그간 명확하지 않았다. 오가와 게이키치 조사 자료를 보면 석등을 1932년 11월 중순 야외정원에 건

립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있고, 11월 10일에 조선총독부박물관 뒷편인 경복궁 자경전 앞뜰에 건립된 석등을 촬영한 사진¹⁰이 있어 실제 건립이 11월 10일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석등은 1960년에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전되었다.¹⁰ 1962년 12월 20일에는 국보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72년 국립중앙박물관(현 국립민속박물관) 불교조각실에, 1986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중앙청) 야외정원에서 전시되었다. 1990년 8월에 이르러 원 소재지인 광양시와 가장 인접한 국립박물관인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옮겨 지금까지 전시하고 있다.

『34회 고적조사위원회』, 「회의」

광양 중흥산성 내 삼층석탑과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의 매우 뛰어난 유물로 급히 보존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고적보존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인정된다. (중략)

추가로 이 석탑과 석등은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운평리 중흥산성 내 폐사지에 있다. 최근 이 석탑과 석등의 매매를 위하여 소재지의 매매를 도모하는 사람이 있다.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유물이 내지(일본 본토) 기타에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등록하여 보존하고자 한다.

116쪽 참조

『34회 고적조사위원회』, 「광양경보 제2532호」

소유 및 관리권 이양을 받은 경상북도 대구부 동문정 69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다음과 같이 요청을 전달해왔다. 이에 조사를 실시했는데, 관리·보존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허가해주시기 바란다. (중략)

유물인 석탑 1기, 등롱 1기는 운평리 산림 중에 있다. 도난 혹은 파손 등을 당할 우려가 있어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면 읍내에 이전하여 관리·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 요청에 따라 조사했는데, 해당 유물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최근 갑자기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지난번에도 탑을 쓰러뜨리고 안에 있는 물품이 도난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또한 미신적 행위인지 탑의 파편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 소재지는 산간의 벽지로 관리·보존을 위하여 광양읍내에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123쪽 참조

『35회 고적조사위원회』, 「의안 제2호-고적유물 등록 제200호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을 경성부 경복궁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 보존하는 건」

쇼와 6(1931)년 4월 11일에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 제2조에 의하여 등록된 제200호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운평리 중흥산성에 있다. 신라 석조 조각물로서 가장 뛰어난 것이지만 쇼와 6년 3·4월 사이에 사적으로 이것을 운반하여 산 밑의 옥룡면사무소 앞에 옮긴 사람이 있다. 마을 사람의 반대에 봉착하여 길가에 방기되어 있다. 이것을 원위치에 운반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섬세한 조각이 파괴될 우려가 있어 경성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 세우고 보존하고자 한다.

125쪽 참조

『보물고적 대장용 재료』, 「광양경보 제2532호」 유물 대장 등록 사항 변경 건

쇼와 6(1931)년 4월 11일부 제200호 유물로 등록된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운평리 이재영 소유 산림 내에 존재했던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쇼와 7(1932)년 1월 8일에 조선총독부로 운반되었기 때문에 대장에서 삭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6쪽 참조

『오가와 게이키치 조사 문화재자료』, 「1932년 11월 15일 촬영 사진 설명」

1931년 12월 23일 광양읍 아시무라[芦村] 운송점과 계약을 맺고 1932년 1월 상순 옥룡면사무소에서 경성박물관으로 운반하여 1932년 11월 중순 야외정원에 건립

10 일부 신문 기사(1962년 12월 15일 동아일보)와 연구 자료(순천대학교박물관 1993)에 따르면, 쌍사자 석등이 1959년에 경무대(현 청와대) 정원으로 옮겨갔다는 기록도 확인된다.

표 1.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이동 과정

일자	내용	관련 문서
	옥룡보통학교 후원회, 기본금 조성을 위해 옥룡면의 변정섭에게 석탑 및 석등 매매 의뢰	
1930년 8월	변정섭은 부산의 매수인과 흥정하였고, 부산의 매수인은 대구의 이치다에게 전매할 것을 약속 후원회는 군 당국과 상의하였으나 유물의 매매는 고적유물보존규칙에 의해 불가하다고 하여 매각 중지	· 쇼와 5~7년도 복명서 109쪽
1930년 9월 17일	토지 소유주(이재영), 유물의 무단 매매에 반발하여 광양군 경찰 주재소에 유물 발견 신고	· 쇼와 5~7년도 복명서 109쪽
1930년 9월 18일	미상 인물, 석탑 및 석등 고의 파괴	· 쇼와 5~7년도 복명서 109쪽 · 각 도 소재 고적 용지 조사 관계 보물고적 대장 129쪽
1931년 3월 20~22일	조선총독부 기수 오가와 게이키치 출장 조사	· 쇼와 5~7년도 복명서 109쪽
1931년 4월 7일	광양경찰서, 조선총독부에 유물발견 조사 보고	· 34회 고적조사위원회 121쪽
1931년 4월 상순 (4월 11일 이전)	토지 소유주인 이재영, 대구의 오구라 다케노스케에게 산림 매각. 오구라는 산림 내 석등을 대구로 옮기기 위해 옥룡면사무소까지 운반하던 중 면사무소 부근 길가에서 면민과 경찰에 의해 제지됨	· 35회 고적조사위원회 125쪽 · 보물고적 대장용 재료 135쪽
1931년 4월 11일	조선총독부, 석탑 및 석등 등록(제199·200호)	· 34회 고적조사위원회 118쪽
1931년 4월 22일	대구 오구라, 관리·보존을 위해 석탑 및 석등을 광양군 광양면 읍내로 옮기는 것을 허가 요청함	· 34회 고적조사위원회 123쪽
1931년 5월 20일	오가와 게이키치, 조선총독부에 석탑 및 석등 조사 결과 보고	· 쇼와 5~7년도 복명서 107쪽
1931년 6월 23일	광양군, 조선총독부에 석등의 옥룡면사무소 방치를 보고하고, 원소재지(산중)로 옮기고자 하나 금전적인 문제로 어렵다고 보고함	· 보물고적 대장용 재료 133쪽
1931년 8월 28일	옥룡면사무소에 방치된 석등이 파괴될 위험이 있어 경북궁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 보존하고자 함을 의결	· 35회 고적조사위원회 125쪽
1932년 1월 8일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석등 운반	· 보물고적 대장용 재료 136쪽
1932년 2월 10일	조선총독부박물관 수장 및 관리번호(12804) 부여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카드 · 쇼와 5~6년도 진열물품 청구서 126쪽
1932년 11월 10일 이전	경북궁 자경전 앞뜰에 건립	· 다이쇼 11년도 이후 진열물품 관계 131쪽 · 오가와 게이키치 조사 문화재자료
1960년	국립박물관(덕수궁 석조전) 전시	
1972년	국립중앙박물관(현 국립민속박물관) 불교조각실 전시	
1986년	국립중앙박물관(중앙청) 야외정원 전시	
1990년 8월 2일	국립광주박물관 이전. 전시관 1층 중앙홀 전시	
2021년 3월 8일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2층 역사문화실 전시	



도 22. 경북궁 자경전에 건립된 석등
(도쿄대학 소장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玄治郎] 촬영본, 1932년 11월)



도 23. 경북궁 자경전에 건립된 석등
(도쿄대학 소장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玄治郎] 촬영본, 1932년 11월)



도 24. 경북궁 자경전에 건립된 석등
(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2년 11월 10일)



도 25. 경북궁 자경전에 건립된 석등
(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촬영본, 1932년 11월 15일)



도 26. 덕수궁 석조전 야외정원에 건립된 석등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카드에 부착된 등록사진, 1960년 이후)



도 27. 덕수궁 석조전 야외정원에 건립된 석등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카드에 부착된 등록사진, 1960년 이후)



도 28. 국립중앙박물관(중앙청) 야외정원에 전시된 석등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소장 사진자료, 1986년 이후)



도 29. 국립중앙박물관(중앙청) 야외정원에 전시된 석등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소장 사진자료, 1986년 이후)



도 30.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1층 로비에 전시된 석등(1990년 8월)



도 31.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2층 역사문화실에 전시된 석등(2021년)

Ⅲ.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구조와 양식

ARCHITECTURAL STRUCTURE AND STYLE OF THE
TWIN LION STONE LANTERN OF JUNGHEUNGSANSEONG
FORTRESS IN GWANGYANG



Ⅲ.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구조와 양식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땅에 묻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부재를 결합하였을 때, 지대석 하부에서 보주까지의 최대 높이가 287cm이며, 최대 너비는 100.1cm이다. 석등은 보주寶珠, 옥개석屋蓋石, 화사석火舍石, 상대석上臺石과 간주석竿柱石, 하대석下臺石, 지대석地臺石 등 모두 6개의 부재로 구성되었다.

1. 보주

옥개석 상면에 꽃는 보주는 중간 높이까지 8매의 연꽃잎을 새겼다. 보주의 최대 지름은 17.8cm, 최대 높이는 23.5cm이다. 옥개석 찰주공擦柱孔에 꽃히는 부분의 깊이는 5.7~6.7cm이다.

2. 옥개석

옥개석은 평면이 팔각형이며 하면에 1단의 받침을 마련하였다. 상면은 찰주공 둘레가 직립했고 낙수면은 비교적 급격한 경사를 이루다 2/3 지점에서 위로 반전되어 날렵하게 표현되었다. 처마끝으로 갈수록 우동遇棟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합각면은 매끈하게 처리되고 문양이 없다. 옥개석 하면에는 1단의 높은 받침이 조각되었는데, 모를 살린 두터운 형태이다. 옥개석 하면의 넓은 원형 구멍은 상면의 찰주공과 연결된다. 옥개석의 최대폭은 94.1cm이며 최대 높이는 29.4cm이다.

3. 화사석

화사석은 평면이 팔각형이며, 팔면 중 한 면씩

건너 사면에 화창火窓을 마련하였다. 화창 둘레에는 한 단을 낮춘 윤곽을 새겼으며 화창 둘레에 못구멍이 남아 있다. 화사석 안에 불을 피우거나 등을 넣을 때 비바람을 막는 가림막을 설치하기 위한 기능적인 용도에서 못구멍을 낸 것으로 보인다. 못구멍은 정면·좌·우측 화창에는 네 모서리에 각각 1개씩, 상·하 중앙에 각각 1개씩, 좌우측 중앙에 각각 2개씩 있다. 정면과 좌·우측 면에는 못구멍을 중심으로 석재가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다. 배면 화창에는 네 모서리에 못구멍이 있고, 상·하측 중앙에 각각 1개씩, 좌·우측 중앙에 각각 2개씩, 그리고 화창 좌·우측 모서리 상단에 각각 1개씩의 못구멍이 더 뚫려 있다. 화창이 없는 면에는 문양이 없다.

화사석 하면은 막혀 있고 내부는 면을 다듬었으며 중앙에 둥근 홈이 파여 있다. 상면은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다. 화사석의 최대 높이는 51.4cm, 최대 너비는 51.8cm로 입면이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4. 상대석과 간주석

상대석은 간주석과 한 돌로 만들어졌다. 위로 향한 양련仰蓮 형태이며, 평면이 팔각형이다. 상대석 하면에 사자상으로 연결되는 1단의 낮은 받침을 새겼다. 양련의 연꽃잎은 모두 16매이며, 중앙의 복자엽複子葉에 자방子房 혹은 원호문圓弧文을 새겨 장식적으로 표현하였다. 상대석 상면에는 화사석을 받치는 1단의 높은 받침을 새겼는데, 모를 죽여 둥글게 깎은 호형弧形이다. 간주석과 상대석의 최대 높이는 125.7cm이며, 간주공에 꽃히는 부분은 비교적 평평하게 다듬었으나 높이 6.4~7.2cm로 일정하지 않다. 상대석의 최대폭은 70.2cm이다.

석등의 기둥 역할을 하는 간주석은 받침석과 사자상으로 구성되었고, 연꽃 모양이 위로 향한 앙련의 상대석과 함께 한 돌로 조각되었다. 사자상 발을 받치는 받침석은 평면이 원형이며, 복자엽이 표현된 앙련을 새겼다. 연꽃잎은 모두 16매이며, 끝부분이 희미하게 갈라졌거나 갈라짐이 없다. 꽃잎 안쪽부분은 하부에 중첩된 타원형 홈을 새겼다. 꽃잎은 시계방향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끝부분이 중첩된 모습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9세기 석조물의 연판문(蓮瓣文) 표현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복자엽이 돌출되어 볼륨이 강하고 주변의 꽃잎이 매끈하게 다듬어진 형태는 하대석의 꽃잎과 유사하다.

연꽃잎을 딛고 선 두 마리의 사자상은 가슴을 맞대고 뒷발을 딛고 얼굴을 치켜들어, 앞발과 얼굴 전체로 상대석을 받치고 있다. 사자상은 하부 연꽃받침·상부 상대석과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 두 마리의 사자상은 세부 묘사가 서로 다르다. 정면 좌측 사자상은 입을 다물었고 갈기가 곧게 뻗었으며, 꼬리가 부채 모양으로 펼쳐졌다. 등에는 척추선을 따라 한 줄의 홈을 팠다. 우측 사자상은 입을 벌려 이빨을 드러낸 모습이며, 갈기가 곱슬 곱슬한 원형이고 꼬리는 연봉형태이다. 등에는 역시 척추선을 따라 한 줄의 홈을 팠다. 두 사자의 표현이 서로 대비를 이루는 점에서 암·수 한 쌍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두 사자는 모두 바닥을 딛은 뒷다리와 앞다리를 곧게 펴고, 둔부와 다리의 근육은 강하게 나타냈다. 앞뒷발의 발톱, 크게 뜬 눈, 입가의 수염과 귀가 모두 자세히 표현되었다. 사자의 앞뒷발이 상대석과 하대석을 힘있게 밀어내고 가슴을 맞대어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 있어, 전체적으로 'X'자형의 구도를 보인다.

5. 하대석

하대석은 팔각의 하대하석과 복련(伏蓮)형 하대상석을 한 돌로 조각하였다. 하대하석은 평면이 팔각이며, 팔면에 각기 안상(眼象)을 음각했는데 내부에는 문양이 없다. 안상의 표현은 9세기에 조성된 승탑과 석조불상 대좌의 하대석에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안상은 하부가 타원형이고 상부에는 3개의 돌출부가 있다. 팔각 하

대하석의 각 면은 서로 정확히 같은 크기는 아니며, 모두 하면이 약간씩 넓은 사다리꼴의 형태이다. 하대하석의 상변은 가장 짧은 쪽이 30.5cm, 가장 긴 쪽이 34.5cm이다. 하변은 가장 짧은 쪽이 32cm, 가장 긴 쪽이 35cm이다.

하대상석은 8장의 연꽃잎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래를 향해 엮어진 복련이다. 하대상석은 평면이 원형이다. 각 연꽃잎은 내부에 복자엽을 표현하였는데, 바깥부분이 중앙에서 갈라져 오목하게 들어간 하트모양이다. 각 연꽃잎은 중앙의 복자엽만 볼륨있게 돌출시키고, 주변의 연꽃잎은 오목하고 매끈하게 처리하였다. 연꽃잎 사이사이에는 간엽(間葉)을 조각했는데, 간엽은 하부 중앙에 갈라진 홈을 파서 꽃잎이 접힌 모양을 표현하였다. 연꽃잎과 간엽의 중앙은 끝부분이 뾰족하게 반전되었다.

하대상석의 상면 중앙에는 간주석을 꽃아 고정시키는 간주공이 뚫려 있다. 간주공의 평면은 이지리진 원형이며, 상부가 넓고 하부로 갈수록 좁아진다. 하부 바닥면은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다. 간주공 지름의 최대 폭은 34.8cm이다.

6. 지대석

지대석은 평면이 방형이며, 상면 각 변이 98.4~99.0cm로 거의 정방형을 이룬다. 상면이 매끈하게 다듬어진 것에 비하여 땅에 묻히는 부분인 지대석 하면은 거칠게 마무리되었고, 높이는 낮은 곳이 19cm, 높은 곳이 28cm로 약 9cm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상면에서 하면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사다리꼴 형태를 보이는데, 지대석 상면 한 변의 최대 너비는 99cm, 하면의 최대 너비는 100.1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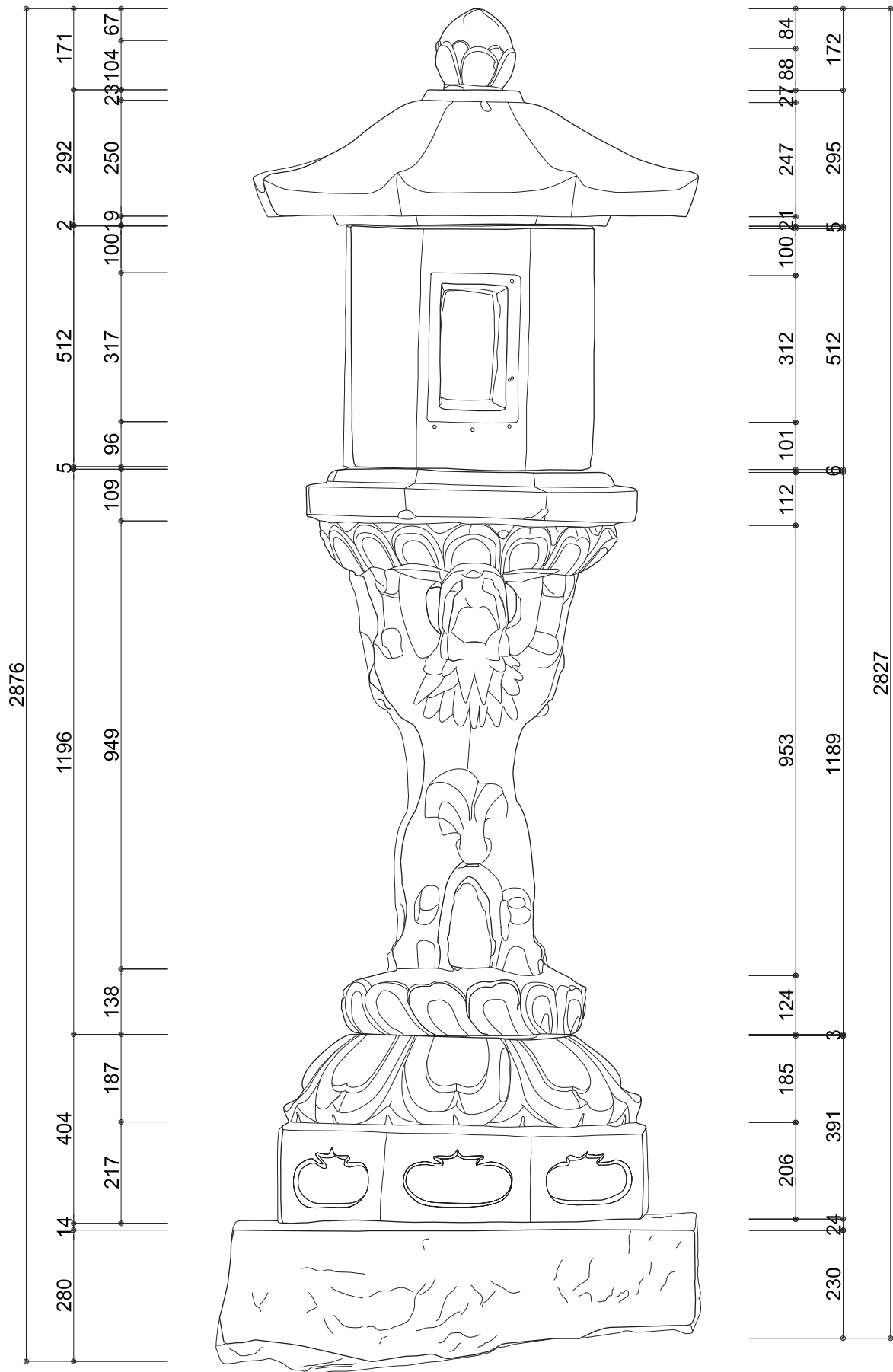


도 32. 정면 사진



도 34. 좌측면 사진

도 35. 좌측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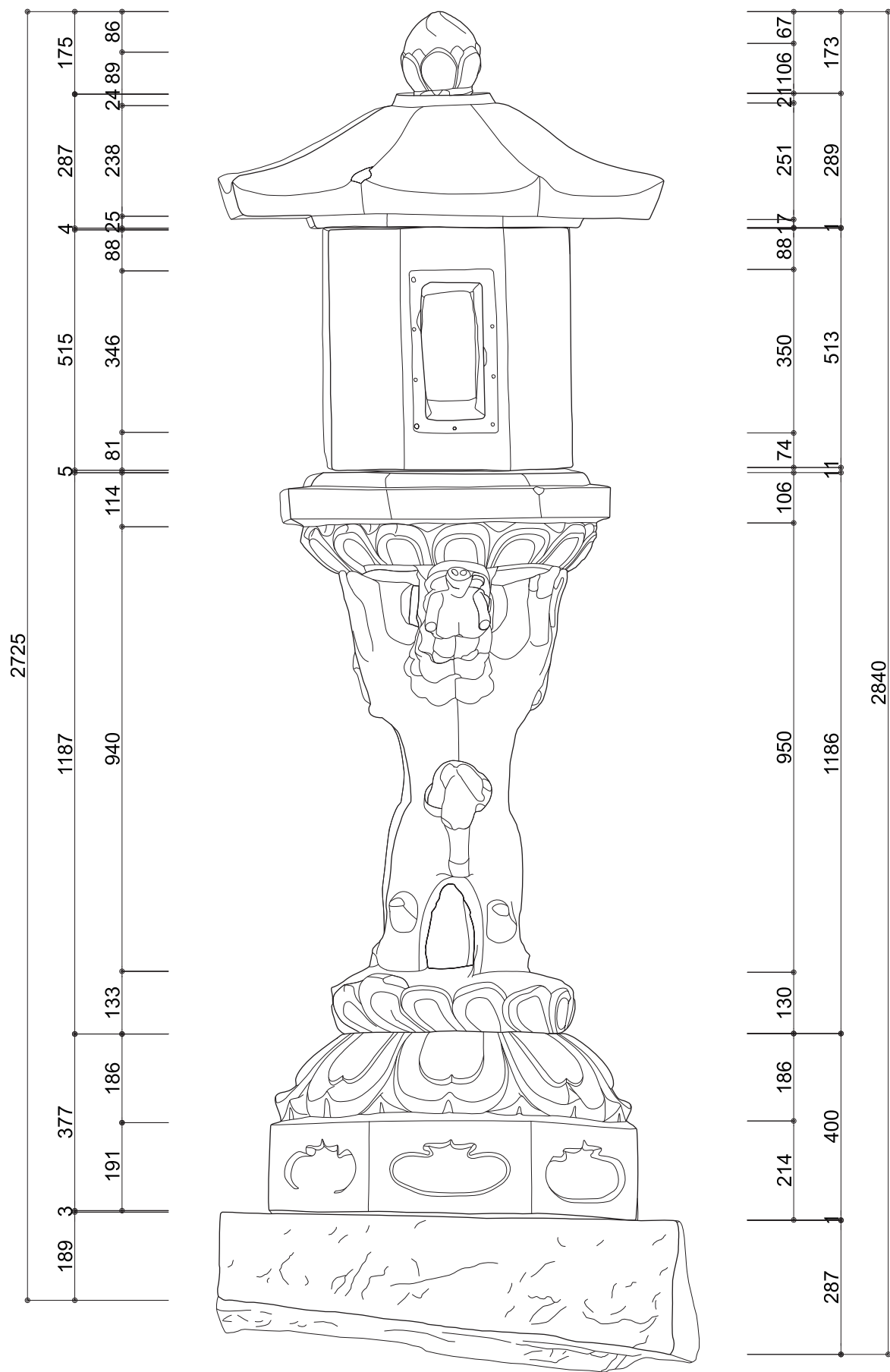


0 (1:12.5) 0.5m



도 36. 우측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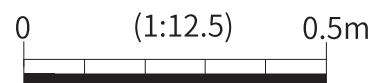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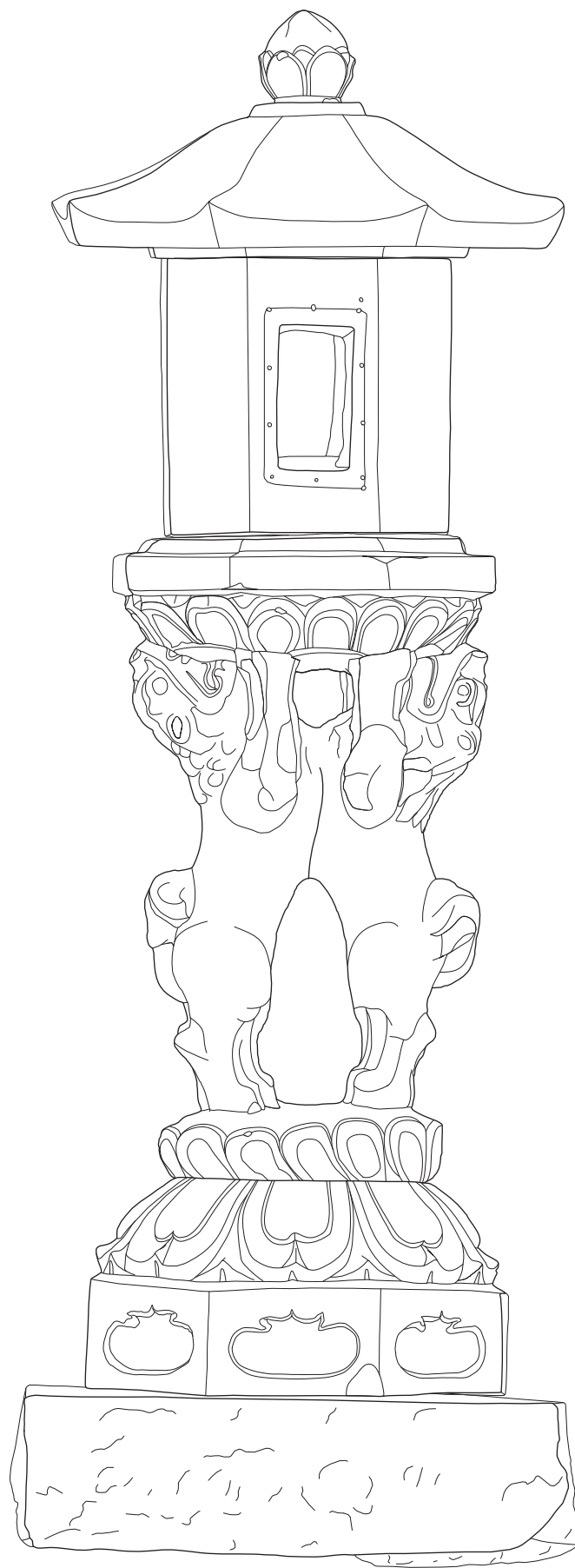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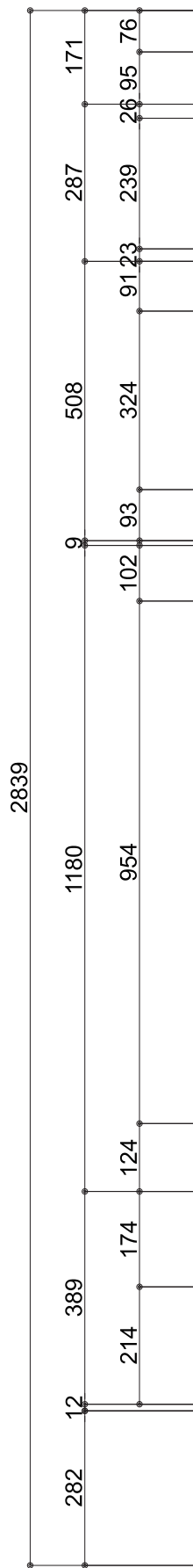
도 37. 우측면 실측도



0 (1:12.5) 0.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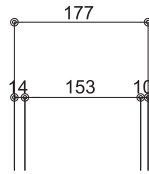
도 38. 배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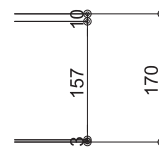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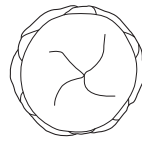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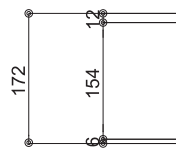
도 39. 배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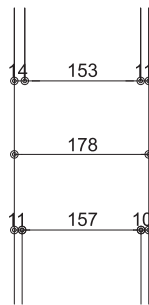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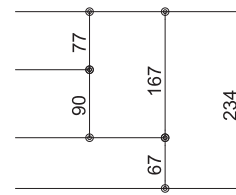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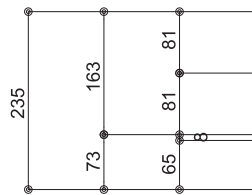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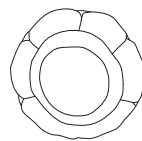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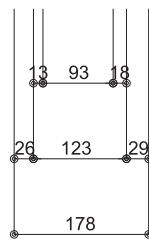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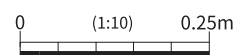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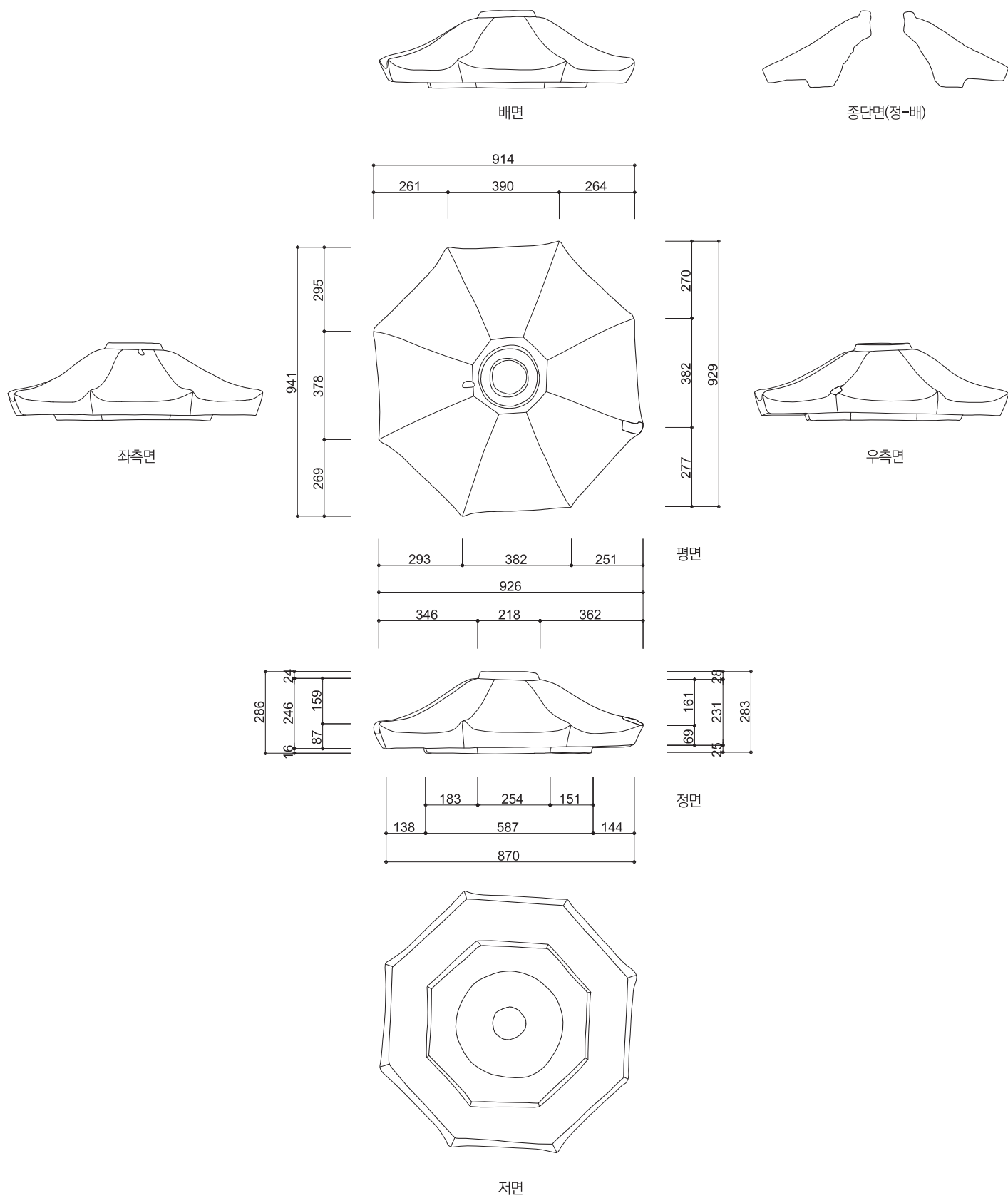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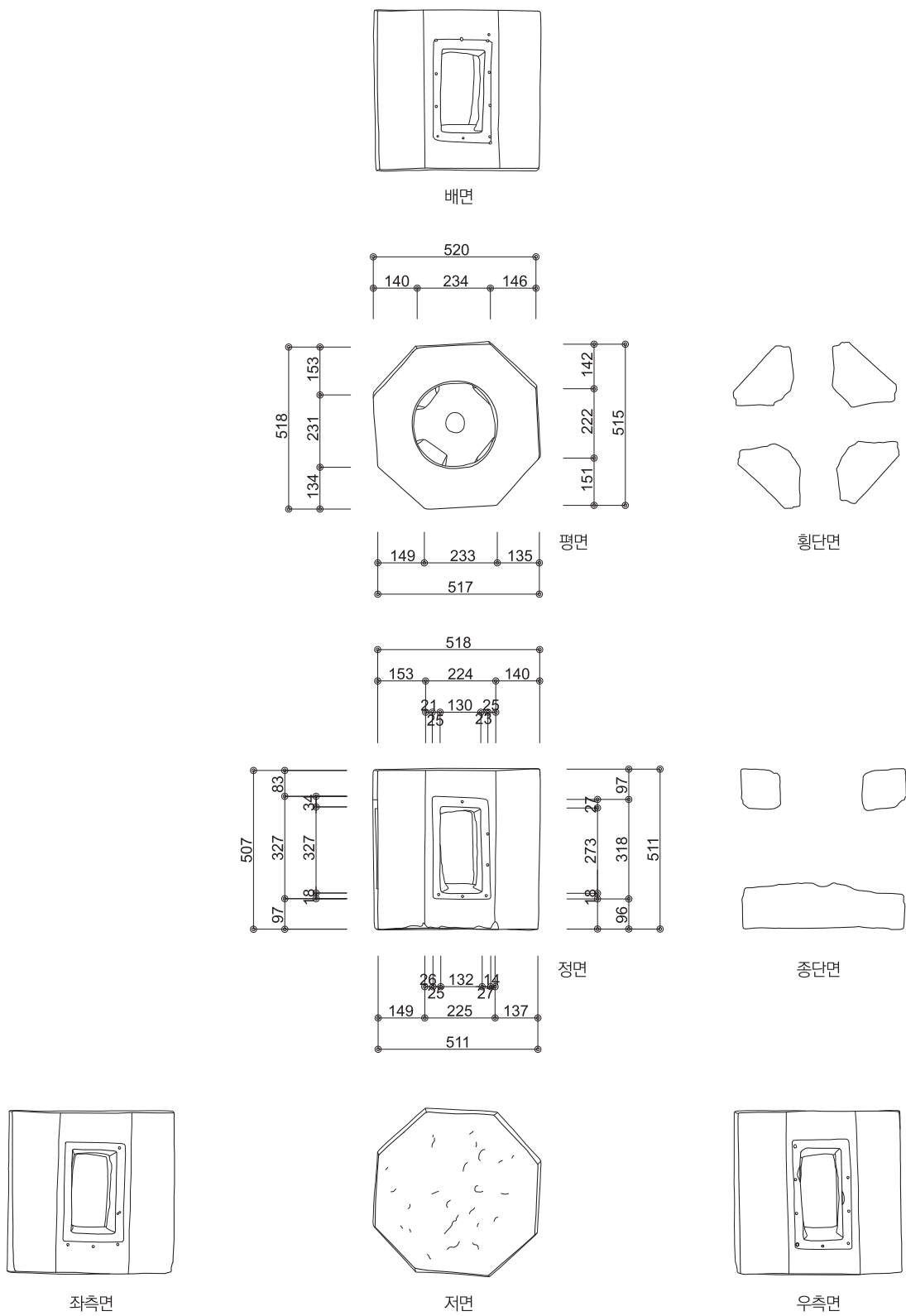


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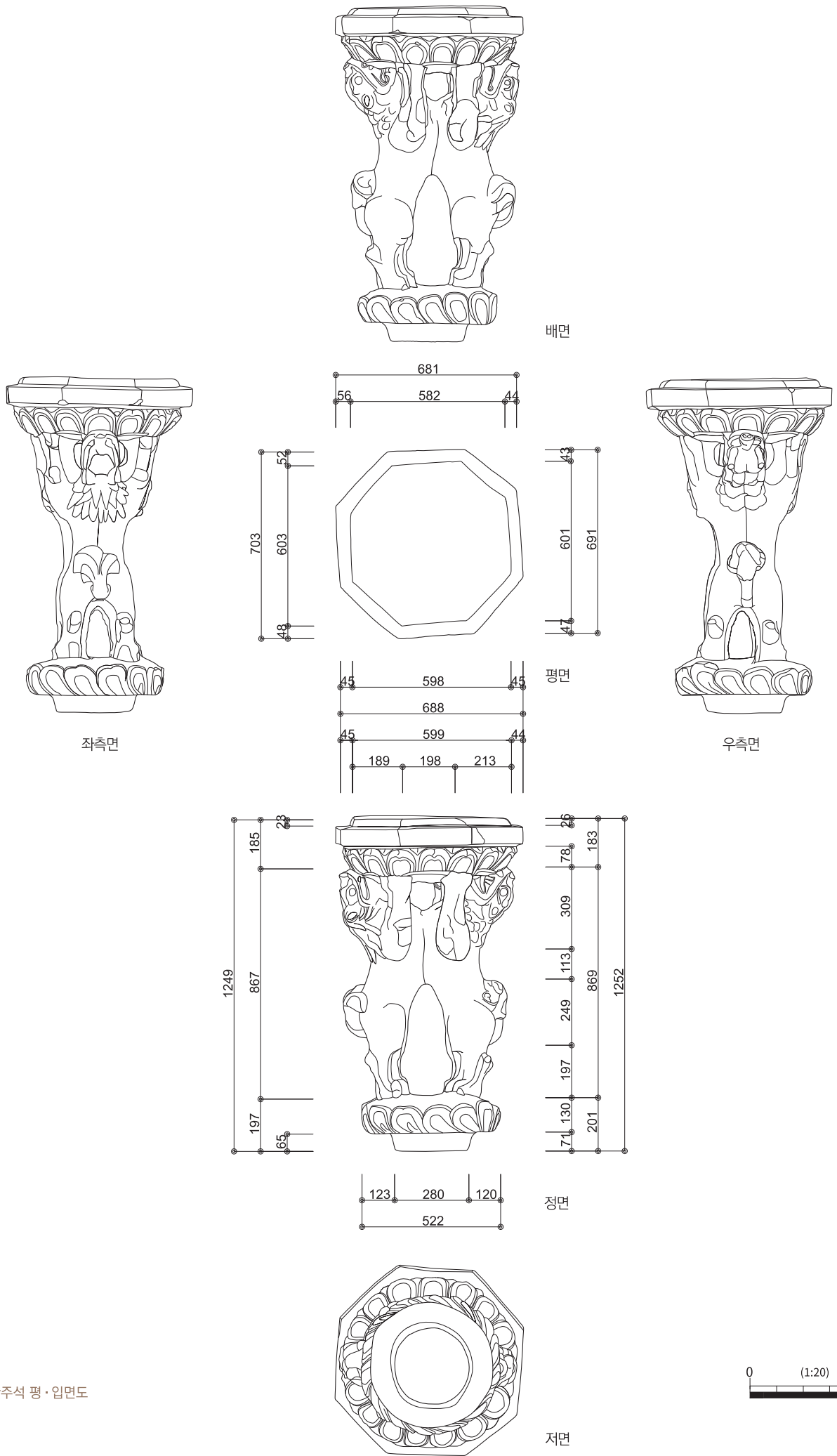


도 41. 옥개석 평·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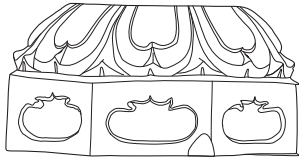
도 42. 화사석 평·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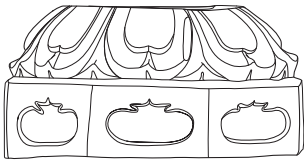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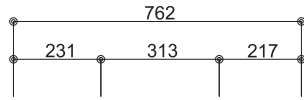


도 43. 간주석 평·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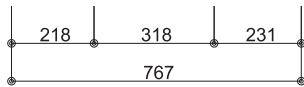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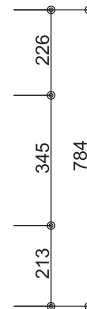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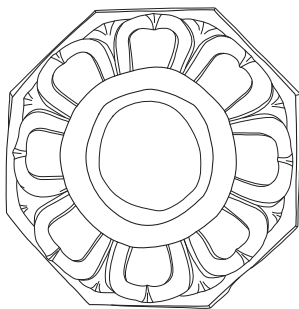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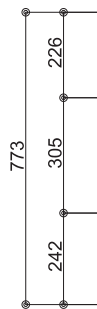
0 (1:20) 0.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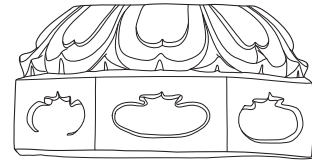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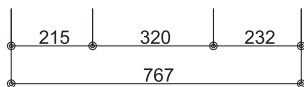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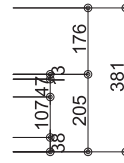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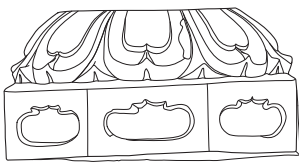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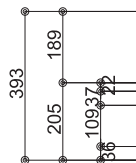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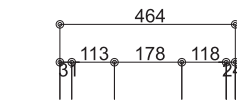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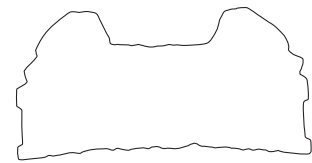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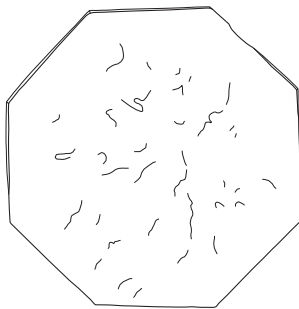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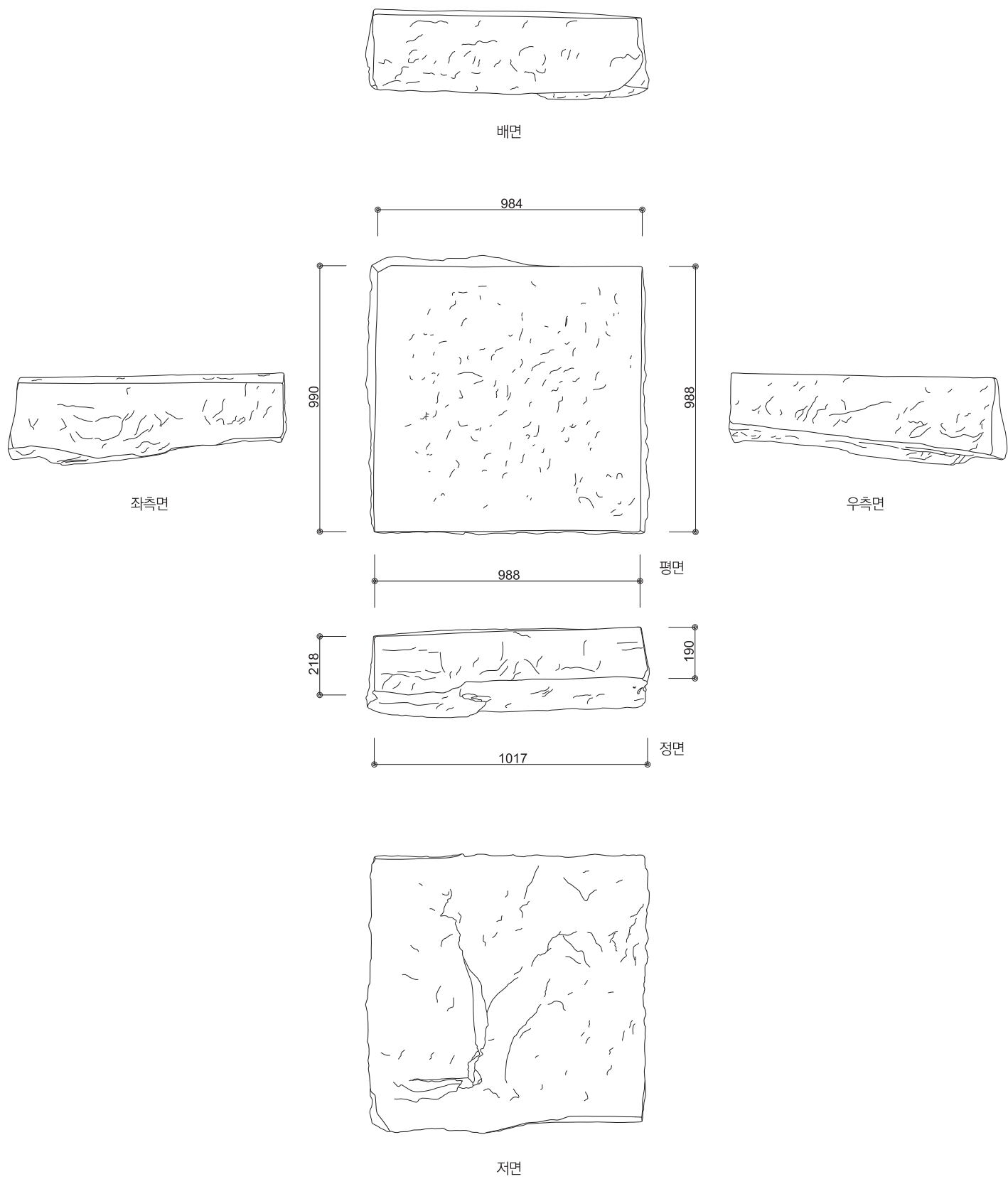
정면



종단면(정-배)



저면



도 45. 지대석 평·입면도

IV.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과학적 분석

SCIENTIFIC ANALYSIS OF THE TWIN LION STONE LANTERN OF
JUNGHEUNGSEONG FORTRESS IN GWANGYANG

-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광물 및 암석학적 특성 분석

조연태

-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해체복원 전·후 형상 변화 분석

조영훈, 홍성혁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광물 및 암석학적 특성 분석

조연태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1. 서언

1) 연구 배경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는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계면광물학 연구실과 공동으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하 석등)에 대한 비파괴 분석을 수행하고 석재 부재에 대한 화학조성과 암석 유형을 분류하여 원형 복원 시 유사한 암석 재질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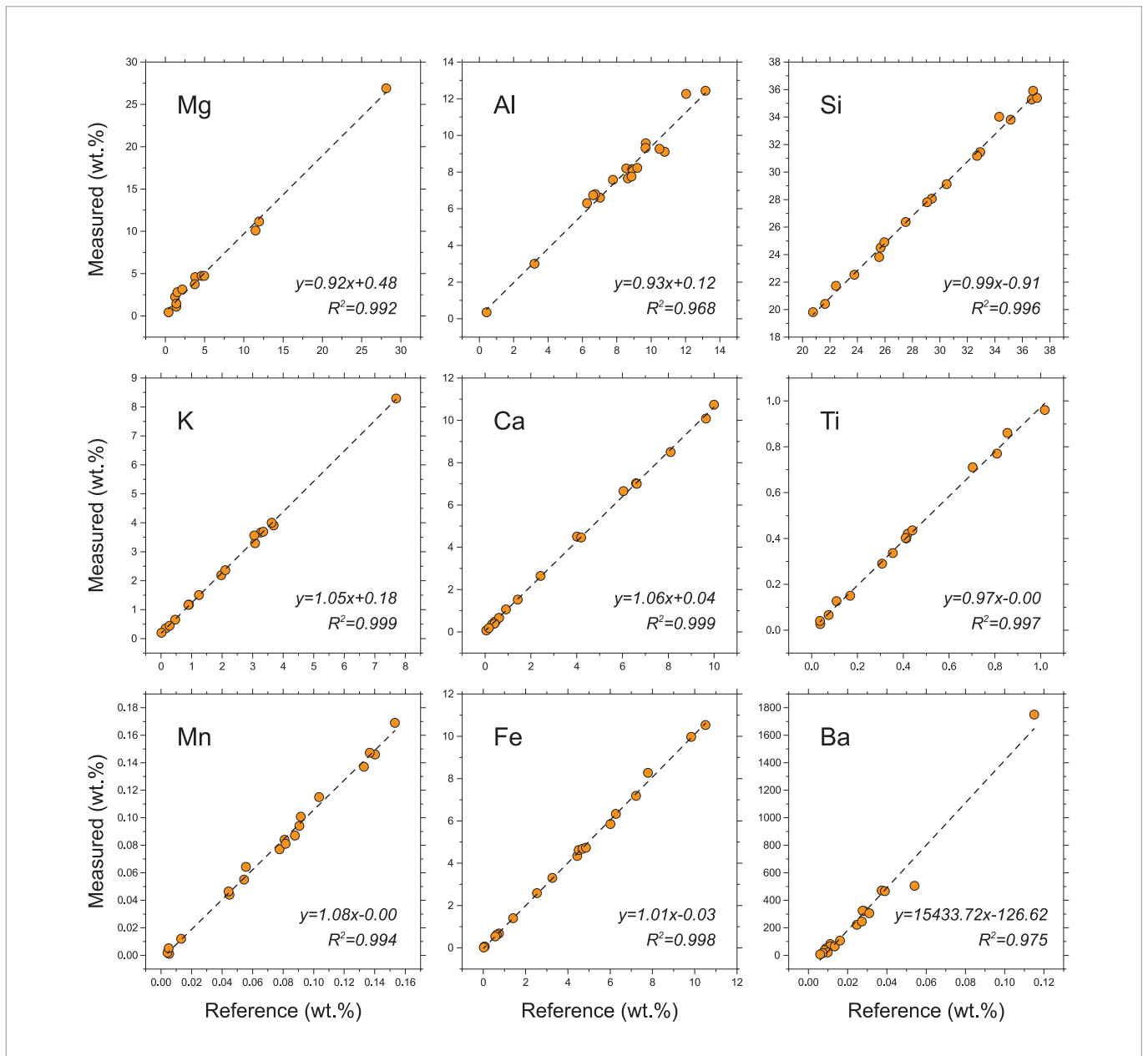
석등은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여 부재에 대한 육안 관찰과 비파괴 암석 분석 방법인 휴대용 분석기에 의한 X-선 형광 분광분석(XRF), 그리고 단파장 적외선 분광분석(SWIR)을 통하여 화학조성, 광물 동정 및 암석 분류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차광물의 존재 여부 및 유형을 근거로 화학적 풍화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석등의 부위별 단일 석재 또는 복합 석재의 사용 여부를 비교·검토하였다.

2. 분석 방법

석등의 부재는 육안 및 확대 사진을 통하여 암석의 산상을 관찰하고 색지수 분석[유색광물의 함유비(부피비, vol. %)]를 통하여 암석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암석 분류에 중요한 전암 대자율의 자화강도(화강암류의 티탄철석 계열 또는 자철석 계열), 전암 화학조성, 일차 함수광물상(백운모, 흑운모, 각섬석 등) 및 이차 풍화광물상(황산염광물 등)을 확인하였다.

1) 육안 관찰 및 암상 분류

석등의 부재는 육안 관찰 시 암석 조직을 기준으로 일차적으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의 암상 유형을 구분하였고, 화성암류는 확대 사진에서 확인된 유색광물의 함유비와 입도에 따라 세분하였다. 육안 관찰에서는 색지수, 입도, 결정형태, 구성광물, 조직, 풍화도를 중점적으로 기재하였다. 유색광물의 함유비는 색지수 표에 따라 비교·검토하였고, 규장질 광물은 색상 기준으로 구분하여 양적 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차 광물은 육안 관찰로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도 46. 정량 화학분석을 위해 표준시료 기반으로 작성된 원소별 검량선[공간 제약상 P와 S는 제외하였으며, 우측 최하단 Ba의 y축 측정 단위는 ppm에 해당함]

2) 전암 대자율(MS) 분석

전암 대자율 측정을 위한 분석기기는 Terraplus사에서 제작된 KT-10 Plus S/C meter를 사용하였다. 해당 기기의 분석영역은 직경 6.5cm이며, 1×10^{-6} SI의 감도로 약 3초 내외의 측정시간이 소요된다. 대자율 측정은 암석 부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석등의 동일 부위에서 서로 다른 15개 이상의 지점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3) 전암 X-선 형광(XRF) 분광분석

휴대용 전암 화학조성 분석기기는 Olympus사의 Vanta C-Series이며, 분석영역의 범위는 직경 약 2cm 정도이다. 측정시간은 10kV와 40kV에서 각각 15초, 50kV에서 20초, 총 50초가 소요된다.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본 지질 조사국(Geological Survey of Japan)에서 제작한 총 19개의 암석 분말 표준시료를 이용하여 원소별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보정된 화학조성 분석값을 화성암 분류에 적용하였다.

암석 부재의 입도에 따른 불균질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석등의 동일 부위 내에서 서로 다른 5개 이상의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된 결과를 평균하여 적용하였다. 참고로, 석등의 간주석과 상대석이 일체형으로 조성된 관계로 분석 결과를 하나의 단위체로 보고하였다.

4) 단파장 적외선(SWIR) 분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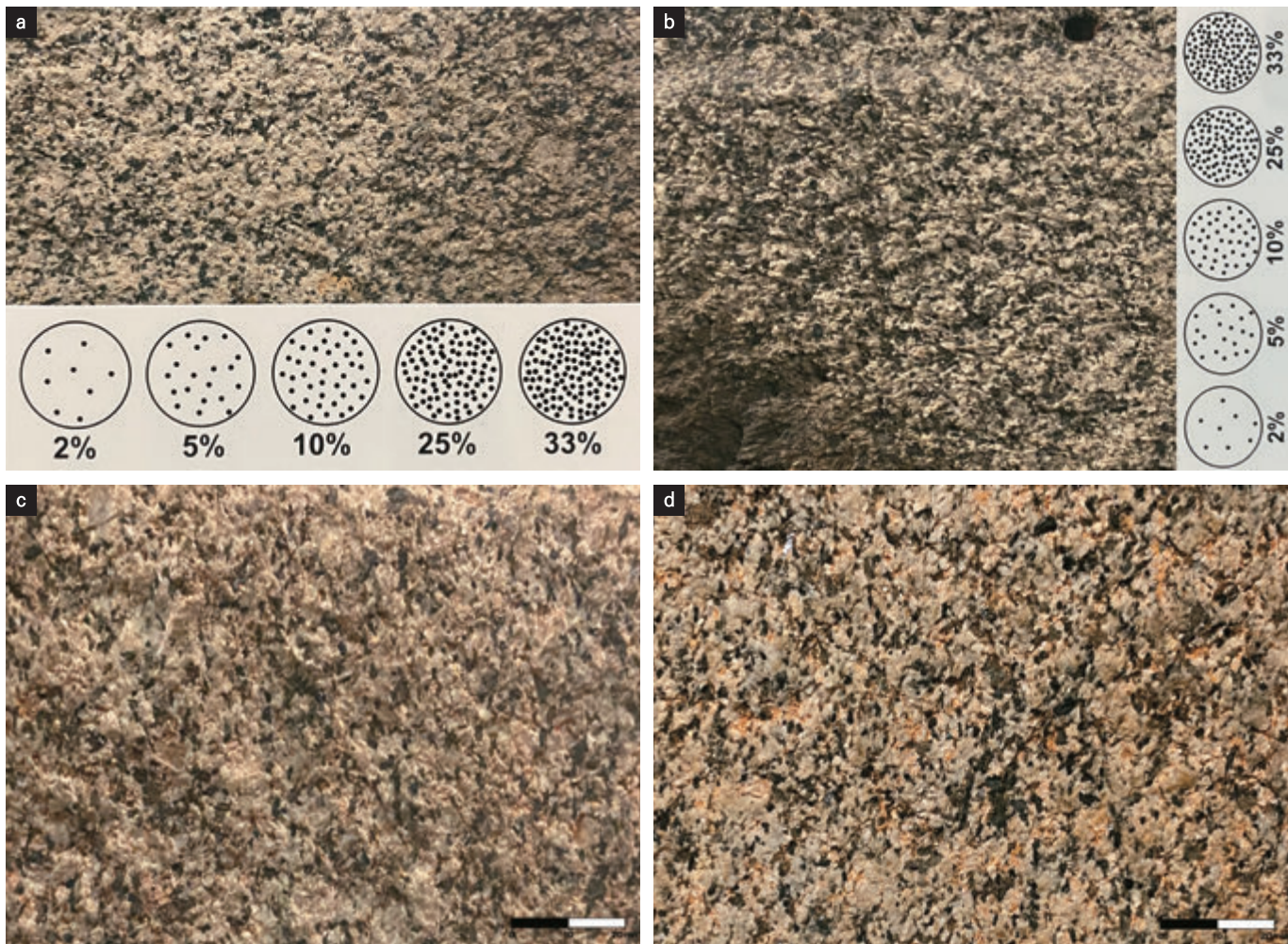
단파장 적외선 분광분석으로 일차 함수규산염 광물상 및 이차 풍화광물상의 존재 유무를 검토하였다. 분석기기는 ASD사의 TerraSpec 4 Hi-Res Mineral Spectrometer(이하 TerraSpec-4)이며, 분석영역의 범위는 직경 약 2cm 정도이다. 해당 분광분석법은 박편 제작 및 암석 분쇄 등 파괴가 수반되는 전처리 과정 없이

현장에서 초당 10개의 스펙트럼 획득이 가능한 분석 방법으로 단파장 적외선 영역(1,300~2,500nm)에서 36nm의 분광해상도를 갖는 다목적 분광분석기이다. XRF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성암의 입도 및 암석조직 특성에 따른 불균질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석등의 동일 부위에서 서로 다른 10개 이상의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된 결과를 평균하여 적용하였다.

3. 분석 결과

1) 암상 유형 및 산상

석등은 육안 관찰에서 확인된 부위별 암석 기재적 특성이 일정하므로 단일 종류의 화성암류 부재를 사



도 47. 석등의 구성광물 입도 및 암상 조직

[㉔ 하대석과 ㉕ 화사석은 회백색-유백색을 띠며, 유색광물의 색지수가 약 10~35%인 섬장암. ㉖ 옥개석은 석영, 사장석, 정장석, 각섬석, 운모류로 구성되고, 구성광물의 입도가 전반적으로 1~5 mm의 중립질 결정으로 입상 조직을 보이는 섬장암. ㉗ 옥개석은 이차 풍화광물에 해당하는 자로사이트(Jarosite)가 얇은 황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관찰됨.]

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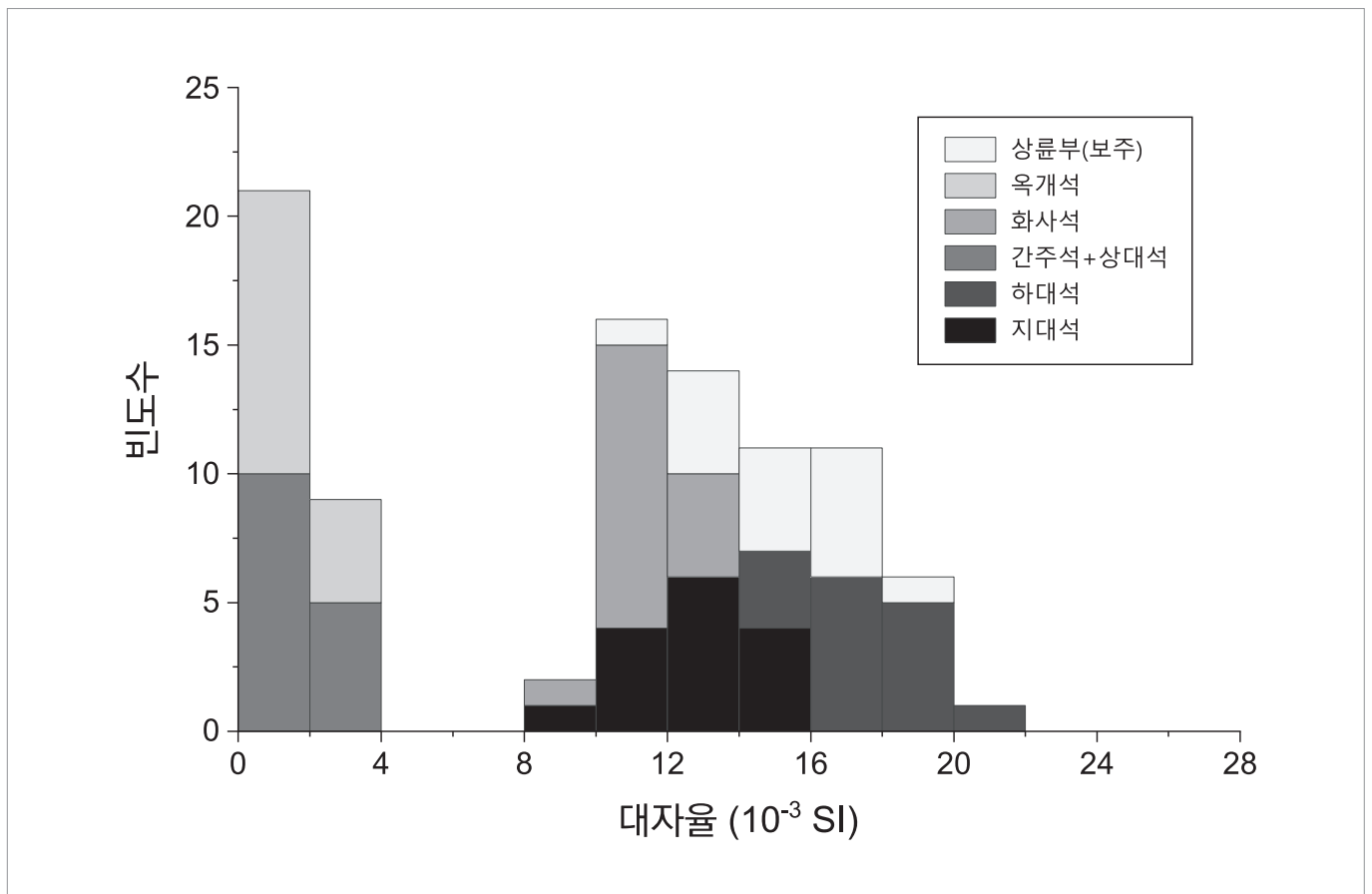
색상은 대체로 회백색에서 유백색을 띠고, 풍화 광물에 의한 얼은 황색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구성광물의 입도와 암상 조직은 전반적으로 15mm의 중립질 결정으로 구성된 입상 조직을 보인다. 주 구성광물(부피 %)은 석영 1520, 사장석 2540, 정장석 1020, 각섬석 1015, 운모류 510로 구성되며, 사장석은 백색, 정장석은 얼은 분홍색을 띤다. 유색광물 색지수는 약 1035 범위로 현저한 변화양상을 보인다.

2) 전암 대자율

전암 대자율은 티탄철석 계열과 자철석 계열로 분류되는 화강암류 암석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분석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Jin et al., 2001). 화강암을 대상으로 측정한 대자율 값은 실질적으로 자철석 함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은 대자율 값은 자철석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낮은 대자율 값은 자철석이 적거

나 주로 티탄철석이 존재함을 지시한다. 이는 나아가 해당 암석의 산화·환원 상태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암석학 및 광상학적 측면에서도 의미성을 지니게 된다.

석등의 부위별 전암 대자율 측정 결과에서는 두 그룹으로 분리된 분포 특성이 확인되었다.도 48 지대석과 하대석, 화사석, 그리고 상륜부 그룹에서는 최소 8.9×10^{-3} SI, 최대 20.3×10^{-3} SI, 평균 $14.1 \pm 2.5 \times 10^{-3}$ SI의 비교적 높은 전암 대자율이 나타났고, 간주석과 상대석, 그리고 옥개석으로부터는 최소 0.7×10^{-3} SI, 최대 3.2×10^{-3} SI, 평균 $1.6 \pm 0.6 \times 10^{-3}$ SI의 상대적으로 낮은 대자율 값이 측정되었다. 전반적으로 약 10×10^{-3} SI에 근접하는 높은 전체 평균 대자율 값은 석등의 부재로 사용된 암석이 백악기 불국사 화강암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광양 주변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백악기 불국사 화강암의 산지와도 서로 일치한다. 다만, 대자율의 분포가 두 그룹으로 나뉘는 사실은



도 48. 석등 부재에 대한 대자율 분포

	지대석	하대석	간주석+상대석	화사석	옥개석
MgO	2.24±0.36	2.30±0.23	1.88±0.44	2.10±0.21	1.91±0.30
Al ₂ O ₃	11.71±0.47	12.15±0.63	12.56±1.41	12.89±0.87	12.53±0.86
SiO ₂	51.03±3.14	52.83±2.64	51.91±1.30	54.12±1.94	54.30±2.55
P ₂ O ₅	0.15±0.03	0.15±0.05	0.28±0.06	0.40±0.18	0.11±0.01
SO ₃	1.31±0.40	1.93±0.72	1.86±1.10	0.92±0.23	1.44±0.30
K ₂ O	2.05±0.11	1.97±0.51	2.03±0.15	2.11±0.39	1.90±0.22
CaO	4.14±0.25	4.20±0.22	4.17±0.33	4.21±0.15	4.05±0.16
TiO ₂	0.64±0.11	0.61±0.08	0.57±0.16	0.54±0.14	0.62±0.06
MnO	0.06±0.01	0.06±0.01	0.07±0.02	0.05±0.01	0.05±0.01
FeO	4.76±0.19	4.48±0.35	4.43±0.84	4.48±0.86	4.65±0.72
BaO	0.09±0.01	0.09±0.01	0.09±0.01	0.09±0.01	0.10±0.02
LEO*	20.20±3.32	17.68±1.98	18.73±2.65	16.77±2.58	16.64±3.39
TOTAL	98.39	98.49	98.60	98.68	98.33

* LEO = 원소기호 11번(Na) 이하에 해당하는 원소 산화물의 총 질량비
화학적 조성의 오차범위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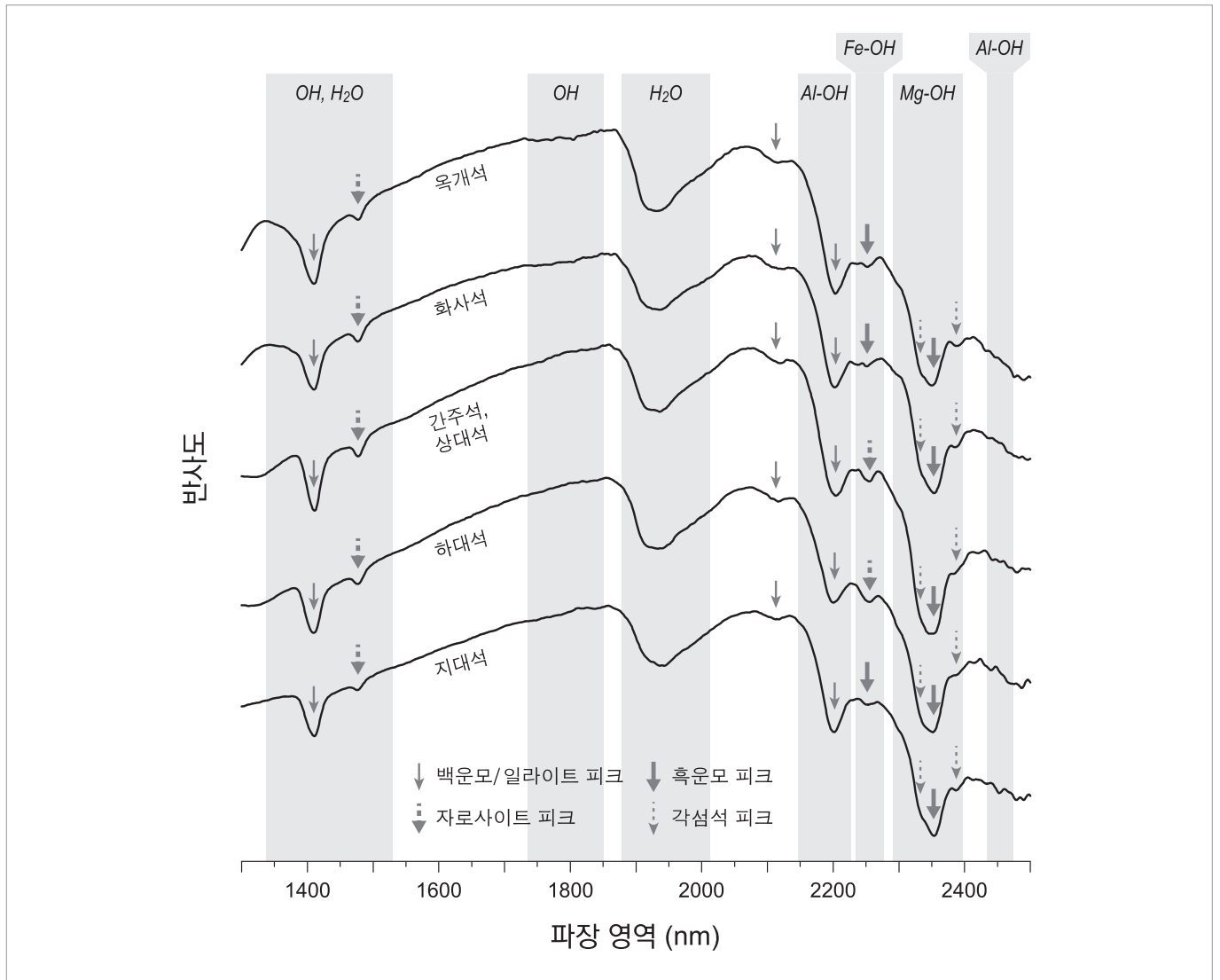
육안 암상 관찰 결과와 후술할 전암 화학조성, 단파장 분광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근거로 했을 때, 동일 암종 분포지역 내에서 정확한 채석지점이 다소 상이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3) 전암 화학조성

전암 화학조성을 근거로 암석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고, 특정 화학조성을 통해 미량으로 존재하는 광물의 종류를 예상할 수 있다. 표준시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검량선에서는 모든 분석 대상 원소로부터 측정값과 보정값 사이에서 0.9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이는 전암 화학조성 분석 결과의 높은 신뢰도로 이어진다.

육안 관찰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석등의 부위별 전암 화학조성이 대동소이한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

한 사실은 단일 종류의 부재를 사용하여 석등을 조성했음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근거이다. 해당 부재의 SiO₂, K₂O 함량(중량비, wt. %) 보정 평균치는 51.03-54.30, 1.90-2.11 범위이다. 대부분이 Na₂O 성분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원소 산화물(light elements oxides, LEO)의 함량 범위가 16.64-20.20 임을 고려했을 때, 석등의 부재로 사용된 암석은 화강암 대비 SiO₂의 함량이 낮고 알칼리 성분(Na₂O+K₂O)의 함량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섬장암류(syenites)에 해당한다. 섬장암은 일반적으로 화강암 대비 석영이 적지만 장석 함량이 높고 각섬석과 일부 휘석, 흑운모로 구성된 조립질의 관입 화성암이다. 섬장암은 결정 구조 내에 OH 작용기가 존재하는 일부 함수 광물(각섬석과 운모류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광물 내 포함된 물(H₂O)의 함량만큼 화학조성의 총합이 100으로부터 낮아진 값을 가진다. 따라



도 49. SWIR 분석결과

서 석등 부위별 화학조성의 총합이 98.33~98.68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오히려 정량분석의 결과가 정확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약 2% 이하 함량의 SO_3 성분은 황철석 또는 황철석의 화학적 풍화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풍화 광물의 존재를 지시하며, 육안 관찰에서 확인된 열은 황색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4) 단파장 분광 스펙트럼

단파장 적외선 파장 영역(1,300~2,500nm)은 OH 작용기를 가지는 함수 광물의 확인에 특징점을 가진다. 따라서, 암석 내 분포하는 무수 광물의 경우 실존은 하지만 단파장 적외선 스펙트럼에서는 그 여부가 확

인되지 않거나 신호(반사도)가 미약할 수 있다. 반면 미량의 함수 광물은 함량이 적더라도 존재 여부의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 방법론에 따른 차별적 특성에 따라 석등 부재에 포함된 다양한 함수 광물의 존재를 단파장 분광 스펙트럼을 통해 좀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

석등 부재로부터 측정된 단파장 분광 스펙트럼에서 백운모/일라이트, 흑운모, 각섬석, 그리고 자로사이트의 흡수피크를 확인하였다. 흡수피크의 패턴이 석등 부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석등 축조에 단일 부재를 이용했다는 기존의 해석을 뒷받침한다. 백운모는 1,410nm와 2,200nm 부근에서 특징적

인 단일 흡수피크가 확인되었고(Cloutier et al., 2021), 2,114nm에서 소규모의 흡수피크가 관찰된다(AusSpec International Ltd., 2008). 1,925nm 부근의 수분 흡수피크 특성을 근거로 백운모와 일라이트를 구분하는 시도는 있으나(AusSpec International Ltd., 2008) 시료 상태에 따라 수분 함유도가 다양할 수 있고(김창성 외, 2017), 백운모와 일라이트(혹은 견운모)의 화학조성 및 광물 구조적 유사성으로 인해 단파장 적외선 영역에서 물리적인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백운모와 일라이트를 동일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흑운모는 백운모와 달리 자연적으로 짙은 흑색을 띠고 있어 반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Mg 성분에 의한 2,350nm의 흡수피크와 Fe 성분에 의한 2,250nm의 흡수피크를 통해 흑운모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흑운모와 유사하게 Mg 성분이 포함된 함수 광물에 해당하는 각섬석의 경우, 2,330nm과 2,385nm, 그리고 2,298nm에서의 흡수피크가 인지되었다(Kamau et al., 2020). 특징적으로 1,478nm의 뚜렷한 흡수피크와 2,249nm에서의 소규모 흡수피크를 통해 자로사이트($[\text{Na,K}]\text{Fe}_3[\text{OH}]_6[\text{SO}_4]_2$)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Brown et al., 2004; Velasco et al., 2005), 이는 원암 내 존재하는 황철석(FeS_2)이 화학적 풍화 과정을 겪었음을 의미한다.

4. 결론

1.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에 사용된 부재에 대한 암석 분류는 육안으로 산상과 광물상에 대한 일차 분류, 그리고 비파괴 기기분석을 통한 전암 대자율, 화학조성 및 광물상 측정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2. 휴대용 X-선 형광 분광분석기의 장점인 휴대성과 표준시료를 이용한 검량선에 근거한 정량분석의 장점을 접목하여 비파괴 정량 화학조성 분석을 수행하였고, SiO_2 함량과 K_2O 를 포함한 알칼리 성분에 따라 석등의 부재로 사용된 암석을 섬장암류(syenites)로 분류하였다.

3. 섬장암은 일반적으로 화강암 대비 석영이 적지만 장석 함량이 높고 각섬석과 일부 휘석, 흑운모로 구성된 조립질의 관입 화성암으로서, 육안 관찰 및 단파장 적외선 분광분석에서 확인된 광물상 조합과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4. 단파장 적외선 분광분석에서 특징적으로 황산염 광물에 해당하는 자로사이트의 흡수피크를 확인하였고, 이는 원암 내 황철석이 화학적 풍화 과정을 겪었음을 지시한다.

5. 자로사이트의 존재는 암석의 산지 추정에 있어 핵심적 요소에 해당하며 추후 야외조사 시에 그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 육안 관찰, 정량 화학조성 및 단파장 적외선 분석 결과, 석등의 부위별 광물 및 암석학적 특성이 유사했으며, 이는 석등 축조에 사용된 부재가 단일 종류임을 지시한다.

7. 전암 대자율 측정 결과, 두 그룹으로 분리된 분포 특성을 보였고, 이는 석등 축조에 사용된 부재가 단일 종류이지만 정확한 채석 지점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지시한다.

8. 표준시료를 이용한 휴대용 X-선 형광 분광 분석법과 단파장 적외선 분광분석법의 조합은 시료를 파괴하지 않고 정량 화학조성과 미량의 함수 광물 포함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파괴 암석 산지 추정 연구에 강력한 장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 50.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전암 대자울 측정 모습

참고문헌

- 김창성, 김용휘, 최선규, 고광범, 한경수, 「단파장적외선 분광분석법을 이용한 광물동정과 현장적용성」, 『자원환경지질』, 2017, pp. 1-14.
- AusSpec International Ltd., 『Geologically-based spectral analysis guides for mineral exploration(GMEX)』, AusSpec International Ltd., 2008, p. 189.
- Brown, A., Walter, M., Cudahy, T., 「Short-wave infrared reflectance investigation of sites of paleobiological interest: applications for Mars exploration」, 『Astrobiology』, 2004, pp. 359-376.
- Cloutier, J., Piercy, S. J., Huntington, J., 「Mineralogy, mineral chemistry and SWIR spectral reflectance of chlorite and white mica」, 『Minerals』, 2021, pp. 471.
- Jin, M.-S., Lee, Y.S., Ishihara, S., 「Granitoids and Their Magnetic Susceptibility in South Korea」, 『Resource Geology』, 2001, pp. 189-203.
- Kamau, M., Hecker, C., Lievens, C., 「Use of Short-Wave Infrared Reflectance (SWIR) Spectroscopy to Characterize Hydrothermal alteration minerals in Olkari a Geothermal System」, 『In Proceedings, 45th Workshop on Geothermal Reservoir Engineering. Kenya』, 2020, pp. 1-15.
- Velasco, F., Alvaro, A., Suarez, S., Herrero, J. M., Yusta, I., 「Mapping Fe-bearing hydrated sulphate minerals with short wave infrared (SWIR) spectral analysis at San Miguel mine environment, Iberian Pyrite Belt (SW Spain)」, 『Journal of Geochemical Exploration』, 2005, pp. 45-72.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해체복원 전·후 형상 변화 분석

조영훈, 홍성혁 국립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1. 서언

문화유산은 제작 이후 오랜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원상 또는 원형의 변화를 겪는다. 특히 적극적 보존이 필요할 경우 해체, 이동, 복원, 수리, 보수 등의 인위적 조치를 한다(위광철, 오승준, 정제원 2017; 권희홍, 차순민, 신정아, 한예빈, 김영목 2023). 연구대상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역시 조성 이후 몇 차례의 이전복원을 겪어왔다. 이 석등은 원래 중흥산성 내에 있었지만, 경복궁으로 옮겨 놓았다. 이후 호남지역 반출 문화재를 다시 찾아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하게 되었다.^{도 51}

당시 복원 과정에서 석등 부재 간 수평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고임 및 충전재를 사용하였으나, 간격이 벌어진 곳이 많고 시각적으로도 불안정해 보여 재복원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도 52} 따라서 국립광주박물관은 최근 상설전시관 리모델링과 함께 석등의 안정성 확보 및 본연의 가치를 부각하는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체 및 이전복원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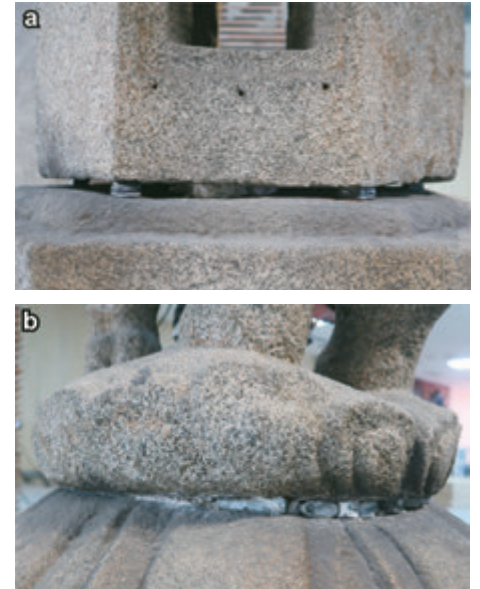
지금까지 해체복원과 같은 보존 개입에 의한 기록은 기재적 방법과 디지털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방법은 간편하고 기술적 장벽이 낮은 장점이 있으나, 해체복원 등 형상 변화가 큰 보존처리 시 정량적이고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3차원(3D) 스캐닝과 같은 기술적 방법이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전·후 형상 변화 분석에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성 이후 몇 차례의 이전복원을 겪은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을 대상으로 해체 전 보존 상태를 기록화하고, 석등의 해체복원 전·후 형상 변화에 대한 수치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레이저스캐닝을 통해 해체복원 전·후 전체 형상을 기록하였고, 해체 후 개별 부재에 대해서는 핸드헬드형 정밀스캐닝으로 3차원 모델을 제작하였다. 또한 지상레이저스캐닝 결과를 기준으로 개별 부재의 가상 재조립을 수행하고, 해체복원 전·후 부재 간 이격 차이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도 51. 해체 전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모습(2020년)



도 52. 해체 전 석등의 고임 및 충전재
[(a) 화사석과 간주석 사이의 고임 (b) 간주석과 하대석 사이의 충전재]

2. 3차원 스캐닝 및 디지털 기록

광주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공간적인 배치 현황뿐만 아니라 단위 부재의 상세 현황을 정밀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체복원 전·후 조립 현황을 파악하고 보존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석등 전체 형상의 시간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해체복원 전·후 각각 지상레이저스캐닝을 수행하였고, 해체된 개별 부재의 정밀한 형상을 기록하기 위해 핸드헬드형 정밀스캐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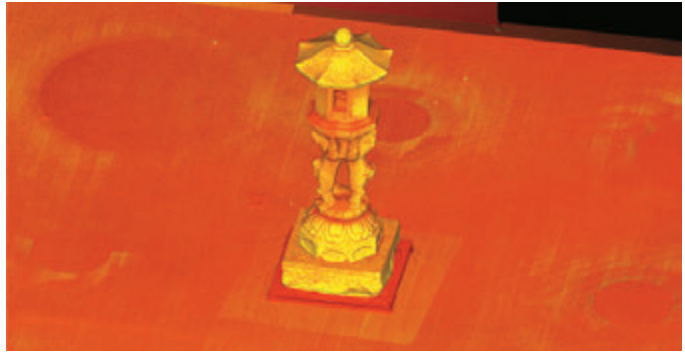
먼저 광대역 범위의 지상레이저스캐너(RTC360, Leica Geosystems)은 조사범위와 중첩도를 고려하여 32 지점에 대해 진행하였고, 스캔의 점밀도는 위치와 스캔 시간을 고려하여 6×6mm/10m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현장에서 취득한 점군데이터는 정렬되지 않은 원시형상 정보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취득한 여러 컷의 원시데이터를 정리하고 하나의 형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 필터링, 정합, 병합, 텍스처매핑의 데이터처리를 통해 최종 3차원 모델을 완성하였다.^{도 53·54} 데이터처리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Leica Geosystems사의 Cyclone 9.3이다.

한편 광대역 범위의 지상레이저스캐닝은 점 간격이 1mm 이상이어서 석등 개별 부재의 정밀한 형상을 모델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석등 개별 부재의 전체적인 형상 정보에 대해서는 핸드헬드형 중정밀스캐너(Eva, Artec3D)을, 상세 문양에 대해서는 핸드헬드형 고정밀스캐너(Spider, Artec3D)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데이터처리(Artec Studio 13, Artec3D)는 지상레이저스캐닝과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쳤으며, 다양한 방식의 스캔데이터를 편집(Geomagic Design X, 3D Systems)하여 형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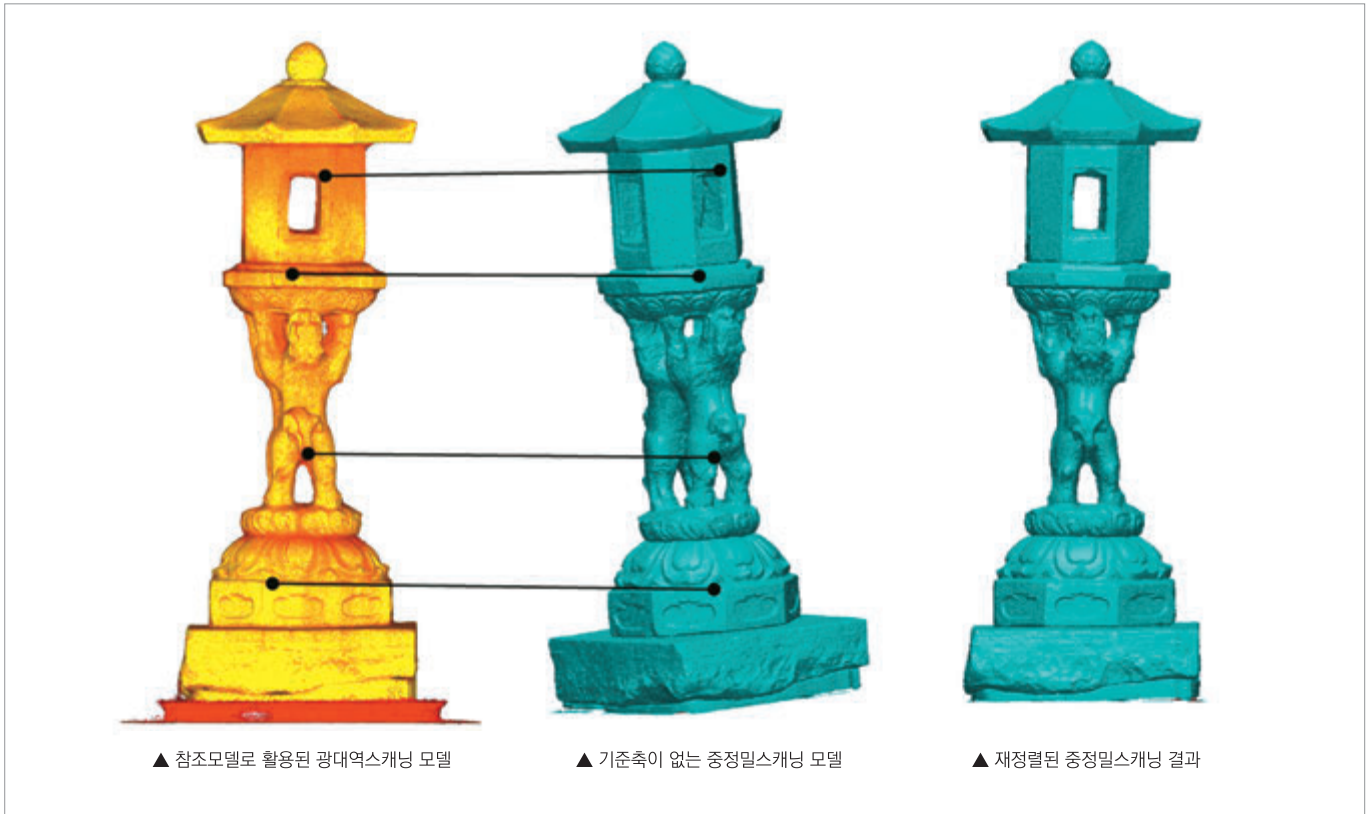
그러나 정밀스캐닝 모델은 상대좌표를 가지고 있어 데이터 처리자에 따라 중심축 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바닥 수평면에 기준축을 맞춘 지상레이저스캐닝 3차원 모델을 참조 데이터로 설정한 후 정밀스캐닝 모델을 정렬하여 절대 기준축을 설정하였다.^{도 55} 완성된 정밀스캐닝 모델은 수백만 개 이상의 고해상도 폴리곤을 가지고 있어 석등 부재의 전체적인 기하 정보뿐만 아니라 표면 질감, 문양 등이 잘 표현되었다.^{도 56} 부재별 점 간격 해상도는 보주 0.31mm, 옥개석 0.30mm, 화사석 0.30mm, 간주석 0.31mm, 하대석 0.30mm, 지대석 0.86mm를 보였다.



도 53. 해체 전 지상레이저스캐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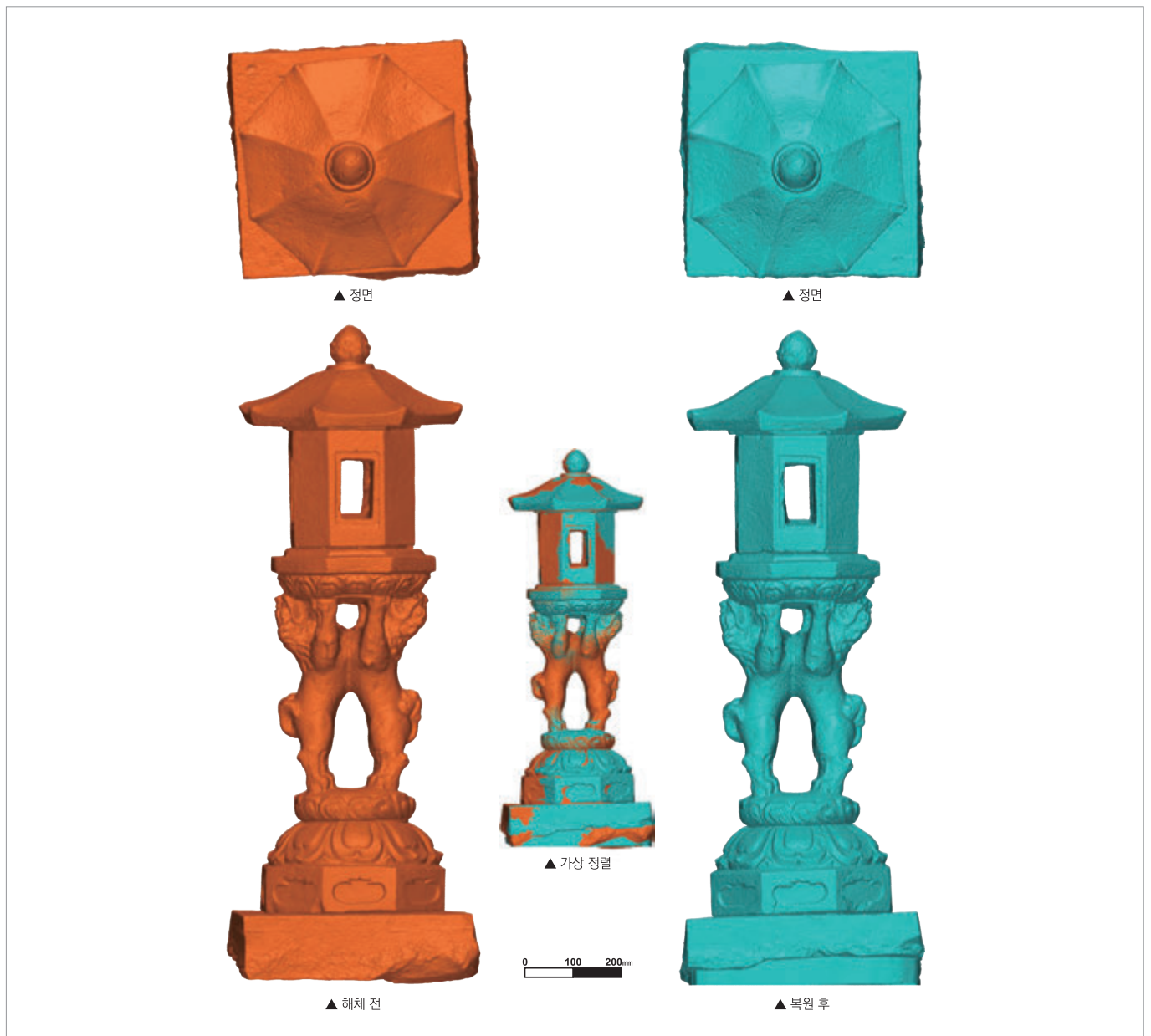
도 54. 이전복원 후 지상레이저스캐닝 결과



도 55. 쌍사자 석등의 기준축 설정 과정



도 56. 쌍사자 석등 하대석의 3차원 폴리곤메시 및 텍스처매핑 모델



도 57. 쌍사자 석등 해체 전과 복원 후의 전체 형상 비교

3. 디지털 가상재조립

최근 3차원 그래픽과 컴퓨터 하드웨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기계, 건축, 치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재조립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건조물 문화유산의 구조안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최희수, 이찬희, 한성희, 이성민 2016). 이 연구에서는 석등의 부재 변위를 파악하고 보존 현황을 기록하기 위해 ICP(iterative closest point)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체복원 전·후 석등 전체 형상 및

개별 부재의 가상재조립을 수행하였다. ICP 알고리즘은 공통지점을 찾아 좌표상의 위치를 맞추는 정렬 방법으로 최소제곱법을 통해 데이터 간 가까운 점들의 연관성을 계산하여 비교 데이터를 이동 및 회전시키는 방법이다.

먼저 복원 석등을 기준으로 해체 전 석등 모델을 정렬하였다. 이를 위해 최소 세 지점 이상 공통점을 찾아 수동으로 정렬하였으며, 이후 전체적으로 자동화된 정렬을 실시하여 모델들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였다.도 57 또한 해체복원 전·후 석등의 부재 변위를 미시

표 3. 쌍사자 석등의 이전복원 후 높이 실측 결과(단위: mm)

구분		정면	좌측면	우측면	배면	평균
높이	좌	2,791	2,876	2,725	2,839	2,808
	우	2,729	2,827	2,840	2,846	2,811
	평균	2,760	2,852	2,783	2,843	2,810



도 58. 가상재조립을 위한 참조 모델과 대상 석부재

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석등 부재 모델을 대상으로 가상 재조립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복원 후 석등을 참조모델로 설정하여 보주, 옥개석, 화사석, 간주석, 하대석, 지대석 총 6개의 부재를 대상으로 가상재조립을 수행하였다.^{도 58} 가상재조립 결과를 통해 부재별 변위와 내부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고, 층위별 부재의 결합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도 59} 이러한 3차원 가상재조립 모델은 정밀실측도면과 손상지도 작성에 활용되었다.

4. 디지털 실측 및 손상지도 작성 결과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전체 입면도를 이용하여 지대석에서 보주까지의 높이를 산출하였다.^{표 3} 먼저 정면은 좌측 2,791mm와 우측 2,729mm로 높이 차는 62mm이고, 평균 높이는 2,760mm를 나타냈다. 좌측면은 좌측 2,876mm와 우측 2,827mm로 49mm의 높이 차이가 있고, 평균 높이는 2,852mm로 산출되었다. 우측면은 좌측 2,725mm와 우측 2,840mm로 115mm의 비교적 큰 높이차를 보였고, 평균 높이는 2,783mm이다. 배면은 좌측 2,839mm와 우측 2,846mm로 큰 차이가 없으



도 59. 석부재의 가상재조립 결과 및 단면

며, 평균 2,843mm로 확인되었다.

광양 중흥산성 석등 각 면의 실측치를 종합하면, 입면별 석등의 전체 높이는 평균 2,725~2,876mm의 범위를 보였다. 평균 높이는 각 입면에서 지대석 높이와 부재의 가공 정도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입면도 중에서 좌측면이 제일 높고, 우측면이 가장 낮으며, 평균 높이는 2,810mm로 산출되었다.

석조문화유산은 한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완전한 복원이 어려우며, 보존처리를 수행하더라도 계속해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손상 과정을 기록하고 가속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상 기재 및 제

어 기술의 일환으로 손상지도 제작이 필수적이다. 이는 석조문화유산 손상에 대한 원인, 과정 및 특성을 기호화하고, 손상 범위를 정밀하게 표면화하여 상태진단 및 보존처리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국내외 석조문화유산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조영훈, 이찬희 2011; 조영훈, 이찬희 2012).

이 연구에서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표면 보존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존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손상유형별로 상세하게 관찰하고 기재하여 손상지도를 작성하였다. 손상유형의 기재와 도면 작성은 육안관찰이 가능한 수 cm 내지 수 m의 범

위로 설정하여 현장에서 직접 표현하였고, 손상유형은 다양한 풍화 및 훼손 특징에 따라 균열, 박락, 탈락으로 세분화였다.

이 중 균열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불연속면으로 산출 상태에 따라 균열로 분류하였다. 박락은 박리가 진전되어 동심원상, 판상 및 층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박락은 일반적으로 석재 표면에서 수 mm에서 수 cm의 비교적 얇은 두께로 존재하므로 구조적인 손상을 야기하지 않는다. 탈락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 불규칙한 면을 가지고 괴상의 형태로 떨어져 나가는 현상으로 주로 구조상 균열에 의해 발생한다.

손상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석등의 도면화 작업이 완료된 정밀 실측도면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손상유형과 범위를 기록하였다. 이때 사진과 도면에 표현되는 손상유형들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재하였다. 육안 관찰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박리검출용 타진도구 등과 같은 간단한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손상유형별 산출 상태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실내에서는 현장에서 기록한 손상도면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신뢰도 높은 손상지도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해 AutoCAD 프로그램에서 각 손상유형별로 도면층을 설정하고, 현장에서 작성한 손상지도와 고해상도 사진을 비교하면서 사진매핑 도면에 손상유형별 범위를 설정하였다. 그런 다음 완성된 범위설정 도면을 Illustrator 프로그램상에서 범례를 삽입하고, 최종 디자인 과정을 거쳐 손상지도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손상지도는 쌍사자 석등의 표면 풍화 및 손상 정도를 도면으로 간편히 볼 수 있게 해주며, 각각의 손상유형을 수치화할 수 있어 정량적 손상도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쌍사자 석등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손상유형을 분석하고, 표면 풍화 상태의 변화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손상의 가속을 제어하고 보존처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록 보존을 위한 디지털 자료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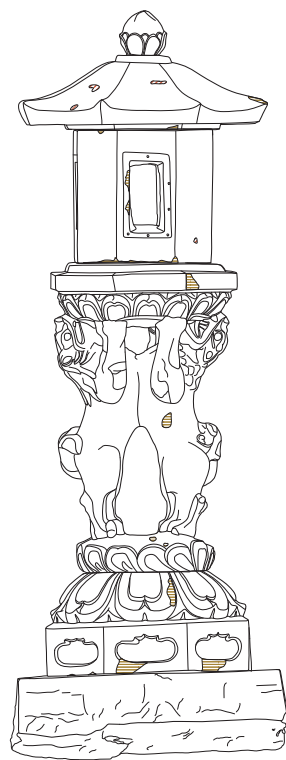
쌍사자 석등의 과학적 보존처리와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손상유형을 특성화하고 점유율을 산출하여 미래에 발생할 손상을 예측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정량적 손상률은 석조문화재의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진단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쌍사자 석등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손상유형과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표면 풍화도의 변화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손상 요인별 점유율을 산출하였다.

먼저 손상지도에 2차원적인 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박리, 박락, 탈락은 개별 부재의 전체면적에서 손상이 발생한 점유 면적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균열은 다른 손상유형과 달리 이차원적인 면으로 존재하지 않고, 일부 지점에서는 매우 복잡적으로 발생하여 단일 개수와 점유 면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영훈과 이찬희(2011)가 제안한 균열지수를 이용하여 정량평가를 수행하였다. 균열지수는 균열의 개수와 길이로 손상도를 평가했던 기존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아래 식과 같이 균열의 길이(mm)를 균열이 발생한 부재의 전체 면적(mm²)으로 나누어 준 다음 전체면적의 제곱근(mm) 성분을 곱하여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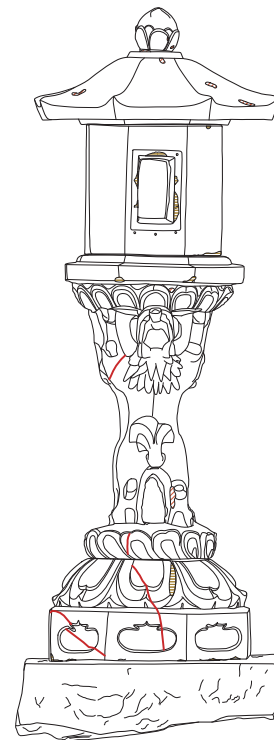
$$Crack\ Index(CI) = \frac{Length\ of\ crack(mm)}{Total\ area\ (mm^2)} \times \sqrt{Total\ area\ (mm^2)}$$

여기서 전체 면적의 제곱근 성분은 모든 형태의 부재를 정방형 부재의 한 변 길이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균열지수는 부재의 형태와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부재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단위 면적당 발생한 균열의 손상 가중치를 반영하고 있어 절대적 정량평가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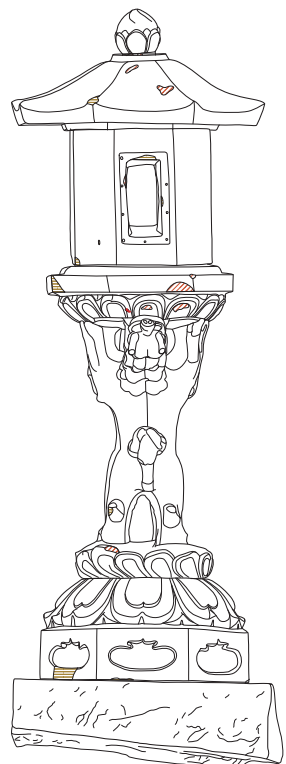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손상지도 제작 및 정량평가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손상유형을 파악하고, 손상도에 대한 변화와 원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각 부재의 손상지도는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순으로 나열하였다. 도 60 전체 부재 중 지대석은 손상유형이 발견되지 않아 비교적 양호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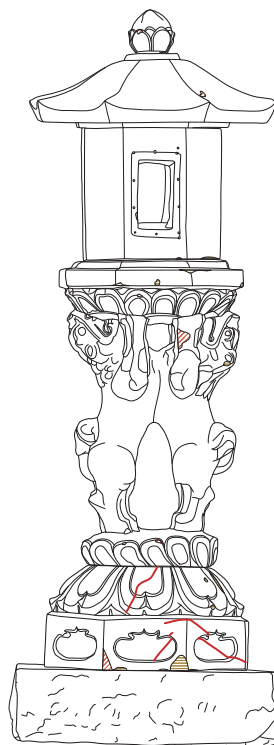
정면



좌측면



우측면



배면

손상 유형	
	균열
	박락
	훼손

도 60. 쌍사자 석등의 손상지도

표 4. 쌍사자 석등 석부재의 정량적 손상도 평가 결과

부재	손상 유형	정면	좌측면	우측면	배면
하대석	균열	길이(mm)	-	-	-
		지수	-	-	-
	박락(%)	-	-	-	-
	탈락(%)	3.6	1.2	1.4	1.6
간주석	균열	길이(mm)	-	81.6	18.7
		지수	-	0.1	0.1
	박락	-	0.4	1.1	0.4
	탈락	0.7	0.2	0.4	0.3
화사석	균열	길이(mm)	-	-	-
		지수	-	-	-
	박락(%)	0.1	-	0.1	-
	탈락(%)	1.5	2.0	0.8	0.3
옥개석	균열	길이(mm)	-	-	-
		지수	-	-	-
	박락(%)	0.8	1.0	1.1	0.2
	탈락(%)	0.7	-	0.5	-
보주	균열	길이(mm)	-	-	-
		지수	-	-	-
	박락(%)	1.8	3.2	3.5	2.2
	탈락(%)	-	-	-	-

존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대석의 경우, 주로 탈락이 관찰되며, 정면(3.6%)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배면(1.6%), 우측면(1.4%), 좌측면(1.2%)에서도 비교적 높은 손상도를 나타냈다.

간주석의 경우, 균열, 박락, 탈락 등 3가지 손상 유형이 관찰되었다. 진행성 손상유형인 균열은 좌측면(균열지수 0.1)과 우측면(균열지수 0.1)에서 확인되었다. 박락은 우측면(1.1%)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탈락은 정면(0.7%)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우측면(0.4%)과 배면(0.3%)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였다.

화사석은 박락과 탈락에 의한 물리적 손상이 확인되며, 박락은 정면(0.1%)과 우측면(0.1%)에서만 관찰될 뿐 다른 방향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탈락은 모든 방향에서 관찰되며, 좌측면(2.0%)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정면(1.5%)에서도 비교적 높은 손상도를 나타냈다.

옥개석은 주로 박락과 탈락에 의한 손상이 관찰되며, 박락은 우측면(1.1%)에서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모든 방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옥개석의 탈락은 정면(0.7%)과 우측면(0.5%)에서만 확인될 뿐 좌측면과 배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보주의 손상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박락에 의한 손상이 나타나며, 우측면(3.5%)에서 가장 높은 손상률을 나타냈다.

이상 쌍사자 석등 석부재의 손상 현황을 종합하면, 석등은 주로 탈락과 박락에 의한 손상이 주요인으로 판단되나, 전체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갖는 것으로 볼 때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특히 진행성 손상유형인 균열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시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간주석에 균열이 미세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잠재적으로 균열의 발생 가능성은 내재해 있다고 판단된다.

5. 해체복원 전·후 3차원 형상 변화 분석

조적식 석조문화유산의 중심축은 부재의 최하단에서 최상단까지 각 부재의 중심점을 잇는 축으로써 구조적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초에서 하부와 중앙부를 거쳐 상부에 이르기까지 부재의 중심축이 일치할수록 구조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심축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각 구성 부재의 풍화 및 손상 등 상태 변화가 발생할 때 중심점이 흐트러지면서 변형된다.

이 연구에서는 조적식 구조를 갖는 석등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체 전과 복원 후의 석등 부재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참조모델로 사용된 간주석을 제외하고 재조립된 3차원 폴리곤 이미지를 단색 이미지로 변환하여 평면상의 중심축 변위량을 시각화하였다. 또한 부재 회전각 및 중심축 변위(변위 방향, 변위각, 변위량)를 산출하였다.^{표 5}

먼저 지대석은 해체 전과 거의 동일한 방향을 가지며, 해체 전에 비해 정면-우측면 방향(134°)으로 6.7mm의 변위량을 보였다. 하대석은 321° 회전되어 조립되었고, 중심축은 우측면 방향(88°)으로 7.3mm 변위차를 나타냈다. 화사석은 176° 회전되어 복원되었으며, 중심축은 정면-우측면 방향(144°)으로 11.9mm의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옥개석은 5° 회전되어 조립되었으며, 중심축은 정면-좌측면 방향(248°)으로 2.8mm의 변위차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보주는 3° 회전되어 복원되었으며, 정면 방향(178°)으로 0.9mm의 중심축 변위를 보였다.^{도 6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해체복원 과정에서 지대석, 옥개석 및 보주는 석부재의 방향이 변하지 않았으나, 하대석과 화사석은 부재 간 수평을 위해 반 바퀴에서 거의 한 바퀴 정도 회전되어 복원되었다. 해체 전과 복원 후 각 부재의 중심축 변위는 화사석(11.9mm)을 제외하고 대부분 10mm 이내로 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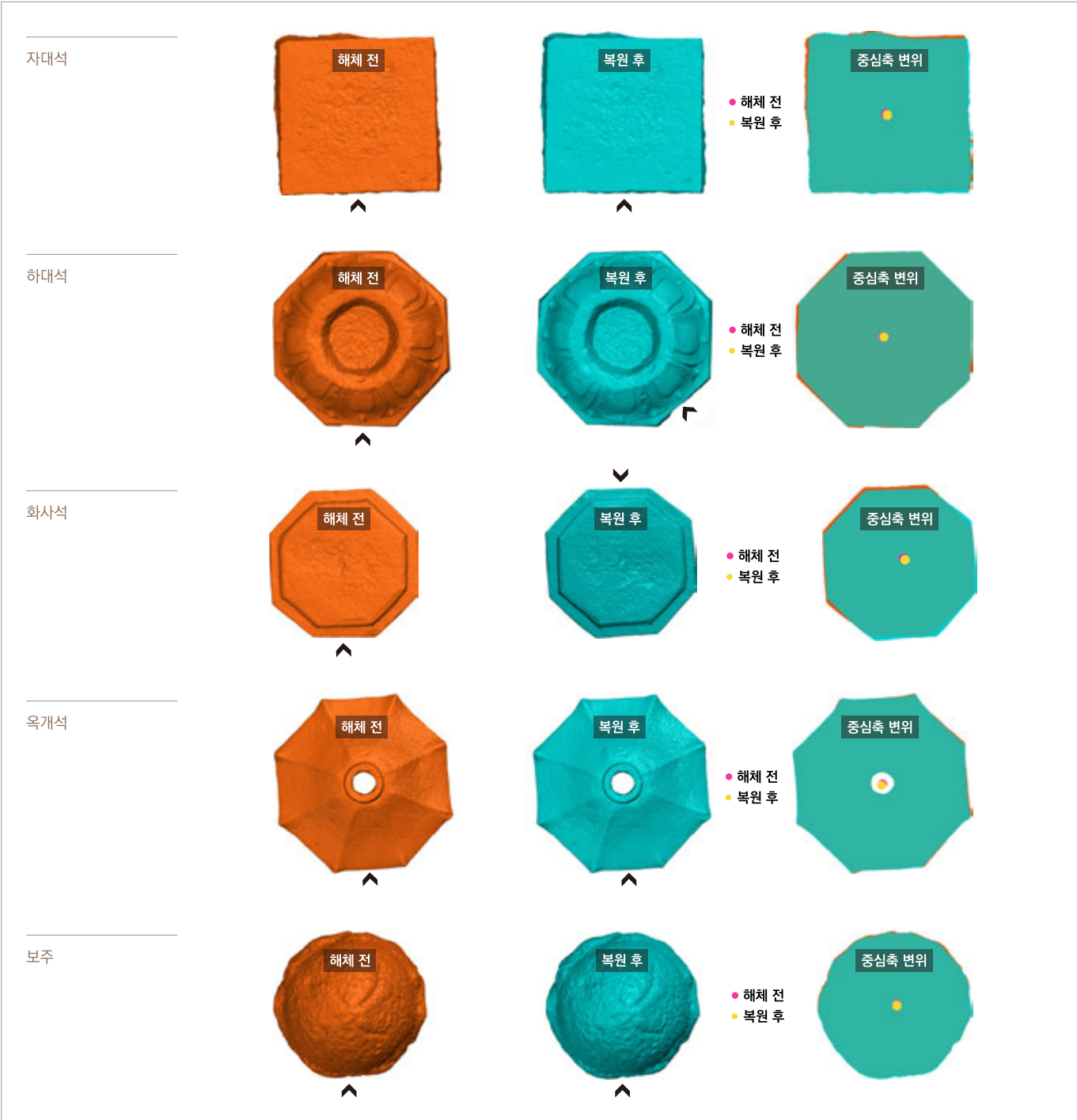
석등의 가상재조립 모델을 이용하여 해체복원 전·후 부재 간 이격 변화를 비교하였다.^{도 62} 이격 거리 측정은 가상재조립 1:1 모델의 캡처 이미지를 이용하였

으며, 해체 전 석등을 기준으로 방향별 이격이 심한 화사석-간주석, 간주석-하대석 사이 임의의 4개소를 선정하였다.^{도 63} 해체 전 석등의 이격 측정 결과, 전체적으로 9.8~22.8mm의 범위에서 정면 간주석-하대석(3번과 4번 지점)이 20mm 이상의 큰 이격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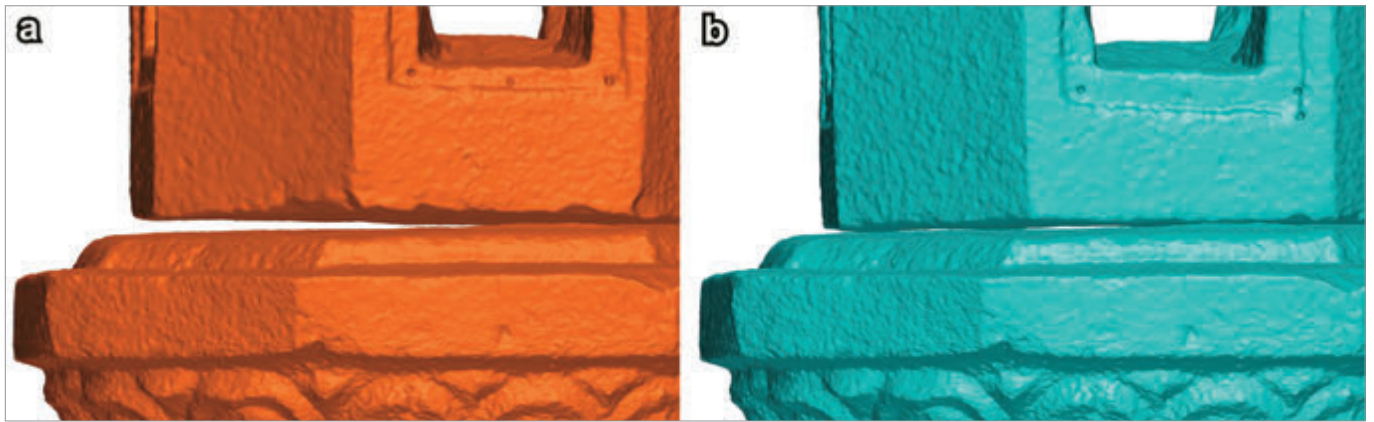
이에 반해 복원 후 석등은 0.9~9.4mm 범위로, 해체 전보다 상당히 큰 수치만큼 이격이 감소하였다.^{표 6} 특히 방향별 감소한 이격 변위량은 정면 14.1mm, 좌측면 9.2mm, 우측면 8.5mm, 배면 10.7mm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복원 후 부재 간 이격 감소는 석등의 전체 높이에 영향을 주었으며, 전체 석등의 높이는 해체 전 평균 2,811mm였으나, 복원 후에는 평균 2,807mm로 4mm의 수치만큼 감소하였다.

표 5. 쌍사자 석등 석부재의 해체복원 전·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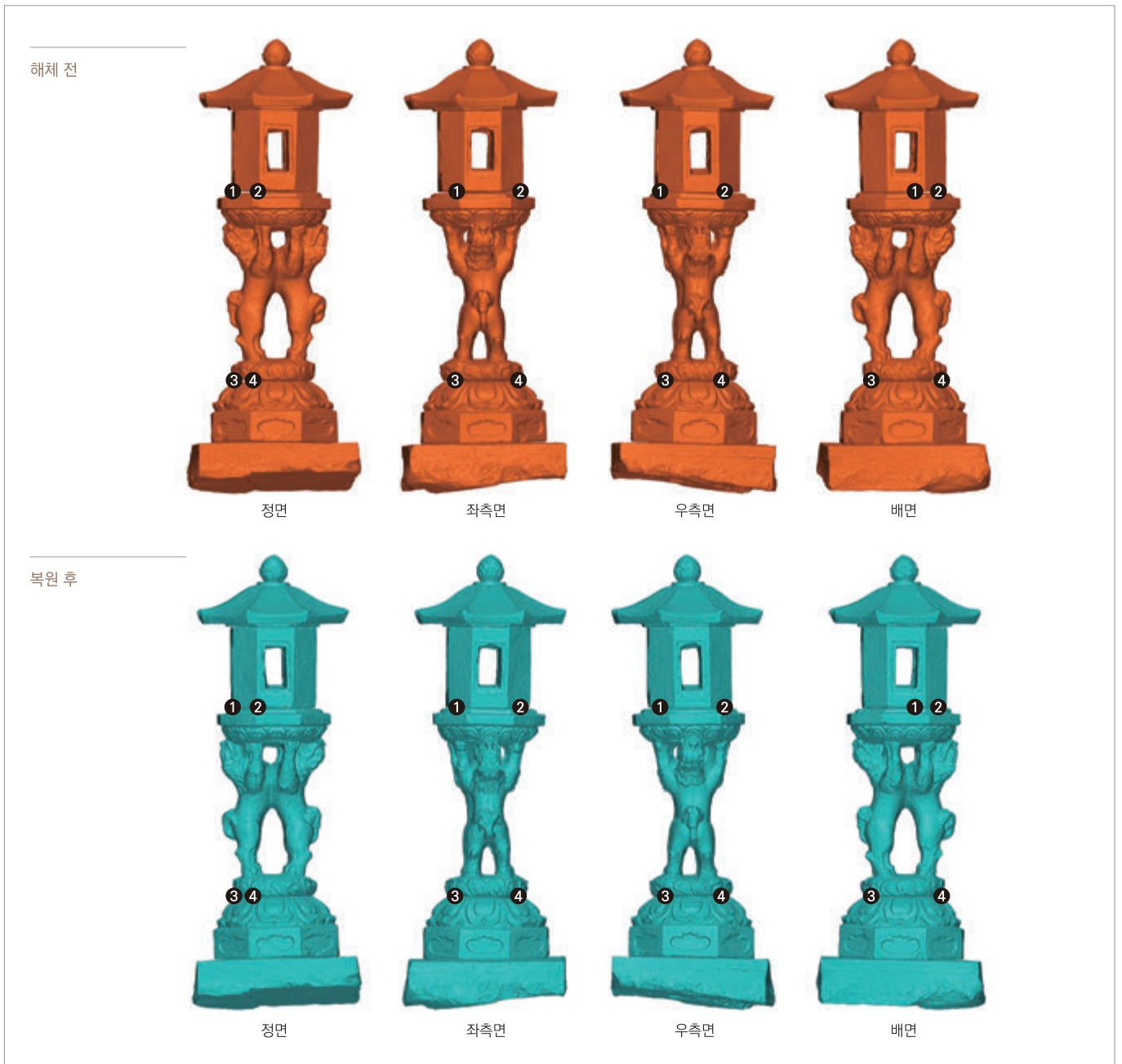
부재	부재 회전각(°)	중심축 변위		
		변위 방향	변위각(°)	변위량(mm)
지대석	2°	정면-우측면	134°	6.7
하대석	321°	우측면	88°	7.3
화사석	176°	정면-우측면	144°	11.9
옥개석	5°	정면-좌측면	248°	2.8
보주	3°	정면	178°	0.9



도 61. 해체복원 전·후 석부재의 회전각 및 중심축 변위량 시각화 결과



도 62. 해체복원 전·후 이격 변화를 보여주는 배면 화사석과 간주석 사이 [(a) 해체 전 (b) 복원 후]



도 63. 석등의 이격 측정 지점

표 6. 석등의 해체복원 전·후 부재 간 이격 측정 결과(단위: mm)

방 향		화사석-간주석		간주석-하대석		평 균
		1	2	3	4	
정면	해체 전	12.9	17.8	22.8	20.1	18.4
	복원 후	3.6	3.9	5.9	4.0	4.4
	변위 차	9.3	13.9	16.9	16.1	14.1
좌측면	해체 전	9.8	11.4	17.8	20.9	15.0
	복원 후	1.3	8.5	7.6	5.9	5.8
	변위 차	8.5	2.9	10.2	15.0	9.2
우측면	해체 전	11.1	10.2	18.3	17.8	14.4
	복원 후	9.4	1.3	5.1	7.8	5.9
	변위 차	1.7	8.9	13.2	10.0	8.5
배면	해체 전	16.5	15.7	13.0	13.3	14.6
	복원 후	9.2	1.3	0.9	4.2	3.9
	변위 차	7.3	14.4	12.1	9.1	10.7

6. 맺음말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시기에 제작된 석등으로 간주석에 사자를 배치함으로써 독창적인 조형성을 보인다. 쌍사자 석등은 중흥산성 내에 있었으나, 일본인이 무단으로 반출하려 하여 경복궁으로 옮겨 놓았다가 호남지역의 반출 문화재를 다시 찾아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하게 되었다. 복원 당시 석등 부재 간 수평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고임 및 충전재를 사용하여 간격이 벌어진 곳이 많아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최근 상설전시관 리모델링과 함께 석등의 안정성 확보 및 본연의 가치를 부각하는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체 및 이전복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체복원 전·후 석등의 형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3차원 스캐닝을 통한 디지털 기록화를 수행하였다. 먼저 석등 전체 외관은 지상 레이저스캐닝으로 기록하였고, 석등 부재에 대해서는 핸드헬드형 정밀스캐닝으로 고해상도의 3차원 모델을 구축하였다. 완성된 스캐닝 결과는 가상재조립 및 실측도면 작성과 보존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해체복원 전·후의 부재 변위를 파악하고 석등의 보존 현황을 기록하기 위해 간주석 모델을 기준으로

해체 전 석등 모델과 석부재를 대상으로 가상재조립을 수행하였다. 복원 후 가상재조립된 석부재 모델의 방향별 폴리곤메시 및 텍스처매핑 이미지를 통해 실측도면을 작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손상지도를 제작하였다. 손상지도 작성 결과, 균열, 박락, 탈락의 3가지 손상 유형이 확인되나, 전체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여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진행성 손상유형인 균열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시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간주석에 균열이 존재하므로 균열 발생 가능성은 내재해 있다.

한편 가상재조립 모델을 통해 해체복원 전·후 형상 변화를 분석하였다. 간주석을 기준으로 각 부재들의 평면적 변위 특징을 분석한 결과, 보주(3°), 옥개석(5°), 지대석(2°)은 매우 미약하게 회전하여 재조립되었으나, 화사석과 하대석은 각각 176°와 321°만큼 회전되어 복원되었다.

또한 석등의 해체복원 전·후 부재 간 이격 변화를 비교한 결과, 복원 후 석등(0.9~9.4mm)은 해체 전(9.8~22.8mm)에 비해 상당히 큰 수치만큼 감소하였다. 특히 방향별 감소한 이격 변위량은 정면 14.1mm, 좌측면 9.2mm, 우측면 8.5mm, 배면 10.7mm로 산출되었다. 이는 석등의 전체 높이에 영향을 주어 복원 후 전체 높

이는 해체 전에 비해 4mm 감소하였다.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해체복원에 있어 가장 큰 의의는 해체 전 부재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었던 고임을 복원 과정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중심축의 변위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접합면 일치도가 중요한 조적식 구조물의 특징을 고려할 때 석등 부재가 원형 또는 원상을 회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원 성과는 향후 유사 석조문화유산의 재복원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권희홍, 차순민, 신정아, 한예빈, 김영목, 「근현대 야외 청동 조형물의 보존 연구」, 『보존과학회지』39, 2023, pp.320-337.
- 위광철, 오승준, 정제원, 「충청남도 발굴유구 보존현황 및 보존방안 연구」, 『보존과학회지』33, 2017, pp.541-552.
- 조영훈, 이찬희, 「석조문화유산의 손상지도 제작방법과 표면 및 3차원 손상을 평가기법」, 『보존과학회지』27, 2011, pp.251-260.
- _____, 「석조문화유산의 형상분석을 위한 3차원 디지털복원과 표면심도 모델링: 해운대 석각을 중심으로」, 『보존과학회지』28, 2012, pp.87-94.
- 최희수, 이찬희, 한성희, 이성민, 「3차원 영상분석을 활용한 석탑의 해체와 재조립: 심곡사칠층八角석탑 사례 연구」, 『보존과학회지』32, 2016, pp.561-570.

V. 맺음말

CONCLUSION



V. 맺음말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중흥산성 내 폐사지에 삼층석탑과 함께 조성되어 있던 석조물이다.

일제강점기인 1932년 2월 10일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왔고, 1990년 8월부터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3차원 스캐닝 자료를 바탕으로 석등 부재의 가상재조립을 수행하여 접합면 일치도를 높임과 동시에 중심축을 정교하게 맞추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번 보고서는 쌍사자 석등의 향후 관리·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석등이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소장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였고, 석등의 구조와 양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과학적 분석 결과도 수록하였다.

쌍사자 석등이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소장된 배경은 당시 지역 내 여러 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엮볼 수 있다. 1930년 8월, 광양의 옥룡보통학교 후원회는 기본금 조성을 위해 석등의 매매를 계획하였으나 광양군으로부터 매매가 불가하다는 지시를 받았다. 1931년 4월, 석등이 위치한 산림의 소유주인 이재영은 대구의 오구라 다케노스케에게 산림을 매각하였다. 오구라는 산림 내 석탑과 석등을 대구로 옮기기 위한 운반 작업에 착수하였고, 먼저 석등을 운반하던 도중 옥룡면사무소 근처에서 외지 반출에 반대하는 면민과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후 석등 부재는 면사무소 부근 길가에 계속

방치되어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석등과 석탑이 일본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고적보존규칙에 따라 등록하였다. 같은 해 8월, 조선총독부는 석등을 원위치로 운반하는 것이 어렵고, 현 상태대로 방치하면 파괴될 위험이 있어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 1932년 1월, 조선총독부는 쌍사자 석등의 운반에 착수하여 2월에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수장하였다.

쌍사자 석등은 보주, 옥개석, 화사석, 상대석과 간주석, 하대석, 지대석 등 모두 6개의 부재로 조성되었다. 전체 부재를 결합하였을 때 지대석 하부에서 보주까지의 최대 높이는 287cm이며, 최대 너비는 100.1cm이다. 옥개석 상면에 꽃히는 보주는 중간 높이까지 8매의 연꽃잎을 새겼다. 옥개석은 평면이 팔각형이며, 낙수면은 비교적 급격한 경사를 이루다 2/3 지점에서 위로 반전되어 날렵하게 표현되었다. 화사석은 평면이 팔각형이며, 팔면 중 한 칸씩 건너 사면에 화창을 마련하였다. 상대석은 간주석과 한 돌로 만들어졌는데, 위로 향한 양련 형태이며 평면이 팔각형이다. 간주석은 받침석과 사자상으로 구성되었다. 사자의 발을 받치는 받침석은 평면이 원형이며, 복자엽이 표현된 양련을 새겼다. 두 마리의 사자상은 가슴을 맞대고 뒷발을 딛고 얼굴을 치켜들어, 앞발과 얼굴 전체로 상대석을 받치고 있다. 두 사자의 표현이 서로 대비를 이루는 점에서 암·수 한 쌍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대석은

팔각의 하대하석과 복련형 하대상석을 한 돌로 조각하였다. 지대석은 평면이 방형이며, 상면이 매끈하게 다듬어진 것에 비하여 하면은 거칠게 마무리되었다.

쌍사자 석등의 광물 및 암석학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 비파괴 분석 결과, 석등의 부재로 사용된 암석은 섬장암류로 분류되었다. 또한 석등 축조에 사용된 부재가 단일 종류이지만 부재별 채석 지점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 추가로 쌍사자 석등의 3차원 스캐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손상지도를 제작하였다. 석등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간주석에 균열이 존재하여 향후 추가 균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분석 및 복원 성과는 향후 유사 석조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복원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앞으로도 지역 내 문화유산의 역사적인 의미를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가고자 한다.

논고

ARTICLE

- 신라 중·하대 호남지역 불교미술과 석등

진정환

신라 중·하대 호남지역 불교미술과 석등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1. 머리말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에 있는 중흥산성 내 폐사지에 있던 석등이다. 이 석등은 현지에 있는 삼층석탑과 한 쌍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고적 조사에 참여했던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의 사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4). 이 석등은 1932~1933년 사이 조선총독부 박물관 본관 앞뜰로 이전되면서 원위치를 떠났으며, 1990년이 되어서야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이전되었다(황호균 2022).

석등의 한 부재인 간주석을 사자상으로 대체한 석등은 광양 중흥산성 이외에도 보는 법주사(法住寺), 합천 영암사지(靈岩寺址), 여주 고달사지(高達寺址), 양주 회암사지(檜巖寺址), 충주 청룡사(靑龍寺) 등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중흥산성, 법주사, 영암사지, 고달사 석등은 두 마리의 사자가 있는 소위 쌍사자 석등이다. 그 가운데서도 중흥산성·법주사·영암사지 석등은 두 마리의 사자가 하대석에 뒷다리를 딛고 앞다리로 상대석을 받치고 있는 쌍사자 석등이다.

쌍사자 석등은 석조물로서 균제미는 물론 조상(彫像)으로서 조형미까지 빼어나 일반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쌍사자 석등 관련 연구는 오랫동안 신라 하대 석조미술 또는 석등 연구 시 일부로 다루어지거나

개략적인 소개만 있었을 뿐이다(朴敬源 1961; 杉山信三 1986; 鄭明鎬 1994; 朴慶植 1994; 엄기표 2012). 그나마 다행히도 국가기관이 석등의 기초자료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개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고 도상의 교리적 근거를 밝히려는 시도도 있었다(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李蘭英 2002; 金娜然 2018). 그러나 쌍사자 석등의 기원과 전개 양상의 전모가 밝혀졌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고찰은 쌍사자 석등 연구의 초석을 쌓는 차원에서, 조형미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특징 및 편년, 조성배경과 다른 석등에 끼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라 중·하대 불교계의 동향과 함께 불상과 불탑을 중심으로 시기별 불교미술의 양상을 개괄해보겠다. 이어서 신라 중·하대 호남지역 불교미술의 특성을 조명하기 위해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신라 중대 불교미술 유입 여부, 신라 하대 많은 선종본산이 자리 잡았던 호남지역 선종 미술의 독창성과 산문별 전통성 등을 밝혀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라 중·하대 호남지역에 분포한 석등의 전개와 창안 배경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편년과 조성배경, 그리고 다른 석등에 끼친 영향 등을 밝혀보겠다.

2. 신라 중 · 하대 불교와 미술


신라의 불교 공인은 삼국 중 가장 늦은 527년이 었다. 그러나 원광(圓光) · 자장(慈藏)과 같은 중국에 유학했던 고승들에 의해 새로운 교학이 전해졌고, 신라 왕실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 당(唐)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는 백제 · 고구려 유민을 통합하고 새로운 통일 왕조 신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신라 중대(中代)에 원효(元曉) · 의상(義相) · 명랑(明朗) · 경흥(敬興) · 의적(義寂) · 도증(道證) · 도륜(遁倫) 등에 의해 새로운 교학(敎學)이 받아들여졌다(金福順 2005; 정병삼 2005; 최연식 2005). 그 가운데, 원효 · 의상이 가장 대표적인 교학승(敎學僧)이다. 원효는 중국에 유학하지 않았지만, 『화엄경(華嚴經)』 · 『법화경(法華經)』을 비롯한 불교 경전의 주석서를 편찬하였으며, 대립을 넘어 융화해야 한다는 ‘화쟁사상(和爭思想)’과 같은 시대를 반영한 독자적 사상을 만들었다. 의상은 신라에서 화엄종을 하나의 종파로 성립시킨 인물이다. 그는 중국에 유학하여 지엄(智嚴)에게 배웠으며,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 『대승기신론의기(大乘起信論義記)』 등을 쓴 법장(法藏)과 함께 동문수학하였다. 의상은 676년 귀국하여 부석사(浮石寺)를 창건하였으며, 그의 밑에서 오진(悟眞) · 지통(知通) · 표훈(表訓) 등 뛰어난 화엄학승(華嚴學僧)이 배출되었다.

신라 중대 왕실을 중심으로 교학 중심의 불교가 발전했지만, 기층에서는 구원자로서 불교가 믿어졌다. 한편, 옛 백제 땅인 전주(全州)를 시작으로 미륵신앙(彌勒信仰)과 지장신앙(地藏信仰)이 결합한 진표(眞表)의 법상종(法相宗)이 교세를 크게 떨쳤다. 진표의 종지와 신앙은 영심(永深) · 심지(心地) 등에 의해 속리산 법주사(法住寺), 금강산 발연사(鉢淵寺), 대구 동화사(桐華寺) 등 신라 왕도 경주 외곽 지역으로 확산했다.¹ 반면, 신라 왕도에서는 미륵신앙과 아미타신앙(阿彌陀信仰)이 결합한 태현(太賢)의 법상종이 성립되었다(金南允 1984; 鄭濟奎 1992).

신라 하대(下代)는 선종이 크게 유행하였다(金福順 1994). 경전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 교종과 달리 ‘불립문자(不立文字)’, ‘무념위종(無念爲宗)’ 등을 중지로 삼은 선종은 신라 중대 법랑(法朗) · 신행(神行)에 의해 이미 북종선(北宗禪)이 유입되었다. 그러나 북종선은 신라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정선여 2010). 821년 중국에 유학했던 도의(道義)가 가장 먼저 신라에 남종선(南宗禪)을 소개하지만, 설산(雪山) 즉 설악산으로 쫓겨난 것을 보면, 신라 하대가 되어서도 선종은 신라 왕실에 의해 배척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도의와 동문수학하였던 홍척(洪陟)이 흥덕왕(興德王)의 귀의를 받으면서, 신라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남종선이 확산했다(曹凡煥 2005; 정동락 2011).

이후, 신라에는 홍척을 개산조(開山祖)로 한 실상산문(實相山門) 외에 혜철(惠哲) · 현욱(玄昱) · 무염(無染) 등을 개산조로 한 동리산문(桐裏山門) · 봉림산문(鳳林山門) · 성주산문(聖住山門) 등이 형성되었다. 초기 선사들은 때에 따라 신라 왕실의 귀의를 받는 등 신라 중앙과 결연되기도 하고 산문 인근의 호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가령, 실상산문의 홍척과 수철(秀澈), 회양산문(曦陽山門)의 도헌(道憲) 등이 왕실과 결합한 선사라고 한다면, 범일(梵日)의 사굴산문(闍崛山門), 무염의 성주산문 등은 호족세력을 기반으로 성장한 산문이었다. 한편, 왕실은 지방을 기반으로 성장한 선종사원을 계속 회유 · 포섭하려 하였으며, 상당한 성과를 얻기도 했다(崔仁杓 2006).

신라 중 · 하대 불교 신앙과 사상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 불교미술이다.²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요체인 부처를 형상화한 불상이다. 7세기 후반, 소위 통일기에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것과 국제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인다. 삼국시대 불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불상 가운데 대표적인 불상은 673년 만들어진 계유명전씨아미타삼존불비상(癸酉銘全氏阿彌陀三尊佛碑像)  1 계유명삼존천불비상(癸酉銘三尊千佛碑像) 등을 비롯한 연리지역(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만들어진 7구의 불비상(佛碑像)

1 『三國遺事』卷4, 義解5, 眞表傳簡 · 關東楓岳鉢淵藪石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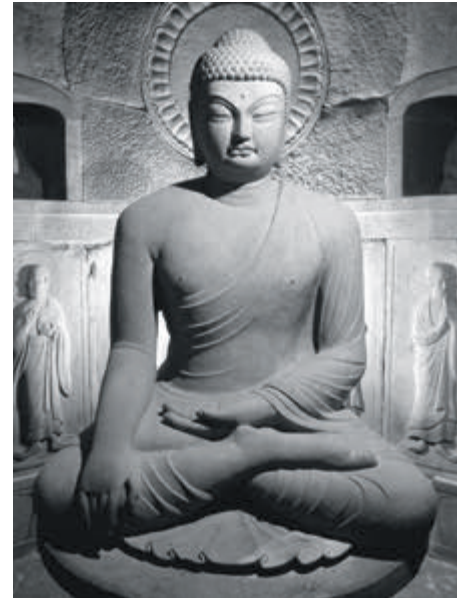
2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필자가 기존에 발표한 글을 재구성하였다(진정환 2019).



도 1. 계유명전씨아미타삼존불비상
43.0cm, 673년, 국립청주박물관, 국보



도 2. 경주 월지 출토 금동판불
27.0cm, 679년, 국립경주박물관, 보물



도 3. 경주 석굴암 본존불
3.50m, 8세기 중엽, 경북 경주, 국보

이다. 국제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불상으로 679년 완성된 경주 월지¹⁾ 출토 금동판불²⁾이나 역시 679년 창건한 경주 사천왕사지³⁾ 출토 녹유소조사천왕상⁴⁾ 등을 꼽을 수 있다.

신라 중대 왕조가 절대왕권을 형성한 8세기에 들어서서는 경주 황복사지⁵⁾ 삼층석탑 출토 순금제 아미타불좌상⁶⁾(706년), 719년 무렵 만들어진 경주 감산사⁷⁾ 석조아미타불입상⁸⁾·석조미륵보살입상⁹⁾ 등과 같은 세속적인 당나라 불상 양식에 신라적 전통의 균형감과 소박한 미감을 반영한 불상을 제작하였다. 신라 중대에 발전한 교학과 뛰어난 불상 조각 역량은 경주 석굴암¹⁰⁾에서 꽃 피었다. 특히, 석굴암은 화엄교학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서지민 2019), 석굴암 본존불¹¹⁾은 신라 중·하대는 물론 고려 전기까지 불교 조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金理那 1989). 한편, 신라 중·하대 전시기에 걸쳐 다양한 재료로 약사불이 만들어졌다. 이로써 현세¹²⁾ 구복적¹³⁾ 성격의 약사신앙¹⁴⁾이 교학과 무관하게 신라 중·하대 전국에 폭넓게 확산했음을 알 수 있다

(정병삼 2013; 허형욱 2021).

신라 중대에는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석탑을 바탕으로 신라 고유의 정형화된 석탑이 만들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문왕¹⁵⁾이 아버지인 문무왕¹⁶⁾의 명복을 빌기 위해 682년 창건한 감은사¹⁷⁾ 터에 남아있는 2기의 삼층석탑이다. 이 석탑의 양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재 수가 줄고 규모가 작아졌지만, 형태와 구조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朴慶植 2004). 또한, 경주 불국사¹⁸⁾ 다보탑¹⁹⁾과 같은 특수형 석탑도 등장한다.

신라 중대 불상과 불탑 가운데 이동이 어려운 돌로 만들어진 것들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옛 신라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朴慶植 1994; 申龍澈 2006).³⁾ 이로써 신라 중대 이후 교학이 발전하고 불교 신앙이 보편화했지만, 불교미술은 신라 왕도인 경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신라 하대 불상은 중대 불교조각과 비교할 때, 양감이 평면적으로 변하고, 불신의 비례가 깨졌으며, 얼굴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느낌을 준다. 이뿐만 아니라, 특히 이 시기에는 중대의 걸작인 석굴암 본존불을

3 박慶植은 충주 탑평리²⁰⁾ 칠층석탑과 구례 화엄사²¹⁾ 사사자석탑²²⁾을 8세기 석탑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최근 연구 성과를 보면, 두 석탑은 하대 초인 9세기 전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 4.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29m, 863년, 대구 동구, 보물



도 5. 산청 단속사지 서삼층석탑
5.30m, 9세기 초, 경남 산청, 보물



도 6. 보령 성주사지 서삼층석탑
4.00m, 847년, 충남 보령, 보물

본뜰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맺은 불좌상과 함께 지권인(智拳印)을 맺은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이 유행하였다(진정환 2007). 물론, 비로자나불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766년에 조성된 산청 석남암사(石南巖寺)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 그러나 널리 유행했던 때는 9세기 중엽 이후다. 대표적인 불상은 대구 동화사(桐華寺) 비로암(毘盧庵)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3년)도 4, 봉화 축서사(鷲棲寺)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7년), 철원 도피안사(到彼岸寺) 철조비로자나불좌상(865년) 등이다.

신라 하대 불탑은 앞 시기 석탑보다 규모와 부재 수가 축소되었는데, 경주 무장사지(無藏寺址) 삼층석탑, 산청 단속사지(斷俗寺址) 삼층석탑도 5 등 83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불탑은 상·하층 기단 탱주 수가 2-2인 중대 석탑과 달리 1-2로 줄었다. 다만, 이때의 석탑 분포도 옛 신라지역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후에는 단순화가 더욱 진전하여 상·하층 기단 탱주 수가 1-1이 되었으며, 옥개석 받침 수도 5단에서 4단으로 줄었다. 보령 성주사(聖住寺) 삼층석탑(847년)도 6, 포항 법광사(法光寺) 삼층석탑(846년 이견·수리), 경주 효현동(孝峴洞) 삼층석탑, 영주 부석사(浮石寺) 동방사지(東方寺址) 삼층석탑 등이 이때의 불탑이다.

한편으로, 신라 하대 유행한 선종사원에서는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고복형(敝腹形) 석등이나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승탑과 같은 새로운 조형의 석조미술품을 만들었는데, 실상산문·동리산문·가지산문 등 여러 산문이 있었던 호남지역의 선종사원이 그러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였다(진정환 2018).

신라 하대 불교미술은 전반적으로 중대와 비교할 때 전국으로 확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따져보면, 9세기 2분기 선종의 유입 및 정착과 함께 옛 신라의 영역을 벗어나 전국으로 확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종 산문이 ‘사자상승(師資相承)’을 중요시했던 만큼, 중대 불교미술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화되었다. 다만, 많은 수의 불상과 불탑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여러 계층의 장인이 불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예술성이나 완성도는 중대 불교미술보다 다소 떨어지는 경향도 보인다.

3. 호남지역 불교미술의 양상과 특징

신라 중대 호남지역에는 열반종 고승인 보덕(普德)과 그의 제자가 세운 여러 사찰, 진표계 범상종 근본 도량인 금산사(金山寺), 그리고 화엄종의 대찰인 화엄사(華嚴寺)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통념상 이때부터 불상이나 불탑

표 1. 보덕의 제자 창건 사찰 위치 추정

제자	사찰	추정 위치		비고
		이병도(1988)	김방룡(2003)	
무상(無上)	금동사(金洞寺)	평남 안주	전북 진안	
적멸(寂滅)	진구사(珍丘寺)	전북 임실	전북 임실	
의융(義融)				
지수(智叡)	대승사(大乘寺)	경북 문경	전북 전주	
일승(一乘)	대원사(大原寺)	전북 완주	전북 완주	
수정(水淨)	유마사(維摩寺)	전북 정읍	전북 정읍	
사대(四大)	중대사(中臺寺)	전북 진안	전북 진안	
개원(開原)	개원사(開原寺)	충북 단양	미상	
명덕(明德)	연구사(燕口寺)	미상	전북 완주	
개심(開心)				본전(本傳) 있음
보명(普明)				본전(本傳) 있음

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고구려 반룡산(盤龍山) 연복사(延福寺)에서 『열반경(涅槃經)』을 강설하던 보덕은 보장왕 재위 당시 완산주 경복사(景福寺)로 거처를 옮겨 주석하였다.⁴ <표 1>에서 볼 수 있듯, 그의 제자 11명은 완산주 즉 현재의 전북 일원을 중심으로 사찰을 창건하였다. 경복사에서는 삼국시대 말~신라 중대로 추정되는 유구와 기와 같은 유물도 확인되기도 했지만(윤덕향 2003), 제자들이 세웠다고 하는 사찰은 적멸과 의융이 창건한 진구사를 제외하고는 위치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나마 위치가 확정된 진구사 옛터에서는 신라 중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윤덕향 · 이민석 · 고금님 1994).

금산사는 법상종 중심 사원으로서 진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진표는 완산주 만경현에서 태어나 12세에 금산사 순제법사(順濟法師)를 스승으로 출가했다.⁵ 이후 그는 760년 부안 변산 불사의방(不思議房)에 들어가 3년 동안 수행한다. 이때 깨우치지 못해 벼랑에서 몸을 던지려고 하자, 미륵보살(彌勒菩薩)과 지장보살(地藏菩薩)이 나타나 계법(戒法)과 진성(眞性)을 전해 받았다. 진표의 법상종은 미륵과 아미타를 중시한 태현(太賢)으로 대표되는 신라 왕도의 법상종과 달리, 미륵과 지장을 중시하였으며 수행방식으로 점

찰법(占察法)을 강조하였다. 한편, 『三國遺事』에는 김제 금산사를 창건하면서 미륵장육상을 조성하고 금당벽화를 남겼다고 하는데, **사료 1** 현재 금산사에서는 신라 중대에 조성된 불상이나 불탑을 찾아볼 수 없다(韓國佛教研究院 1977).

(사료 1) 진표는 교법을 받기를 마치자 금산사를 창건하고자 산에서 내려왔다. 대연진(大淵津)에 이르자 갑자기 용왕이 나타나 옥으로 된 가사를 바치고 8만 권속을 이끌고 시위하며 금산수(金山叢)로 갔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며칠 지나지 않아 완성되었다. 다시 미륵보살이 도솔천으로부터 감응하여 구름을 타고 내려와 진표에게 계법을 주었는데, 진표는 시주를 권하여 미륵장육상을 조성하게 하였다. 또 금당의 남쪽 벽에 내려와서 계법을 주는 위의(威儀)의 모습을 그리게 하였다. 갑진년 6월 9일에 조성되어 병오년(766년) 5월 1일에 금당에 안치되었으니, 이해는 대력(大曆) 원년이다.⁶

4 『三國遺事』卷3, 興法3, 寶藏奉老 普德移庵.

5 『宋高僧傳』(T. 2061), 唐百濟國金山寺眞表傳; 『三國遺事』卷4, 義解5, 眞表傳簡.

6 『三國遺事』卷4, 義解5, 關東楓岳鉢淵藪石記. “師受教法已 欲創金山寺下山而來 至大淵津 忽有龍王出獻玉袈裟 將八萬眷屬侍往金山藪 四方子來不日成之 復感慈氏 從兜率駕雲而下與師受戒法 師勸檀緣鑄成彌勒丈六像 復畫下降受戒威儀之相於金堂南壁□ 於甲辰六月九日鑄成丙午五月一日安置金堂 是歲大曆元年也”

구례 화엄사는 신라의 화엄십찰華嚴十刹 가운데 하나다.⁷ 한편, 1636년 간행된 『화엄사사적華嚴寺事蹟』에는 화엄사를 544년 연기煙起가 창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754년)의 발원자인 황룡사 연기법사緣起法師가 8세기 중엽 화엄사를 창건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李基白 1979; 金相鉉 1991).⁸

여기서 주목할 것이 화엄사 화엄석경華嚴石經이다.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은 80권본이지만, 화엄석경은 60권본이다. 이를 제작 시기의 차이에 따른 변화로 보기도 하지만(金福順 2018), 근본 경전의 차이가 곧 화엄종단 내 사상적 계통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 화엄사 창건 시기가 곧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제작 시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화엄사 창건 시기라고 추정된 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 온 화엄사 사사자석탑四獅子石塔도 7의 건립 시기 또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엄사 사사자석탑은 4구의 사자가 있는 상층기단을 제외한다면, 중층의 기단부와 3층의 탑신부, 상륜부로 이루어진 신라 일반형 석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각-호-각 3단의 하층기단 받침, 하층기단의 안상과 천인상, 부연 없이 경사진 상층기단 감석, 탑신 표면 장엄의 범천과 제석천, 옥개석의 얇은 탑신 받침과 옥개 받침 등은 신라 중대 석탑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李順英 2010). 화엄사 사사자석탑이 아무리 특수형 석탑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신라 중대에 조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신라 중대 불교 전개 과정에서 호남지역의 승려와 불교사원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때의 불교미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불사를 주도할 장인의 양적·질적 한계도 작용했겠지만, 신라 왕실이 무열왕계 진골 귀족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적 전제왕권을 구축하기 위해 왕도인 경주와 옛 신라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라 중대 호남지역에서 1건도 보이지 않던 불상이 신라 하대 이후에는 광주 약사암藥師庵, 장흥 보림사寶林寺, 광주 증심사證心寺, 임실 진구사지, 남원 실상사 등 여러 곳에서 조성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840년 무렵 실상사 조영 당시 만들어진 실상사 철조여래좌상鐵造如來坐像도 8이며(진정환 2018), 다른 불상은 9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다(성춘경 2006; 최선주 1998; 陳政煥 2013a).

또, 불탑도 구례 화엄사, 남원 실상사, 장흥 보림사, 순천 선암寺仙巖寺, 해남 대흥寺大興寺, 광주 증심사證心寺, 광양 중흥산성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이 가운데, 화엄사 서오층석탑과 대흥사 응진전 앞 삼층석탑은 하층과 상층기단 탱주 수가 2-1인 점으로 보아, 8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도 추정되기도 했다(박정식 2008). 그러나 세부 표현의 수법이 경주 일대의 석탑과 다르고 탑 내 출토품을 고려할 때 편년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陳政煥 2010). 그렇다면, 불탑 역시 불상과 마찬가지로 84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호남지역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신라 하대 호남지역의 불상과 불탑은 남원소경 인근이자 신라의 오악五岳 가운데 하나인 남악南岳 즉 지리산과 그 주변 군현에서 분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라 간선 교통로인 해남통海南通을 통해 전파되었다는 견해도 있다(박현서 2018). 그러나 대다수의 신라 하대 호남지역 불교 미술품이 선종사원이 있던 지역에 분포한다는 점을 볼 때, 앞 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롭게 선종사원을 조영하는 과정에서 불교 미술품이 조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신라 왕실의 귀의를 받은 실상사에서는 그 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조형의 불교 미술품이 만들어졌다. 흥척이 826년 무렵 실상산문을 열었지만, 본격적인 불교미술 조영은 흥척의 제자 수철이 840년 무렵 소위 지실寺知實寺를 사축私築할 때이다(陳政煥 2013b). 이때 선이나 화엄 교학 같은 불교 사

7 崔致遠, 「法藏和尚傳」, 『三國遺事』卷4, 義解5, 義相傳教.

8 다른 한편에서는 754년 화엄경 사경을 주도한 연기법사와 화엄사 창건주가 동일 인물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었다(박미선 2011).



도 7. 구례 화엄사 사사자석탑
7.17m, 9세기 전만, 전남 구례, 국보



도 8.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2.66m, 840년 전후, 전북 남원, 보물



도 9. 남원 실상사 동삼층석탑
8.40m, 840년 전후, 전북 남원, 보물

상뿐만 아니라, 산악 또는 비보 신앙 등까지도 섭렵했던 수철의 경험과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조형물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실상사의 불교 미술품은 선종사원은 물론 신라 하대 불교미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실상사에서 주존의 재료로 철을 선택한 뒤 같은 산문 소속 사찰인 진구사는 물론, 가지산문, 동리산문, 성주산문, 회양산문 등에서도 철불을 주존으로 삼았다. 이뿐만 아니라, 실상사 삼층석탑^{도 9}은 신라 일반형 석탑의 특징을 띠지만, 기단의 탱주 수가 1-1로 바뀌고 옥개 받침의 수가 4단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실상사 석탑의 양식과 형식은 호남지역은 물론 실상산문과 신라 왕실의 결탁에 힘입어 경주 일대까지 영향을 끼쳤다(陳政煥 2013c).

한편, 실상사에서는 팔각원당형 승탑^{僧塔}이나 고북형 석등과 같은 앞 시기,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불교 미술품을 창안하였다(진정환 2017; 진정환 2018). 선종 산문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승탑은 양양 진전사지^{陳田寺址} 도의^{道義} 승탑이다. 이 승탑은 신라 불탑의 전형적인 특징인 방형 2단 기단 위에 팔각형의 탑신과 지붕, 보주를 올렸다. 탑신부는 변모하였지만, 기단부는 불탑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일부 변형은 있지만, 이때

까지 완전히 불탑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의 뒤를 이어 만들어진 승탑으로 남원 실상사 증각대사탑^{證覺大師塔}(현재 국가 지정 명칭은 ‘수철화상탑’)도^{도 10}와 염거화상탑^{廉巨和尚塔}을 꼽을 수 있다. 이 승탑은 기단부터 지붕까지 팔각을 기본으로 하였고, 탑신과 기단에 사천왕상을 비롯한 다양한 조각을 새겨 넣었다.

입적 시기가 844년으로 밝혀진 염거의 승탑은 대체로 가장 이른 시기의 승탑으로 여겨졌다(蘇在龜 2002). 그러나 홍척은 실상사 『수철화상탑비^{秀澈和尚塔碑}』와 『조당집^{祖堂集}』 등을 볼 때, 840년 입적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陳政煥 2013b). 이때 수철은 실상사의 불교 미술품을 조영하는데, 당연하게도 스승인 홍척의 승탑을 조성했을 것이다. 또, 증각대사탑이 염거화상탑보다 빠르다는 것은 염거화상탑지^{廉巨和尚塔誌}에 ‘석가모니 열반 1804년’이라고 한 구절에서도 알 수 있다. 북방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열반 시기를 기원전 949년으로 여기므로, 염거화상탑은 855년에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어서다(진정환 2018).

호남지역에는 실상산문 외에도 많은 선종 산문이 있었던 만큼, 당연하게도 많은 승탑이 만들어졌다. 실상사에는 892년 입적한 수철의 승탑^{秀澈和尚塔}과



도 10. 남원 실상사 증각대사탑
2.42m, 840년 전후, 전북 남원, 보물



도 11.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3.10m, 861년, 전남 곡성, 보물



도 12. 화순 쌍봉사 칠감선사탑
2.30m, 868년, 전남 화순, 보물

편운화상탑(片雲和尚塔(910년)이 들어서 있다. 동리산문(洞裏山門)의 개산조인 혜철(惠哲)의 승탑인 적인선사탑(寂忍禪師塔)도 11이 861년 곡성 태안사(泰安寺)에 만들어졌다. 또, 사자산문(獅子山門)의 개산조인 도윤(道允)의 승탑인 화순 쌍봉사(雙峰寺) 칠감선사탑(寂鑑禪師塔(868년 무렵)도 12, 가지산문(迦智山門)의 실질적인 개산조라 할 수 있는 체징(體澄)의 승탑인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普照禪師塔(880년)도 신라 하대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승탑이다. 이밖에도 구례 연곡사(緣谷寺) 동 승탑과 같은 주인공을 알 수 없는 승탑도 있다.

그런데, 산문의 개산조를 기리기 위한 승탑은 같은 산문 다음 세대 선사를 기리는 승탑의 모델이 되었다. 가령, 실상사 수철화상탑(秀澈和尚塔)은 일부 변형이 있지만, 기본 조형은 증각대사탑과 같다. 태안사에는 적인선사탑을 모델로 한 광자대사탑(廣慈大師塔)이 945년에 만들어졌으며, 보림사와 연곡사에도 각각 보조선사탑과 동 승탑을 빼닮은 승탑이 만들어졌다.

후삼국 정립 이후 후백제의 영역에서는 백제를 계승하고자 한 국가 정체성을 반영한 익산 왕궁리(王宮里) 오층석탑과 같은 복고적 불교 미술품이 만들어졌다(진정환 2022a).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후백제의 국가 정체성이 ‘신라의 대체자’이자 ‘통일의 완성자’로 변화된 925년 이후에는 신라 중앙양식이 농후한 금동불입상을 그

대로 따른 나주 철천리(鐵川里) 석불입상을 조성하기도 하고(진정환 2021), 아주 새로운 조형성을 보이는 실상사 편운화상탑(片雲和尚塔)과 같은 불교 미술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진정환 2022b).

4. 새로운 석등의 창안

석등은 등(燈) 공양을 위한 구조물이다. 『시등공덕경(施燈功德經)』에서는 탑묘(塔廟)(=불탑)와 모든 형상(形像)(=불상) 앞에 등명(燈明)을 받들어 올리는 것이 수많은 공양 가운데에서도 으뜸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한 사찰에서도 많은 석등이 조성되었다. 한국에서 확인된 가장 오래된 석등은 익산 미륵사지(彌勒寺址) 석등이다. 이 석등은 전체적인 평면이 팔각이며, 긴 간주석(竿柱石)과 상·하대석으로 구성된 기단부, 4면에 화창(火窓)이 뚫린 화사석(火舍石), 옥개석,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미륵사지 석등의 기본형태는 경주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 경주 원왕사지(遠願寺址) 석등과 같은 신라 석등의 기본이 되었다. 한편, 연화 하대석 아래에 별도의 대석(臺石)(=하대하석(下臺下石))을 끼워 넣기도 하는데, 방형의 하대하석이 있는 것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이 대표적이며, 팔각 평면의 하대하석이 있는 석등은 보은 법주사, 장흥 보



도 13. 남원 실상사 석등
5.08m, 840년 전후, 전북 남원, 보물



도 14. 담양 개천사지 석등
3.80m, 868년, 전남 담양, 보물



도 15. 임실 진구사지 석등
5.36m, 860~870년대, 전북 임실, 보물



도 16. 양양 선림원지 석등
2.97m, 874~880년, 강원 양양, 보물



도 17.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6.15m, 886~887년, 전남 구례, 국보



도 18. 합천 청량사 석등
3.11m, 900년 전후, 경남 합천, 보물

표 2. 신라 하대 고북형 석등 비교(陳政煥 2013b)

석등명칭	간주석 형태	화창 수	간주석 받침	화사석 받침	와문대	귀꽃장식		비고
						하대석	화사석	
실상사 석등	원통	8	×	×	×	○	○	
개천사지 석등	원통	8	×	○	△	○	○	
진구사지 석등	원통	8	×	○	○	○	○	
선림원지 석등	팔각변형	4	○	○	○	○	○	
화엄사 석등	팔각변형	4	○	○	○	○	○	
청량사 석등	팔각변형	4	○	×	×	○	×	사천왕

△ 간주석 상하부에 와문대 조각

림사 등에 있다. 또, 화사석에 보살상 또는 사천왕상을 새긴 석등도 만들어졌는데, 전자의 대표적인 석등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無量壽殿) 앞 석등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석등은 법주사 사천왕상 석등이다.

신라 하대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팔각 간주석 석등은 장흥 보림사 석등이다. 이 석등은 870년 삼층석탑과 같이 만들어진 석등이다(金南允 1997). 이 석등이 다른 석등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연화 하대상석보다 좁은 팔각의 하대하석인데, 이러한 특징은 같은 사찰 안에 있는 보조선사탑 및 이를 모방한 동 승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이 형식이 가지산문 불교미술만의 고유 요소였을 것이다. 한편, 고려 초에 만들어진 장흥 천관사 석등에서도 보림사 석등 고유의 하대석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陳政煥 2013c). 이를 단순 모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천관사가 가지산문 소속 사찰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또, 남원 실상사 백장암(百丈庵) 석등도 신라 하대에 조성된 석등이다. 이 석등은 16각 평면의 매우 낮은 하대하석이 있고 상대석 윗면에는 난간이 조각되어 있다. 백장암 석등 바로 옆에 있는 삼층석탑은 정순밀교(正純密敎)의 도상인 제석·사천왕(帝釋·四天王)의 오방신앙(五方神仰) 도상이 조각되어 있어(許亨旭 2005), 선종은 물론 여러 교학에 능통했던 수철에 의해 9세기 후반 이후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라 하대 호남지역에는 전형적인 팔각 간주석을 대체한 소위 ‘고북형 석등’과 ‘쌍사자 석등’이 만들어졌다. 여기에서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편년과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해, 신라 하대 호남지역 특수형 석등의 전개 양상을 나누어 살펴보겠다.

1) 고북형 석등과 실상산문(陳政煥 2013b; 진정환 2018)

신라 하대 고북형 석등은 실상사(도 13, 담양 개천사지(開仙寺址)도 14, 진구사지(道 15, 양양 선림원지(禪林院址)도 16, 화엄사(도 17, 합천 청량사(도 18 등에 남아있다. 기존에는 청량사 석등 → 개천사지 석등 → 실상사 석등 → 선림원지 석등 → 화엄사 석등 순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았다(張忠植 1983; 朴慶植 1990; 鄭明鎬 1994). 그러나 청

량사 석등에 대해 8세기 후반, 9세기 말 등 여러 견해가 제기되는 만큼, 앞서의 추정도 확실하지는 않다.

이 고북형 석등은 간주석 형태에 따라, 원통형과 팔각형으로 나뉜다. 간주석 형태가 원통형인 것은 실상사, 진구사지, 개천사지에 있다. 팔각형인 것은 선림원지, 화엄사, 청량사에 있다. 또, 화사석 화창이 8면에 있느냐 4면에 있느냐에 따라 역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창이 8개인 석등은 간주석 형태가 원통형인 석등과 완전히 같다. 이러한 유형의 석등을 이 논고에서는 ‘실상사계 석등’으로 부르겠다. 한편, 팔각형 평면을 유지한 간주석과 화창이 4개인 석등은 앞선 시기 석등의 전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앞으로 ‘선림원지계 석등’으로 지칭하겠다.

고북형 석등의 편년은 경문왕 재위기(861~87년)에 만들어진 불교 미술품에 보이는 간주석 및 화사석 받침, 하대석 상단의 와문대(渦文帶), 하대석 또는 옥개석 모서리에 돌출된 귀꽃 등이 있고 없고에 따라 추론해 볼 수 있다(朴慶植 1994). 이것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실상사 석등은 간주석 및 화사석 받침과 와문대를 살펴볼 수 없어, 이 석등이 경문왕대 불교 미술품에 앞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천사지·진구사지·청량사 석등은 간주석 혹은 화사석 중 한 곳에만 받침이 있지만, 화엄사·선림원지 석등은 두 곳에 모두 받침이 있어 둘 사이에 서로 시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승탑의 경우 기단과 탑신 모두에 받침이 등장한 때가 870년대 이후이므로(蘇在龜 2002), 화엄사와 선림원지 석등 또한 870년대 이후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와문대로도 조성 시기를 살펴볼 수 있다. 염거화상탑이나 태안사 적인선사탑과 같이 860년대 전반 이전에 조성된 불교 미술품은 와문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와문대는 868년 건립된 쌍봉사 철감선사탑을 시작으로 860년 후반 이후의 대다수 승탑에서 확인할 수 있다(염기표 2000). 이러한 점을 본다면, 와문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상사와 청량사 석등은 다른 고북형 석등보다 빠른 것이거나 퇴화하여 늦

은 시기 것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청량사 석등은 860년대 이후 등장한 굽형 받침이 있는 것을 보아, 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와문대가 있는 석등 가운데, 별석이 아닌 간주석 상·하부에 와문대를 새긴 개선사지 석등을 와문대가 있는 석등 가운데 가장 앞선 시기의 석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고북형 석등은 기존의 견해와 달리 실상사 → 개선사지 · 진구사지 → 선림원지 → 화엄사 → 청량사 순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것은 868년에 조성된 개선사지 석등^{사료 2}이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실상사 불교 미술품은 수철이 소위 지실사를 사축한 840년 무렵으로 보이는데, 고북형 석등 가운데 가장 빠른 실상사 석등도 이때 조성되었을 것이다(陳政煥 2013b). 한편, 개선사지 석등과 많은 부분이 닮은 진구사지 석등 또한 함통^{咸通} 연간(860~873년), 즉 경문왕 재위기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사료 2) 경문대왕님과 문의황후님, 그리고 큰 공주님께서는 불을 밝힐 석등을 세우기를 바라셨다. 당나라 함통 9년(경문왕 7년, 868년) 戊子年 음력 2월 저녁에 달빛을 잇게 하고자 전임 국자감경인 사간 김중용^{金中庸}이 유량업조^{油糧業租} 3백석을 날라 오니 승려 영^靈■가 석등을 건립하였다(許興植 編著 1984).

선림원지계 석등은 실상사계 석등과 비교할 때 약간 늦은 시기에 조성되었다. 선림원지 석등은 선림원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조성 시기를 고려할 때(文明大 2002), 홍각^{弘覺}이 역성사^{億聖寺}를 중창한 874년~880년 사이 만들어졌을 것이다(陳政煥 2013b). 또한, 화엄사 석등은 각황전이 조성된 현안왕 재위기(886~887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고북형 석등 가운데 퇴화한 양상을 보이는 청량사 석등은 같은 사역 내 있는 석불의 양식 특징을 볼 때 900년을 전후한 후삼국기에 조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백제가 합천 일대를 점령한 920년 이전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철은 왜 그 이전에 없던 원통형의 간주석과 8면이 뚫린 화사석이 특징인 석등을 만들었을까. 아마도 기존의 교종 사원과 다른 선종의 상징물을 만드는 한편, ‘원융무애^{圓融無碍}’한 선종의 사상을 시각화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陳政煥 2013b).

한편, 실상사 석등의 특성을 보이는 석등이 개선사지와 진구사지에서도 만들어졌다. 단순히 사찰이 실상사와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실상사와 더 가까운 화엄사에는 왜 다른 계통의 고북형 석등이 만들어진 것일까. 여기서 진구사와 개선사가 실상산문에 소속된 사원인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치원^{崔致遠}은 <봉암사 지증대사탑비^{鳳巖寺智證大師塔碑}>에서 적멸·의용이 창건한 진구사를 선종 사찰로 언급하였다.^{사료 3} 그런데, <지증대사탑비>에 진구사의 ‘^休■^休’는 <실상사수철화상탑비^{實相寺秀澈和尚塔碑}> 언급된 수철의 문인인 관휴^{款休}로 보여(陳政煥 2013a), 진구사가 실상산문 소속 사찰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선사는 <갈양사혜거국사비^{葛陽寺惠居國師碑}>에 등장한다. 실상산문과 신라 왕실과의 관계, 혜거가 후백제에서 출가한 뒤 신라를 거쳐 고려에 귀부^{歸附}한 이후 행적 등을 고려할 때, 개선사도 실상산문 소속이었을 것이다(陳政煥 2013b).

(사료 3) 중원에서 득도하고는 돌아오지 않거나, 혹 득법^{得法}한 뒤 돌아왔는데, 거두가 된 사람을 손꼽아 셀만하다 … 고국에 돌아온 사람은 앞에서 말한 복산의 도의와 남악의 홍척,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대안사^{大安寺}의 혜철 국사, 혜목산의 현욱^{玄昱} … 진구사의 ^休■^休 … 등 인데(許興植 編著 1984)

이렇듯, 고북형 석등은 애초에는 실상산문의 상징물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상사 증각대사탑 이후 여러 산문의 선사 승탑의 표본이 되었던 것처럼 다른 산문에 영향을 끼쳐 선림원지 석등이 만들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교종 사원에까지

영향을 끼쳐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이나 청량사 석등이 조성되었다.

2) 쌍사자 석등과 선승 도선

신라 하대에는 앞서 살펴본 고북형 석등 이외에도 간주석을 두 마리의 사자로 대체한 쌍사자 석등이 새로 만들어졌다. 사자는 부처를 묘사한 32상^상 중 ‘상체와 얼굴이 사자와 같다^{上身如獅子相}’고 하는 것이나 부처의 설법을 ‘사자후^{獅子吼}’라 할 만큼 불교 전래 초기부터 불교미술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이를 한국의 초기 불상인 고구려의 장천 1호분 예불도나 뚝섬 출토 금동 불좌상의 대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에는 부처가 삼매에 드는 모습을 ‘사자빈신삼매^{師子頻申三昧}’라고 설명했다. 또 『화엄경』에는 비로자나불·석가모니불 등 불·보살이 연화장사자좌^{蓮華藏獅子座}에 앉아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특히, 신라 중·하대 화엄 교학의 발전으로 신라 사회가 『화엄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만큼, 사자조형물을 화엄종단과 연결할 수 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불교 미술품이 화엄사 사자석탑과 9세기 후반 조성된 비로자나불좌상의 사자가 새겨진 대좌다. 주지하다시피, 화엄사는 화엄십찰 가운데 하나로, 비로자나불은 『화엄경』의 주존불이다.

『등지인연경^{燈指因緣經}』에 ‘공덕과 지혜를 갖춘 부처가 세간이 어두우면 등명이 되어 중생을 선한 곳으로 이끈다’라고 한 것에서,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등불이 놓이는 화사석 그 자체가 부처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화엄경』의 연화장사자좌 개념이 결합하면서 석등의 기단부를 사자로 대체한 쌍사자 석등이 탄생했을 것이다.

신라 하대에 만들어졌다고 여겨지는 쌍사자 석등은 주요하게 다뤄볼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외에도 보은 법주사 및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등 총 3기가 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여겨지는 석등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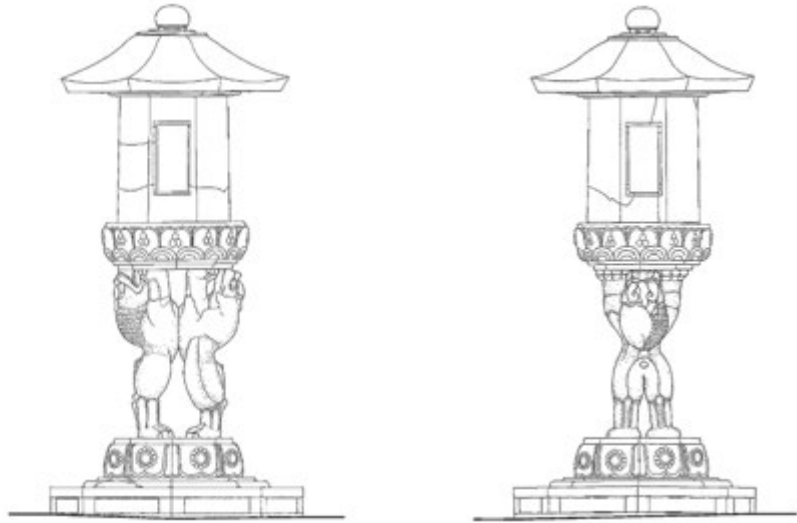
보은 법주사는 진표의 제자 영심이 창건한 진표계 법상종 사원이다. 이곳에는 쌍사자 석등 외에도 대

웅보전 앞 사천왕상 석등, 그리고 사중^{寺中}에서는 회견보살^{喜見菩薩}로 일컬어졌지만, 곤륜노^{崑崙奴} 도상으로 추정되는 석조인물상(허형욱 2006) 뒤편에도 석등 하대석이 남아있다.

법주사 쌍사자 석등^{도 19}은 넓은 방형 지대석 위에 2단의 하대석이 있다. 하대하석은 넓고 낮은 팔각평면인데, 면마다 우주^{隅柱}를 조각하였으며, 윗면에는 호각 2단 받침이 있다. 하대상석은 쌍사자 간주석, 상대석과 하나의 돌로 되어 있다. 하대상석은 전형적인 팔각에서 벗어난 원구형이며, 8엽의 연화문이 새겨져 있고 각각의 연꽃안에도 원형 화문^{花文}이 새겨져 있다. 윗면에는 각형 1단 받침이 있다. 한편, 법주사 사천왕상 석등은 하대하석과 하대상석의 너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쌍사자 석등은 하대상석을 간주석 받침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하석보다 매우 좁고 통례를 벗어난 원구형이다. 또, 간주석:화사석의 높이 비례가 법주사 사천왕상 석등은 1.52:1로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의 1.62:1와 유사하지만, 1.31:1을 보이는 법주사 쌍사자 석등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로써, 법주사의 사천왕상 석등과 쌍사자 석등이 완전히 다른 계통이며, 조성의 시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법주사 사천왕상 석등은 신라 중대에 만들어진 불국사와 부석사 석등의 전통성이 강하면서도 하대하석의 형태 변화, 보살상을 대신한 사천왕상 부조 등을 종합할 때, 8세기 말~9세기 초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천왕상 석등과 완전히 다른 조형미를 보이는 쌍사자 석등은 사천왕상 석등보다 한참 뒤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쌍사자 석등의 구체적인 조성 시기는 차후 다시 살펴보겠다.

간주석은 가슴을 맞대고 앞다리로 상대석을 받쳐 든 자세를 취하고 있는 두 마리의 사자로 이루어졌다. 사자상은 근육질의 다리와 달리 허리가 잘록하여 ‘X’자의 형태를 보인다. 다만, 양감이 두드러진 머리 및 앞다리와 달리 하대석을 딛고 있는 뒷다리는 다소 섬약하다. 사자상의 측면을 보면, 하나는 입을 벌리고 다른 하나는 입을 다물고 있다.

상대석 역시 하대상석과 마찬가지로 원구형이다. 여기에는 2단 16엽의 앙련이 새겨져 있는데, 아랫단



도 19.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도면 참조)
3.15m, 고려 전기, 충북 보은, 국보

연꽃에는 하대상석과 같은 원형 화문을, 윗단 연꽃에는 세 개의 원을 맞댄 삼주문(三珠文)이 새겨져 있다. 상대석 아랫면에는 2단의 팔각 받침이, 윗면에는 1단의 각형 팔각 받침이 있다. 화사석은 4면에만 화창이 뚫려 있는데, 화창이 있는 면이 그렇지 않은 면보다 훨씬 넓은 부등변 팔각형을 띤다. 팔각의 옥개석은 비교적 얇은 편인데, 하단에는 얇은 2단의 받침과 절수구(切水溝)가 있고 정상부에는 1단의 상륜 받침이 있고, 그 위에는 둥근 연화 보주가 꽃혀 있다. 이 석등에서 주목할 점은 앞서 잠깐 지적하였지만, 화사석(77.2cm)이 간주석(101.5cm)과 불과 24.3c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비례는 이 논고에서 다룰 다른 두 쌍사자 석등과 차이가 있다.

대체로 영심이 진표에게 받은 간자(簡子)를 받고 다시 심지(心地)에게 전한 시기를 고려하여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 쌍사자 석등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9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鄭明鎬 1994; 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8세기 말~9세기 초 영심 주석 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사천왕상 석등과 다른 조형을 보인다. 쌍사자 석등

이 완전히 새로운 조형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주사 쌍사자 석등을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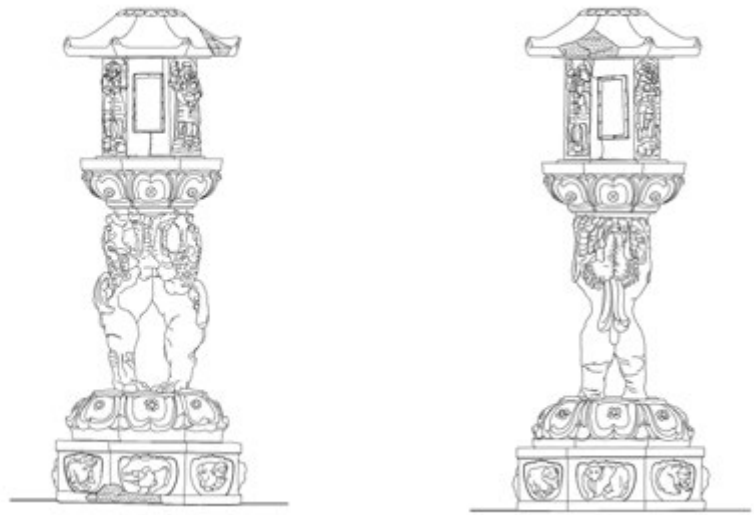
오히려 이 석등에서 볼 수 있는 부등변 화사석은 완주 봉림사지(鳳林寺址) 석등(현 군산 발산초등학교 소재), 부여 무량사(無量寺) 석등,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 등 후삼국기부터 고려 전기에 조성된 석등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상대석 연화문 내 삼주문은 신라 중·하대 석조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다. 한편, 고려의 법상종(유가업)은 원효의 화엄 교학을 바탕으로 진표의 실천적 신앙이 결합하는 양상을 띠었다(許興植 1990). 김부식이 지은 「속리사점찰회소(俗離寺占察會疏)」에서 화엄경과 진표가 동시에 언급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⁹ 여기서 속리사는 법주사를 말한다. 즉, 고려 법상종 승려들은 『화엄경』에 언급된 ‘사자좌’를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상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 쌍사자 석등 가운데 가장 늦은 고려 전기, 고려 법상종의 성장과 맞물려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쌍사자 석등이 있는 합천 영암사지는

9 『東文選』 卷110, 疏, 俗離寺占察會疏. “設諸懺悔之軌儀 示之發起之方便 普賢之願 具宣說於華嚴 眞表之勤 終感通於彌勒”



도 20.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도면 참조)
2.62m, 900년 전후, 경남 합천, 보물



양양 선림원지에 승탑과 탑비가 세워진 홍각이 성적명 산(聖蹟名山)을 두루 순례한 뒤 머물렀다는 영암사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 영암사 터에는 840년대 이후 전형적인 신라 일반형 삼층석탑도 있지만, 적연국사(寂然國師) 영준(英俊)의 승탑과 탑비 등 고려 초 불교 미술품도 있다. 한편, 이 절터 발굴조사 결과, 금당 터 앞에서 석등지(石燈址)가 확인된 바 있다(東亞大學校博物館 1985).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도 20은 예전부터 지대석이 없었는데, 발굴에서도 지대석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대하석 각 면에는 안상(眼象)과 동물이 조각되어 있다. 하대상석은 8엽의 단판 연꽃이 새겨져 있는데, 그 안에는 화문이 새겨져 있다. 그 아래에는 1단의 각형 받침이, 위에는 낮은 호-각 2단 받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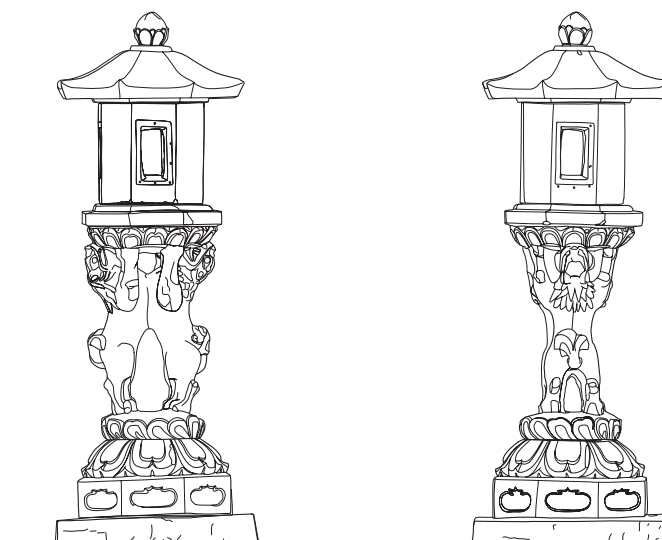
이 석등은 하대상석부터 상대까지 일체형이었던 범주사 쌍사자 석등과 달리, 하대하석과 사자 간주석만 일체형이다. 간주석의 사자상은 범주사 쌍사자 석등과 마찬가지로 뒷다리는 하대석을 딛고, 앞다리는 상대석을 받치고 가슴을 맞대었다. 다른 두 쌍사자 석등보다 허리가 잘록하지는 않고, 앞·뒷다리의 벌린 폭이 비슷하여 역동성이 다소 떨어진다.

상대석 또한 하대상석과 마찬가지로 8엽 단판 연꽃이 새겨져 있고, 그 안에는 하대하석과 같은 형태

의 화문이 새겨져 있다. 그 위·아래에는 각 1단과 2단의 받침이 있다. 화사석은 팔각인데, 4면에 화창을 뚫었고 다른 4면에는 사천왕상을 조각하였다. 옥개석은 화창과 마찬가지로 팔각이며, 우동마루 끝에는 작은 귀꽃이 있다. 옥개석 하단에 1단의 받침이 있고 절수구는 없다. 상륜부가 꽃히는 정상부 주변에는 연꽃이 조각되어 있다.

이 석등의 간주석 높이는 97.6cm이고 화사석 높이는 51.9cm로, 간주석 높이:화사석 높이 비율이 1.88:1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1.31:1인 범주사 쌍사자 석등과 완전히 다른 비례다. 오히려 후술할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비례와 더 가깝다.

한편, 이 석등의 하대하석이 상석보다 약간 넓은 것, 하대하석에 안상과 부조상이 새겨진 것, 화사석에 사천왕상이 새겨진 것이 다른 두 쌍사자 석등과 다른 점인데, 이러한 점들을 인근 지역인 합천 청량사의 고북형 석등에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앞서, 고북형 석등의 조성 시기를 추론하면서 청량사 석등이 900년을 전후한 때 조성되었다는 것을 밝혔는데, 두 석등 사이의 공통점을 고려한다면,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역시 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 21.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2.74m, 860~870년대, 국립광주박물관, 국보

이제 본격적으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²¹의 특징과 조성 시기를 검토해보겠다.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지대석은 두툽한 정사각형 판석이다. 그 윗면은 배수를 고려하여 약간 경사져 있다. 하대석은 다른 두 쌍사자 석등과 달리, 하석과 상석이 한 돌로 되어 있다. 하대하석에는 면마다 안상이 새겨져 있으나, 다른 부조상은 새겨져 있지 않다. 하대상석은 8엽 단판 연화문이 새겨져 있는데, 연판 안에는 범주사나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연화대석^{蓮花臺石}에서 볼 수 있는 화문은 새겨져 있지 않다.

하대석 위에는 간주석 받침, 두 마리의 사자, 상대석이 하나의 돌로 된 부재가 올려져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범주사와 영암사지의 쌍사자 석등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간주석 받침이 굽형의 단순한 받침이 아니라 낮은 양련이라는 점에서 경문왕대 만들어진 진구사지 석등의 와문이 새겨진 문양대와 같은 개념에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간주석 받침 위에는 가슴을 맞대고 마주 선 두 마리의 사자가 있다. 뒷다리는 간주석 받침을 딛고 약간 벌리고 서 있다. 허리가 잘록하고 앞·뒷다리를 벌리고 있어, 뒷면을 보면 'X'자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형태의 사자상은 범주사 석등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체

보다 상체가 둔중한 범주사 석등과 달리 중흥산성 석등은 하체의 안정감이 두드러진다.

두 마리의 사자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형태이지만, 세부 표현은 약간 다르다. 한 사자는 이빨을 드러낸 벌린 입, 곱슬거리는 갈기, 둥글게 말린 꼬리, 굽은 뒷다리가 특징이라고 한다면, 마주 선 다른 사자는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갈기는 직모에 가깝고 꼬리의 형태도 다르다. 입의 개폐 여부만 다른 범주사 석등이나 꼬리의 위치 정도만 다른 영암사지 석등과 비교할 때, 중흥산성 석등 간주석의 사자상이 훨씬 역동적이고 조각적 완성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상대석은 16엽의 양련이 새겨져 있는데, 다른 두 석등에 비해 두께가 높지 않은 편이다. 그 아래에는 얇은 1단의 받침이 있고, 그 윗면에는 다소 두꺼운 팔각의 대석이 그 아래 양련에 비해 넓게 조각되어 있다. 그 윗면에는 역시 비교적 높은 1단의 호형 화사석 받침이 있다. 이 석등 상대석의 팔각 대석과 같은 두툽한 팔각 대석은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에서 볼 수 있지만, 범주사 쌍사자 석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상대석 연판문 안에는 신라 중·하대 석조물이나 연화문와당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말린 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화사석은 각 면의 폭이 같은 팔각형 평면이고, 4

표 3. 쌍사자 석등 비교

석등명칭	하대석		간주석			상대석	화사석	옥개석
	하석	연화상석	받침여부	사자 형태	간주석: 화사석			
법주사 석등	넓은 팔각	연판+화문	×	'X'자형	1.31:1	연판+삼주	낮은 받침	
영암사지 석등	안상+동물	연판+화문	×	'1'자형	1.88:1	연판+화문	높은 대석+낮은 받침	우동마루
중흥산성 석등	안상	-	○	'X'자형	1.89:1	연판+말린 화문	높은 대석+받침	우동마루

면에만 화창이 뚫려 있다. 화창 주변에는 문비(門扉)를 달 수 있도록 1단 낮게 조각하였고,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이 10개씩 마련되어 있다. 화사석 내부 아래는 등잔 같은 것을 둘 수 있도록 막혀 있고, 윗면은 배기(排氣)를 위해 중앙이 뚫려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다른 두 쌍사자 석등 화사석에서도 볼 수 있다.

옥개석도 화사석과 마찬가지로 팔각형 평면을 띤다. 다만, 상단이 다른 두 석등과 달리 약간 둥글게 조각되어 있다. 처마 쪽으로 갈수록 우동마루가 두툼하게 조각되어 있다.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옥개석에서는 이 석등 옥개석과 마찬가지로 우동마루를 확인할 수 있지만, 법주사 석등은 옥개석 상부 합각 면이 비교적 날카롭다. 옥개석 하단에는 화사석 받침과 마찬가지로 두꺼운 8각의 옥개 받침이 있다. 한편, 절수구가 새겨져 있지 않은데, 이는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과 공통점이다. 옥개석 상단에는 원형의 1단 상륜부 받침과 구멍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연꽃이 새겨진 보주가 꽂혀 있다.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사자 간주석과 화사석의 높이 비례를 살펴보면, 간주석 받침을 포함할 경우, 1.89:1이고, 그것을 제외할 경우 1.74:1의 비례를 보인다. 1.88:1인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과 거의 같다. 이는 두 석등 중 하나가 다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뜻한다. 그런데, 영암사지 석등의 형태와 세부표현이 단순해진 것을 보아, 중흥산성 석등이 영암사지 석등의 모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영암사지 인근인 합천 백암리(伯岩里)에 있는 사천왕상 석등의 간주석과 화사석 비례가 1.92:1을 보이는 것을 보아,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영향이 합천 일대에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다.

쌍사자 석등의 세부 형식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지금까지 가장 이른 시기의 쌍사자 석등으로 여

겨져 왔던 법주사 쌍사자 석등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등변 화사석, 신라 하대 석조물에서 볼 수 없던 문양, 간주석과 화사석의 비례가 다른 두 석등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쌍사자 석등 가운데 가장 늦은 고려 초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과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은 모두 쌍사자가 서 있는 간주석의 비중이 매우 크고, 하대하석과 하대상석의 비례가 유사하며, 옥개석 등의 치석 수법도 같아 같은 계통의 석등이자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의 간주석 받침이 생략된 점, 쌍사자의 형태가 단순해진 점 등을 볼 때,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의 모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정리하면, 신라 하대에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순으로 조성되었고, 고려 초에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구체적인 조성 시기는 같은 곳에 있는 삼층석탑을 통해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다. 특히, 중흥산성 삼층석탑 주변에서 4구의 돌사자가 확인되기도 했다(국립중앙박물관 2017). 다만, 기단 위에 네 마리의 사자를 둔 석탑은 경주 분황사(芬皇寺) 모전석탑(模塹石塔), 경주 불국사 다보탑, 의성 관덕리(觀德里) 삼층석탑 등 7세기 전반부터 9세기까지 폭넓게 등장한다. 호남지역에는 화엄사 사자석탑처럼 기단 위에 별도로 둔 사자를 기단 자체로 삼은 석탑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별도의 사자상을 둔 석탑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석탑에 네 마리의 사자상을 둔 것과 석등 간주석을 사자상으로 만든 것은 같은 조형 의식 아래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광양 중흥산성 석탑과 석등은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중흥산성 삼층석탑은 지대석, 중층의 기단부, 3

층 탑신부로 구성된 신라의 전형적인 일반형 석탑이다. 지대석은 8장의 장대석으로 만들었다. 하층기단 저석과 중석은 한 돌에 조각되어 있는데, 총 6장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갑석은 5장의 판석으로 되어 있는데, 아랫면에 부연은 없고 윗면에 호-각 2단 받침이 있다. 하대 갑석은 약간의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우동마루가 뚜렷하다. 이러한 치석 수법은 석등의 경사진 지대석이나 옥개석에서도 일관되게 보인다. 다만, 하층기단에는 상층기단의 탱주가 1주인 석탑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3주의 탱주가 있다. 상층기단 중석은 5장의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탱주 수가 하나다. 갑석은 4매로 되어 있는데, 아랫면에는 부연을, 윗면에는 각-호-각 3단 탑신 받침이 있다. 상층기단 남면에는 인왕상(仁王像)이 각 면에 1구씩 새겨져 있고, 그 반대편에는 보살상이 면마다 1구씩 새겨져 있다. 동·서면에는 사천왕상이 각각 2구씩 새겨져 있다.

탑신부는 3층의 탑신과 옥개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탑신보다 2층과 3층 탑신의 높이가 매우 낮아 급격한 체감률을 보인다. 1층 탑신에는 사방불(四方佛)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은 낙수 면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우동마루와 모서리의 전각도 두드러진다. 처마면에는 절수구가 있으며, 옥개석 윗면에는 각형 1단 받침이 있다. 특히, 옥개석 받침이 3단으로 줄어든 점이 눈길에 간다.

중흥산성 석탑은 840년대 이후 조성된 일반형 석탑의 하층과 상층의 기단 탱주 수가 1-1인 것과는 달리, 3-1이다. 그러나 하층기단 탱주 수가 셋인 경주 감은사지 삼층석탑 등과 같은 신라 전형기 석탑과 달리 전체적인 규모가 작고 옥개 받침의 숫자 역시 3단으로 줄어 조성 시기가 840년대 이전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중흥산성 석탑처럼 한 층에 인왕상, 사천왕상, 보살상을 한꺼번에 조각한 사례를 신라 중·하대 표면 장엄 석탑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신장상과 보살상이 석탑의 한 부재에 동시에 등장한 사례를 앞서 살펴본 백장암 석등과 마찬가지로 9세기 후반 수

철이 만든 백장암 삼층석탑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중흥산성 삼층석탑은 9세기 후반에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또한 9세기 후반에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그 시기를 좁혀보면, 경문왕 때 만들어진 진구사지 석등에서 볼 수 있는 간주석 받침이 있는 점을 보아, 860~870년대 만들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누가 만들었을까. 주지하다시피,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중흥산성 내 폐사지에 있던 석등이다. 중흥산성 폐사지는 한때 도선이 주석하면서 중창했다는 옥룡사의 터로 인식되기도 했다.¹⁰ 그런데 광양시 옥룡면 백계산 남단의 절터가 발굴된 이후(崔仁善 외 1995~2009; 崔仁善 1997), 그러한 주장은 더는 없다. 한편, 백계산 절터에서는 고려 때 만들어진 도선과 경보(慶甫)의 부도전지(浮屠殿址)가 확인되고 작고 단순해진 석탑 부재만 확인될 뿐, 도선 주석 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불탑이나 불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도선의 활동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석등과 삼층석탑이 도선의 승탑으로 알려진 옥룡사지와 직선거리로 불과 2.5km 정도 떨어진 중흥산성의 폐사지에 있다. 이 절터는 누가 조성했을까. 이와 관련하여, 실상사와 직선거리로 3.19km 떨어진 백장암에 수철이 조성한 석탑과 석등이 만들어진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許亨旭 2005). 그 사례를 볼 때,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과 삼층석탑 역시 도선의 주도 아래 조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도선의 행적은 <옥룡사 선각국사비(玉龍寺先覺國師碑)> (1173년)와 <옥룡사 통진대사비(玉龍寺洞眞大師碑)>에서 확인된다(李智冠 1994; 李智冠 1996). 요약하면, 도선의 속성은 김씨이며, 영암 구림 출신이다. 그가 15세가 되었을 때인 841년 월유산(月遊山) 즉 지리산 화엄사에서 승려가 되었다. 이때 그는 『화엄경』을 공부하였는데, 불과 1년이 되지 않아 대의를 통달하였다고 한다. 그는 20세가 된 846년 동리산문의 혜철에게 선을 수학하였다.

10 정명호는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을 “옥룡사지사자석등”으로 지칭하기도 했다(정명호 1994).

23세 때 천도사^{穿道寺}에서 구족계를 받고, 전국 각처를 15년 가까이 유람한 뒤 37세 때인 863년 무렵부터 옥룡사에 주석하여 899년 입적할 때까지 35년 동안 이곳에 머물며 수많은 제자를 길렀다. 또한, 도선은 선사이자 풍수비보사상^{風水裨補思想}의 비조이기도 하다(崔柄憲 1975).

도선이 출가했던 사찰이 사사자 석탑이 있던 화엄사라는 점, 연화장사자좌에 대한 개념이 있는 『화엄경』에 능통했다는 점을 볼 때, 도선이 쌍사자 석등의 조형을 창안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선의 스승 혜철의 선맥은 도선이 아니라 如^여를 거쳐 윤다^{允多}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도선은 태안사를 떠나 옥룡사에 주석하게 되었고, 동리산문에서 독립하여 옥룡산문^{玉龍山門}을 개창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개산조의 뒤를 잇지 못한 선사가 별도의 산문을 연 사례는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 명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승탑 명문에는 편운이 실상산문의 1대 조사인 홍척의 제자이자 안봉산문^{安峯山門}의 개창조로 기록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실상산문의 2대 조사는 수철 화상이다. 안봉사^{安峯寺}는 현재 경북 성주 안산영당지^{安山影堂址}로 추정되는 곳인데(嚴基杓 2016), 이처럼 조사의 선맥^{禪脈}을 잇지 못한 선사의 경우 본사에서 일정 정도 떨어진 곳에 사찰을 창건하는 것이 통례였을 것이다.

이처럼 도선을 정점으로 한 새로운 산문을 만들면서, 수철이 실상산문의 상징물로 원형 평면의 고북형 석등을 창안했던 것이나 스승 혜철의 승탑 건립 과정을 겪었던 도선은 그들만의 상징물을 만들고자 했을 것이다. 이때 화엄교학에 대한 이해와 화엄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의 불교 미술품을 섭렵했던 도선이 쌍사자 석등을 창안했다고 짐작된다.

한편, 원형 평면 고북형 석등이 실상산문 소속 사원인 진구사와 개전사에 만들어진 사례를 볼 때,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독특한 비례를 공유하는 쌍사자 석등이 있는 합천 영암사를 옥룡산문 소속 사원의 하나로 상정할 수 있다. 신라 하대의 선사인 홍각이 영암사에서 수행했고 고려 초의 선사인 영준^{英俊}이 1014년 입

적하기 직전 머물렀던 곳이 영암사였다는 점을 볼 때, 신라 하대에 영암사는 분명한 선종 사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영암사가 옥룡산문 소속 사찰이었다고는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옥룡사 선각국사비〉에 도선의 제자가 수백에 이르렀다고 하고, 광양과 합천이 신라 하대 중요한 교통로인 해남통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옥룡산문의 제자가 합천에 가 영암사 불사를 주도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호남지역 신라 하대 불교 미술품의 전개 양상과 특성을 바탕으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조성 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옥룡산문의 개창조인 도선이 860년대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혔다.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과 같은 독특한 조형을 만든 이유는 실상산문에서 산문 고유의 원형 평면 고북형 석등을 창안한 것처럼 옥룡산문만의 상징물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화엄교학에 능통했던 도선의 인식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또, 신라 하대로 여겨져 온 3기의 쌍사자 석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가장 먼저 만들어졌을 것으로 여겨져 온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 사실은 가장 늦은 시기인 고려 초에 조성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또,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은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고유한 비례체계를 보이면서도 간주석인 쌍사자의 형태가 경직되고 조각 수법 또한 중흥산성 석등보다 떨어져 중흥산성 석등보다 늦은 시기에 만들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정리하면, 신라 하대 860년대 이후 등장한 쌍사자 석등은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순으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과 같은 계열의 쌍사자 석등이 있는 합천 영암사는 옥룡산문 소속 사찰일 것으로 보았다.

이번의 논고가 비교 대상의 한계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 개별적인

쌍사자 석등에 관한 연구가 더 진전된다면, 신라 말~고려 초 불교미술의 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며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역사적·미술사적 가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國立文化財研究所, 『石燈調査報告書Ⅱ-異形式篇』, 2001, pp.99-178.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조문화재』, 2017, pp.221-223.
- 金娜然, 「雙獅子 石燈 樣式 研究-經典 根據를 中心으로-」, 能仁大學院 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8.
- 金南允, 「新羅中代 法相宗의 成立과 信仰」, 『韓國史論』11, 1984, pp.95-148.
- _____, 「寶林寺 石塔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7, pp.332-334.
- 김방룡, 「신라통일기 불교사상의 전개와 普德의 열반종」, 『보덕화상과 경복사지』, 전라문화연구소, 2003, pp.81-84.
- 金福順, 「新羅 下代 佛教界의 動向」, 『新羅文化』10·11, 1994, pp.97-110.
- _____, 「新羅 中代의 佛教」, 『新羅文化』25, 2005, pp.167-188.
- _____, 「신라 화엄종과 화엄사 화엄석경의 조성시기」, 『신라문화』52, 2018, pp.175-180.
- 金相鉉, 「新羅 華嚴宗의 僧侶 및 그 寺院」, 『新羅華嚴思想史研究』, 民族社, 1991, pp.90-91.
- 金理那, 「統一新羅時代의 降魔觸地印佛坐像」,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89, pp.337-394.
- 東亞大學校博物館, 『陝川靈巖寺址』Ⅰ, 1985.
- 文明大, 「禪林院本尊佛像問題와 石造毗盧遮那佛像의 研究」, 『講座 美術史』18, 2002, pp.17-34.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小川敬吉調査文化財資料』, 1994.
- 朴敬源, 「陝川 靈巖寺址와 그 遺物」, 『考古美術』2-10, 1961, pp.165-169.
- 朴慶植, 「新羅下代 鼓腹形石燈에 關한 考察」, 『史學志』23, 1990, pp.1-24.
- _____, 『統一新羅石造美術研究』, 學研文化社, 1994, pp.37-38, pp.300-303, pp.363-388.
- _____, 「신라 典型·定形期 석탑의 비교」, 『文化史學』22, 2004, pp.117-132.
- 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p.255.
- 박미선, 「신라 백제목서화엄경의 사경 발원자와 사경장소」, 『역사와 현실』81, 2011, pp.29-56.
- 박현서, 「智異山 地域 統一新羅 石塔 研究」, 『불교미술사학』25, 2018, pp.93-95.
- 杉山信三, 「中興山城의 雙獅子石燈-故小川敬吉氏蒐集資料より-」, 『朝鮮學報』119-120, 1986, pp.229-250.
- 서지민, 「石窟庵 造營 배경과 본존불상 도상의 화엄교의적 해석」, 『불교미술사학』28, 2019, pp.195-220.
- 성춘경, 「통일신라시대 9세기 전남의 불상」, 『전남의 불상』, 학연문화사, 2006, pp.37-75.

蘇在龜, 『新羅下代와 高麗時代 僧塔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2002, pp.60-76.

申龍澈, 『統一新羅 石塔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6, pp.141-162.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0, pp.253-258.

_____, 『호남지역 석조미술사의 차별성과 그 안의 감성』, 『감성연구』5, 2012, pp.154-155.

嚴基杓, 『實相寺 片雲和尚 浮屠의 銘文과 樣式에 대한 고찰』, 『전북사학』49, 2016, pp.33-36.

윤덕향·이민석·고금님, 『용암리사지 發掘調査報告書』, 任實郡·全北大學校博物館, 1994, pp.165-175.

윤덕향, 『경복사지의 현황과 가람에 대한 추론』, 『보덕화상과 경복사지』, 전라문화연구소, 2003, pp.149-150.

李基白, 『新羅 景德王代 華嚴經 寫經 關與者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83, 1979, pp.126-140.

李蘭英, 『韓國 雙獅子石燈 樣式 研究 試論』, 『文化史學』17, 2002, pp.421-450.

이병도 역, 『삼국유사』, 양우당, 1988, p.239.

李順英, 『華嚴寺 四獅子三層石塔의 건립시기에 關한 考察』, 『文化史學』34, 2010, pp.65-82.

李智冠, 『光陽 玉龍寺 洞眞大師 寶雲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1』,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4, pp.406-439.

_____, 『光陽 玉龍寺 先覺國師 證聖慧燈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3』,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6, pp.421-448.

張忠植, 『統一新羅時代의 石燈』, 『考古美術』158·159, 1983, pp.61-77.

정동락, 『洪陟禪師의 南宗禪 전래와 현실대응』, 『新羅史學報』22, 2011, pp.331-371.

鄭明鎬, 『韓國石燈樣式』, 民族文化社, 1994, pp.164-185.

정병삼, 『8세기 신라 불교사상과 문화』, 『新羅文化』25, 2005, pp.189-207.

_____, 『신라 약사신앙의 성격-교리적 해석과 신앙활동-』, 『佛敎研究』39, 2013, pp.57-88.

정선여, 『新羅 下代 北宗禪의 동향』, 『新羅史學報』18, 2010, pp.69-103.

鄭濟奎, 『新羅 下代 法相宗의 性格과 그 變化』, 『史學志』25, 1992, pp.1-42.

曹凡煥, 『新羅 下代 禪僧과 王室』, 『新羅文化』26, 2005, pp.259-281.

진정환, 『진리의 빛 비로자나부처』, 국립경주박물관, 2007.

陳政煥, 『後百濟 佛敎美術의 特徵과 性格』, 『東岳美術史學』11, 2010, pp.167-168.

_____, 『任實 珍丘寺의 所屬 宗派 變化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40, 2013a, pp.93-98.

_____, 『統一新羅 鼓腹形石燈과 實相山門』, 『전북사학』42, 2013b, pp.73-106.

_____, 『高麗前期 佛敎石造美術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3c, pp.36-40, p.88.

진정환, 『실상사 승탑 조영으로 본 실상산문과 정권』, 『불교미술사학』23, 2017, pp.94-110.

_____, 『신라 하대 선종 미술의 모태, 실상산문의 불교미술품』, 『전북사학』53, 2018, pp.5-40.

_____, 『가람과 불교 조각 - 불교 조각』, 『통일신라고고학개론』, 진인진, 2019, pp.290-316.

_____, 『후백제 주도 세력의 변화와 그 영향』, 『新羅史學報』51, 2021, pp.64-68.

_____, 『後百濟의 百濟 繼承 象徵, 益山 王宮里 五層石塔』, 후백제학회 미륵사 개탑 1,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후백제와 익산』, 2022a, pp.65-88.

_____,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의 특징과 조성 배경』, 『전북사학』64, 2022b, pp.39-67.

崔柄憲, 『道詵의 生涯와 羅末麗初의 風水地理說』, 『韓國史研究』11, 1975, pp.101-146.

최선주, 『任實 中基寺 石造毗盧遮那佛坐像에 대한 고찰』, 『동원학술논문집』1, 1998, pp.145-153.

최연식,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 불교계』, 『불교학연구』12, 2005, pp.243-274.

崔仁善 외, 『光陽 玉龍寺址』Ⅰ-Ⅴ, 順天大學校博物館·光陽市, 1995-2009.

崔仁善, 『光陽 玉龍寺 先覺國師 道詵의 浮屠殿址와 石棺』, 『文化史學』6·7, 1997, pp.371-411.

崔仁杓, 『新羅下代 禪宗教團의 動向과 王室의 對應』, 『新羅文化』27, 2006, pp.75-109.

韓國佛敎研究院, 『金山寺』, 一志社, 1977, pp.65-87.

許亨旭, 『實相寺 百丈庵 석탑의 五方神像에 관한 고찰』, 『미술사연구』19, 2005, pp.3-27.

허형욱, 『근료노 도상에 관한 연구-법주사 석조인물상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4, 2006, pp.69-98.

_____, 『新羅 藥師信仰의 전개양상과 그 특징』, 『신라문화』59, 2021, pp.419-447.

許興植 編著, 『韓國金石全文-古代』, 亞細亞文化社, 1984, p.228, pp.246-256.

許興植,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90, pp.218-222.

황호균,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사찰문화재 유물과 문헌의 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pp.135-171.

부록

APPENDIX

-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과 삼층석탑 관련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 일제강점기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사진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과 삼층석탑 관련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생산·보관 하던 문서이다. 여기에는 조선총독부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문서를 비롯하여 문화재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각종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단순히 소장품을 관리·전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재 관련 정책과 행정을 총괄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는 일제강점기 문화재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1차 자료로 중요하다(오영찬 2019).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에는 고적조사와 관련된 중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사 대상의 선정부터 조사자·조사 과정·출토품 등 유적 관련 기본 정보와 사진, 도면 그리고 역사적 의의까지 유적 조사 전반에 대한 당시 조사자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 유물 정리, 복제, 수리 등 현장 조사 이후 유물의 활용과 보존 상태 등도 확인 가능하다.

본 보고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및 삼층석탑과 관련된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를 정리하였다.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는 내용에 따라 진열, 보존, 고적조사 등 11개의 항목으로 분류되며, 문서철(Series)-문건(File)-문서(Item)의 수직적 단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문건’은 기본 업무에 따라 문서를 모아놓은 단위로, 고적조사 관련 주요 업무를 파악하는 기본단위가 된다. 이 보

고서에서는 석등 및 석탑 관련 문서를 문서철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 문건의 원본과 해석을 수록하였다. 문서의 이미지는 문서의 서자 방향에 맞추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배치하였다. 또 명확히 판독되지 않는 글자는 검은색 원(●)으로 표시하였다.

표 1.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과 삼층석탑 관련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목록

연번	문서철 명	문건 명	문서 명	생산연도
1	쇼와[昭和] 5~7년도 복명서	전라남도 광양군 기타 고적유물 조사 보고서	① 보고서	106쪽
			② 일기	108쪽
			③ 중흥산성 삼층탑	112쪽
			④ 중흥산성 내 쌍사석등롱	113쪽
2	고적조사위원회 -제31회~제36회	1) 제34회 고적조사위원회	① 제34회 고적조사위원회 건 사伺	114쪽
			② 회의	114쪽
			③ 의안-석탑 및 석등 등록 건	117쪽
			④ 제199호 중흥산성 삼층석탑	118쪽
			⑤ 제200호 중흥산성 쌍사석등롱	119쪽
			⑥ 유물 발견신고 건	120쪽
			⑦ [도면]	122쪽
			⑧ 유물 발견신고 건	122쪽
		2) 제35회 고적조사위원회	① 제35회 고적조사위원회 회의록	124쪽
			② 제35회 고적조사위원회 의안	125쪽
3	쇼와[昭和] 5~6년도 진열물품 청구서	중흥산성 쌍사석등 외	① 물품 청구서	126쪽
			② 목록	127쪽
4	각 도 소재 고적 용지 조사 관계 보물고적 대장	전라남도 소재 고적 및 유물 지정 대장	제200호 중흥산성 쌍사석등	128쪽
5	조선총독부 보물 지정 대장-사지寺址別	전라남도 광양군 중흥산성 삼층석탑에 관한 건	제183호 중흥산성 삼층석탑	130쪽
6	다이쇼[大正] 11년도 이후 진열물품 관계	박물관 진열품 건립 및 이건 공사	-	131쪽
7	보물고적 대장용 재료	1) 국유 석탑 및 석등에 관한 건	-	132쪽
		2) 유물 보관에 관한 건	-	134쪽
		3) 유물대장 등록사항 변경 건	-	136쪽

1. 쇼와[昭和] 5~7년도 복명서

[문건] 전라남도 광양군 기타 고적유물 조사 보고서

① 보고서

報告書
全羅南道の地方で石塔、墓塔、石燈籠等が賣買せられ富者の庭内に置かれ或は海を越へて内地に搬出され長きには千有餘年を遺存せる國寶的古塔を顛倒破壊し内部に收藏せられぬ遺寶を盗取し賣却する者ありとの風聞を度々耳にし其等の遺物と思はれるものを兩三回見た事もある
昨年秋頃大邱の人の武田舎から石塔と石燈籠とを買った大邱に運搬してし宜しいとの事一所在地と賣買の理由を問へば 全羅南道光陽郡玉龍面で普通學校の後援會が基本財産を作る目的で中興山域内に在る三層石塔と石燈籠とを賣却した 其の田舎の山の中に古代の遺物を置いた處で保護が出来ない大邱に移轉して庭内に置きたいと云ふ希望であった その賣買を促したといふ石塔等は國有の面共有り或は私有不明である十餘年前の總督府山林課調では國有地となつてゐる現今の土地所有者は遺物の所有者は 仮りに賣買が正當として遺物の遺移轉は遺蹟地の破壞にたる遺物遺蹟の價値に就て調査する事ある早く臨地調査をする必要がある然し事務の都合で出張調査をする達が無い一月

①-나

報告書
の休暇中にとの話とあつたがそれと差問があつて實行出来ず三月になつて漸く實行する運びとなつた同行三人藤田古蹟調査委員洪賜託小川技子折角を依する以上古蹟遺物の視察及遺物登錄候補者調査並に寺寶調査の一小部を以て實行したいと云ふ考で予定日數二週間出發三月十六日と決定した處に藤田委員は出發に際し急用起り出張不可能となる止む無く洪賜託及小川技子兩名にて出張調査に従事した以降は其調査記である
外に日記、地圖、字彙、實測圖を添附して

①-가

報告書
昭和六年三月二十日
洪賜託
技子
小川技子
學務局長殿

①-라

報告書
の休暇中にとの話とあつたがそれと差問があつて實行出来ず三月になつて漸く實行する運びとなつた同行三人藤田古蹟調査委員洪賜託小川技子折角を依する以上古蹟遺物の視察及遺物登錄候補者調査並に寺寶調査の一小部を以て實行したいと云ふ考で予定日數二週間出發三月十六日と決定した處に藤田委員は出發に際し急用起り出張不可能となる止む無く洪賜託及小川技子兩名にて出張調査に従事した以降は其調査記である
外に日記、地圖、字彙、實測圖を添附して

①-다

보고서

전라남북도 지방에서 석탑·묘탑·석등롱 등이 매매되어 부자집 마당에 장식되거나 바다를 건너 내지에 반출되고, 심지어는 천 년 이상이 된 국보급 고탑을 무너뜨려 파괴하여 내부에 수장된 유보를 훔쳐서 매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자주 들었다. 그런 유물로 생각되는 것을 두세 번 본 적도 있다.

작년 가을경에 대구 사람이 어느 시골에서 석탑과 석등롱을 사들였다. 대구에 운반해도 되는지, 소재지와 매매 이유를 물어보니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에서 보통학교 후원회가 기본 재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흥산성에 있는 삼층석탑과 석등롱을 매각했다. 이런 시골 산속에 고대 유물을 놓아두어도 보호할 수 없으므로 대구에 옮겨 와서 마당에 두고 싶다는 희망이었다. 매매되었다고 하는 석탑 등은 국유인지 면 공유인지 혹은 사유인지 불분명하다. 십여 년 전의 총독부 산림과 조사에서는 국유지가 되어 있다. 지금 토지 소유자는 유물의 소유자는 만약 매매가 정당하더라도¹ 유물의 이전은 유적지의 파괴와 연결된다. 유물유적의 가치에 관해서도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빨리 임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무적 사정으로 출장하여 조사할 틈이 없었다. 1월의 휴가 중에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그것도 지장이 생겨서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3월이 되어 겨우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동행 3명은 후지타 고적조사위원, 홍 촉탁, 오가와 기수였다. 기왕에 출장하는 이상, 고적유물의 시찰과 유물 등록 후보의 조사, 그리고 사찰 보물의 조사도 부분적으로나마 실시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정 일수를 2주일, 출발을 3월 16일로 결정했다. 그러나 후지타 위원은 출발하기 직전에 급한 일이 생겨 출장할 수 없게 되었다. 부득이 홍 촉탁과 오가와 기사 2명으로 출장 조사에 종사했다. 다음은 그 조사 기록이다.

그 외에 일기, 지도, 사진, 실측 도면을 첨부하여 보고드린다.

쇼와 6(1931)년 5월 20일

촉탁 홍석모

기수 오가와 게이키치

학무국장 앞

1 원문에 문제가 있어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문맥으로 판단하면 “지금 토지와 유물 소유자의 매매가 정당하더라도”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② 일기

昭和六年三月十六日 晴
夜中時半京城駅発列車で全羅南道光州に向ふ
三月十七日 晴
午前十時光州駅着 道廳を訪問し桑原居
の東導下知事官舎の庭内にある石燈籠
を見更に邑東瑞坊面東溪里の傾斜せ
る五重塔の撮影をなし帰途邑内の鉄件
像を見る
三月十八日 晴
朝光州発列車で出發和順寶城を経て午後
二時順天着郡廳を訪問し南門外なる石
燈籠と視る自動車で光陽邑に向ふ光陽
て光陽旅館に停る
三月十九日 晴
光陽邑と出發し北方二里庵なる王龍寺址の
調査となす 高麗初期の墓塔一基遺存せり
二三年前迄は洞眞大師の墓碑とあつたが破
壊して今無し されども尚北方約二十町な
る松川寺址を訪ひ僧大將梅隱長老の碑
一基椿樹の下に建てたるのみ寺址は今田
圃と爲りて賣る如し
三月二十日 晴

②-나

朝八時王龍面々事務所と立ち中興山城に
登る勾配急なる少許登れば山麓の脊に
出るこれより稍々緩勾配の山道を進む事
數町で城門址に達す尚進めば山腹部の
平坦な處に出る田あり畚あり邑西測城
壁に接して寺址あり前面は小溪で北に
立を負いて南面より規模いさるる遊園の別
天地石垣あり石塔及石燈籠あり古瓦の破
片も散乱す 石塔は三層で新羅末期名作
燈籠は双獅造りの逸品共に國寶の價値
充ちたり 撮影をなし實測をなして山を
下る

②-가

夜王龍警察官駐在所を訪問し中興山城を廢
塔賣々の一件を聞く 昭和五年八月頃王龍
普通學校後援會が基本金造成の爲山
城の石塔及石燈の賣却の方を王龍面雲
坪里下良安なる者に依頼す下は奔走
の結果釜山府内氏名不詳の買受人二名
と伴ひ來て見合せしむ而して金七百五十圓
で賣買の約束成立す 學校後援會の方
では百圓位なりは賣れるであらうと考へて
居た處非常に高價な爲驚いて郡當局
に相談せしに遺物の賣買は古蹟遺物保
存規則により不可なりとの指示を受けた

②-라

朝八時王龍面々事務所と立ち中興山城に
登る勾配急なる少許登れば山麓の脊に
出るこれより稍々緩勾配の山道を進む事
數町で城門址に達す尚進めば山腹部の
平坦な處に出る田あり畚あり邑西測城
壁に接して寺址あり前面は小溪で北に
立を負いて南面より規模いさるる遊園の別
天地石垣あり石塔及石燈籠あり古瓦の破
片も散乱す 石塔は三層で新羅末期名作
燈籠は双獅造りの逸品共に國寶の價値
充ちたり 撮影をなし實測をなして山を
下る

②-다

쇼와 6(1931)년 3월 16일 맑음

밤 10시 반 경성역 출발 열차로 전라남도 광주로 향했다.

3월 17일 맑음

오전 10시 광주역 도착. 도청을 방문하여 구와하라 속의 안내로 지사 관사 마당에 있는 석등롱을 보고, 또한 읍 동쪽 단방면 동계리에서 기울어진 5층탑을 촬영했다. 돌아가는 길에 읍내 철불상을 보았다.

3월 18일 맑음

아침 광주를 열차로 출발. 화순, 보성을 거쳐 오후 2시 순천에 도착. 군청을 방문하여 남문 밖에 있는 석등롱을 보았다. 자동차로 광양읍으로 향했다. 광양 3시 반 도착. 바로 군청을 방문하여 옥룡면 옥룡사지 및 중흥산성 폐사지에 관한 조사와 의논을 하고 광양여관에 들어갔다.

3월 19일 맑음

광양읍을 출발하여 북쪽 2리 이상 떨어진 옥룡사지를 조사했다. 고려 초기의 묘탑 하나가 남아 있다. 2·3년 전까지는 통진대사의 묘비도 있었으나 파괴되어 지금은 없다. 거기서부터 더 북쪽 약 20정이 떨어진 송천사지를 방문했다. 승대장 회은 장로의 비가 하나 참죽나무 밑에 세워져 있을 뿐 절터는 지금 전답으로 변하여 남아 있는 것은 없다.

3월 20일 맑음

아침 8시 옥룡면사무소를 출발하여 중흥산성에 올라갔다. 경사가 가파르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산봉우리 반대편이 나온다. 거기서 조금 완만하게 경사진 산길을 나아가면 성문지에 도착한다. 더 나가면 산꼭대기의 평탄한 곳이 나온다. 논도 있고 밭도 있다. 그 서쪽 성벽에 접하여 절터가 있다. 앞면은 작은 계곡이 있고 북쪽에 언덕이 있으며 남쪽을 향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조용하고 깊은 별천지이다. 돌담이 있다. 석탑과 석등롱이 있다. 오래된 기와 파편도 흩어져 있다. 석탑은 삼층으로 신라 말기의 명작이다. 등롱은 쌍사자로 구성된 일품이다. 둘 다 국보의 가치가 충분하다. 촬영하고 실측을 마친 후 산에서 내려왔다.

밤에 옥룡 경찰관 주재소를 방문하여 중흥산성 폐탑 매매에 관한 건을 들었다. 쇼와 5(1930)년 8월경에 옥룡보통학교 후원회가 기본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성 내의 석탑과 석등의 매매를 옥룡면 운평리 변정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뢰했다. 변이 분주한 결과, 부산부의 성명 미상의 매수인 2명과 함께 와서 견본見分시켰다. 그리고 750엔으로 매매의 약속이 성립되었다. 학교 후원회에서는 100엔 정도라면 팔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비싼 가격에 놀라서 군 당국에 상의했다. 그러나 유물의 매매는 고적유물보존규칙에 의하여 불가능하다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토지 소유자는 본인의 땅에 있는 것을 한마디도 상의 없이 무단으로 매매하는 것이 못마땅한 일이라고 해서 경찰관 주재소에 유물 발견 신고를 제출했다. 그것이 쇼와 5(1930)년 9월 17일이었다. 경찰은 현지에서 시찰하고 보고서 안을 가지고 광양경찰서에 보고했다. 다음날 밤에 누군가가 와서 해당 석탑과 석등을 파괴하고 도망갔다. 이처럼 탑을 둘러싸고 여러모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이상이 옥룡면 경찰관에게 들은 개요이다.

부산의 매수인은 대구의 이치다 모某에게 전매하는 약속을 했는데, 이치다 모某로부터 후지타 촉탁에게 상의가 있어 이번 출장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一方土地の所有者は自らの土地に在る物を一言の相談もなく無断賣却は不都合となし
警察署官廳所に遺物發見届と提出した
三九が昭和五年九月十七日であつた警察官
は臨地の視察となく案を具して光湯警察
署署に報告としたり馬翌翌何者か来りて
該石塔なる燈と破壊して逃ぐ かく塔と
續りて色々の問題が連起してある 此れが
玉龍面警察署官より聞き得た大要である。
釜山の買受人は大邱の市田島に轉賣
の約束となし 市田島より藤田嘉託に相
談ありて 此度の毛浪調査となつたのである。

②-마

三月二十一日 晴
今日は春李皇霊祭なるに朝から中興山城に
登り塔燈の實測とけし撮影となして
調査を終る

三月二十一日 晴
玉龍面事務所に禮と述べて徒歩光陽邑
に向ふ郡廳警察署に挨拶して午後一時の
自動車で順天にまで南門外の石燈の實測と
けし 宿につく

三月二十三日 晴見出し
午前中八馬碑及南門外の石燈の撮影と
けし 午後五時の自動車で求禮に向ふ途中

②-바

自動車に故障の起る事二回日没に漸く
求禮邑に着 三九が時に自動車と貸して
華嚴寺に向ふ邑とくる東北二里智異山
麓の巨刹さすが千年の古寺伽藍は寂びて
静かばり 寺僧とあつて寺内に施す

三月二十四日 晴
大槌郡覺皇殿其他の視察撮影とけす夜
洪陽託託召電あり帰庵せらる

三月二十五日 半晴半曇
境内市寺内渡庵九層庵等の視察とけし
一部の實測とけす

三月二十六日 曇後雨

②-사

覺皇殿の測圖とけす 風強く寒さ如はり松葉
持つきの自由を失ひますが智異山は寒とい

三月二十七日 晴
全羅南道廳財政部長一行の末寺あり
撮影測圖とけし 夕方寺を辭して求禮
邑に出づ

三月二十八日 晴
郡廳を訪問し 求禮と出発谷城を経て南
原にまで 朱川面龍潭寺を見て南原邑
に宿泊

三月二十九日 晴
南原發全休を経て京城に停着三十日午前

九時これで旅行を終った

②-자

②-아

3월 21일 맑음

오늘은 춘계 황령제이지만 아침부터 중흥산성에 올라가 탑·등의 실측과 촬영을 실시하고 조사를 마쳤다.

3월 22일 맑음

옥룡면사무소에 사례하고 도보로 광양읍으로 향했다. 군청과 경찰서에 인사하고 오후 1시의 자동차로 순천으로 나와 남문 밖 석등의 실측을 실시하고 숙소에 들어왔다.

3월 23일 맑음, 바람이 센

오전 중에 팔마비와 남문 밖 석등의 촬영을 실시하고 오후 출발하는 자동차로 구례로 향했다. 가는 길에 자동차가 두 번 고장 나서 해가 질 때 겨우 구례읍에 도착했다. 거기서 자동차를 특별히 대여하여 화엄사로 향했다. 읍에서 동북쪽 2리 떨어진 지리산 기슭의 거찰이다. 과연 천년의 고찰이다. 가람은 한가하고 조용하다. 사승에게 신세를 지고 사방에서 잤다.

3월 24일 맑음

대웅전, 각황전 기타의 시찰과 촬영을 실시했다. 밤에 흥 촉탁 앞으로 돌아오라는 전보가 와서 총독부에 돌아갔다.

3월 25일 맑은 뒤 흐림

경내 말사인 내원암, 구충암 등을 시찰하고 일부를 실측했다.

3월 26일 마지막 비

각황전의 측도를 실시했다. 바람이 세고 추위도 더하여 연필을 잡는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과연 지리산은 춥다.

3월 27일 맑음

전라남도청 재무부장 일행이 절에 왔다. 촬영과 측도를 실시하고 저녁에 절을 떠나 구례읍에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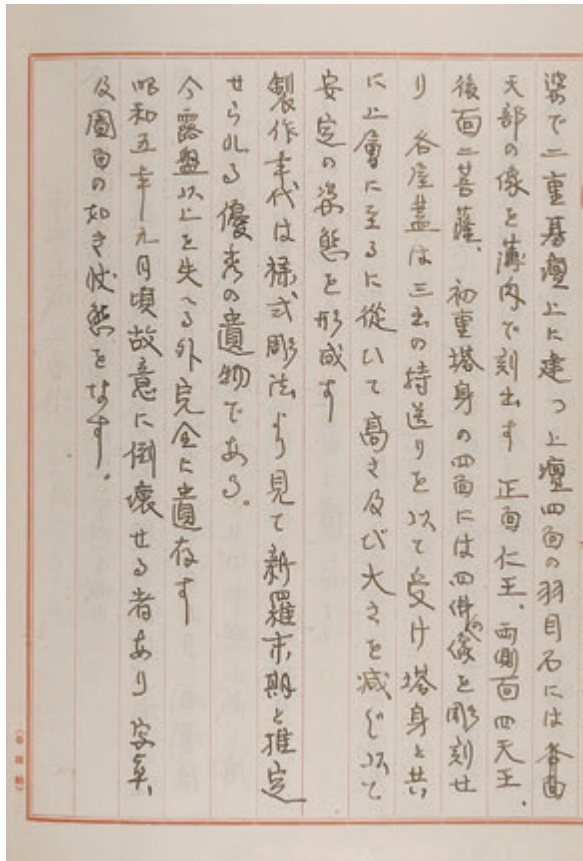
3월 28일 맑음

군청을 방문하고 구례를 출발하여 곡성을 거쳐 남원에 나왔다. 주천면 용담사를 보고 남원읍에서 숙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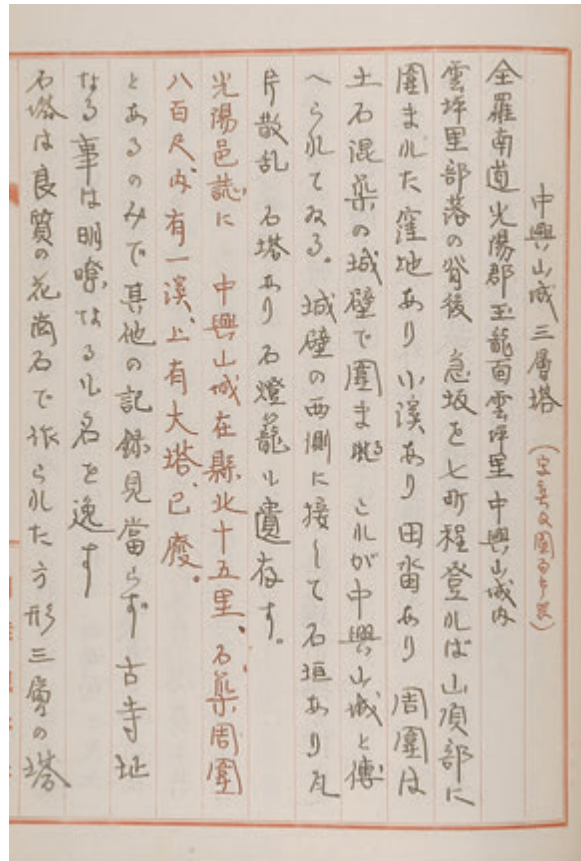
3월 29일 맑음

남원을 출발하여 전주를 거쳐 경성에 돌아왔다. 30일 오전 9시. 이것으로 여행을 마쳤다.

③ 중흥산성 삼층탑



③-나



③-가

중흥산성 삼층탑(사진과 도면 참조)²⁾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운평리 중흥산성 내

운평리 마을 배후에 있는 가파른 길을 7정 정도 올라가면 산꼭대기에 둘러싸인 움푹 팬 땅이 있다. 작은 계곡이 있다. 전답이 있다. 주위는 흙과 돌로 구축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것이 중흥산성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벽 서쪽에 접하여 돌담이 있다. 기와 편이 흩어져 있다. 석탑이 있다. 석등롱도 남아 있다.

광양읍지에 “中興山城在縣北十五里。石築周圍八百尺，內有一溪，上有大塔，已廢”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며 기타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오래된 절터임이 명백하지만 이름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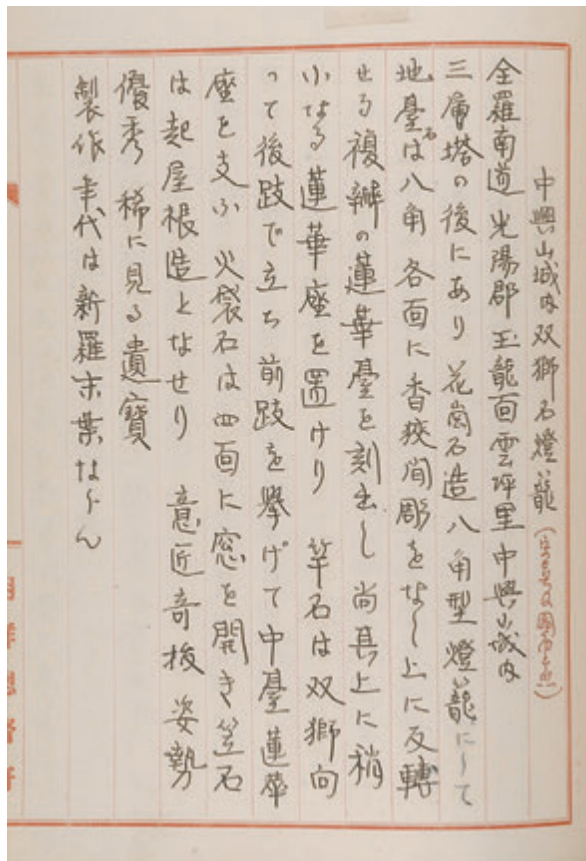
석탑은 양질의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방형 삼층탑이며 이층 기단 위에 세워진 상단 네 면의 면석에는 천부상을 얇게 양각으로 조각했다. 전면 인왕상, 양 측면 사천왕상, 뒷면 보살상 2구, 1층 탑신의 네 면에는 사불상을 조각했다. 각 옥개에는 3단의 층단식 받침턱이 받치고 있으며 탑신과 함께 상층에 갈수록 높이와 크기가 줄어들어 안정감이 있는 모습이다.

제작 연대는 양식과 조각 방법으로 보아 신라 말기로 추정되는 우수한 유물이다.

지금 노반 이상을 잃었을 뿐, 완전히 남아 있다.

쇼와 5(1930)년 9월경 고의로 파괴한 사람이 있으며 첨부한 사진과 도면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다.

④ 중흥산성 내 쌍사석등롱



중흥산성 내 쌍사석등롱(사진과 도면 참조)³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운평리 중흥산성 내

삼층탑 뒤편에 있다. 화강석으로 된 팔각형 등롱이며 지대석은 팔각으로 각 면에 안상을 새겼다. 그 위에 복변의 복련 연화대좌를 조각하고 또 그 위에 다소 작은 연화대좌를 놓았다. 간석은 쌍사자가 마주 보면서 뒷다리로 서고 앞다리를 들어서 중대 연화대좌를 받치고 있다. 화대석은 4면에 창을 열고 갓돌은 지붕구조[起屋根造]로 되어 있다. 의장이 기발하여 자세가 뛰어난 보기 드문 보물이다. 제작 연대는 신라 말기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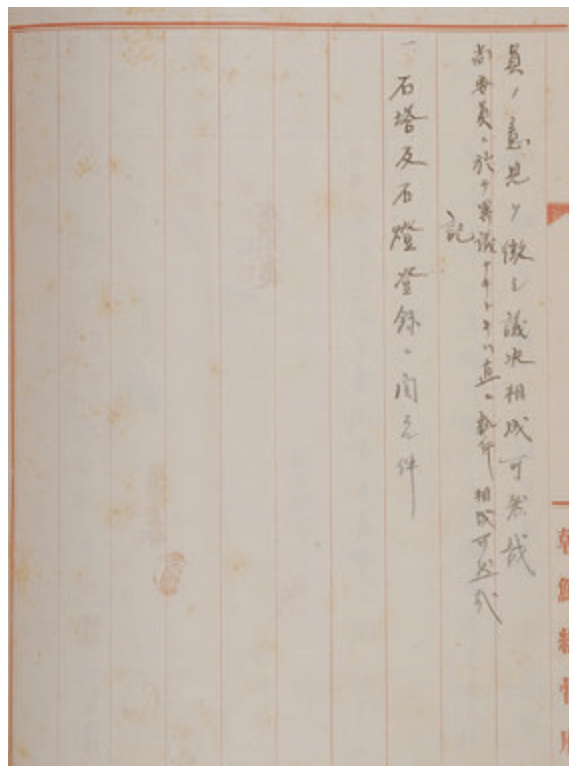
2 사진과 도면은 문서에 남아 있지 않다.

3 사진과 도면은 문서에 남아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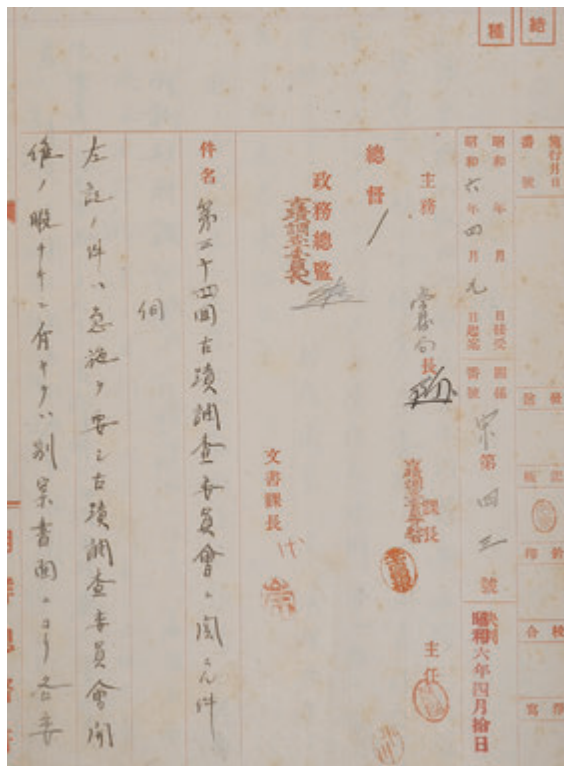
2. 고적조사위원회 - 제31회~제36회

[문건 1] 제34회 고적조사위원회

① 제34회 고적조사위원회 건 사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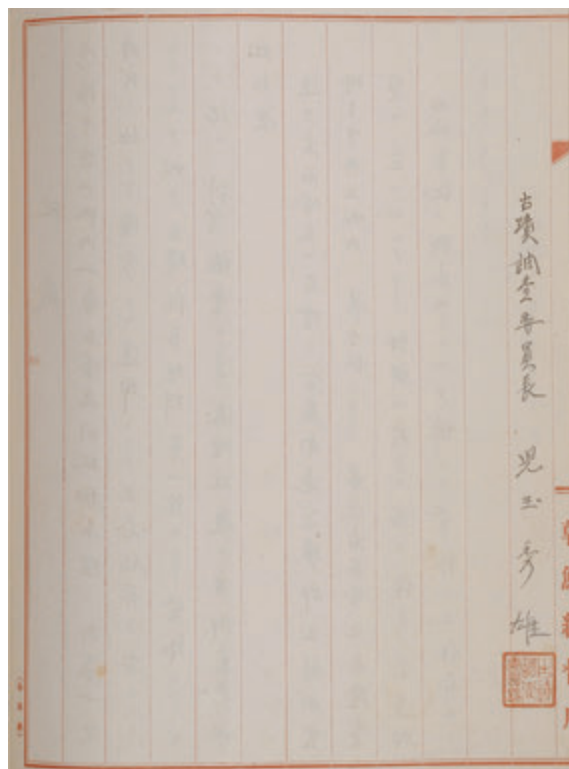


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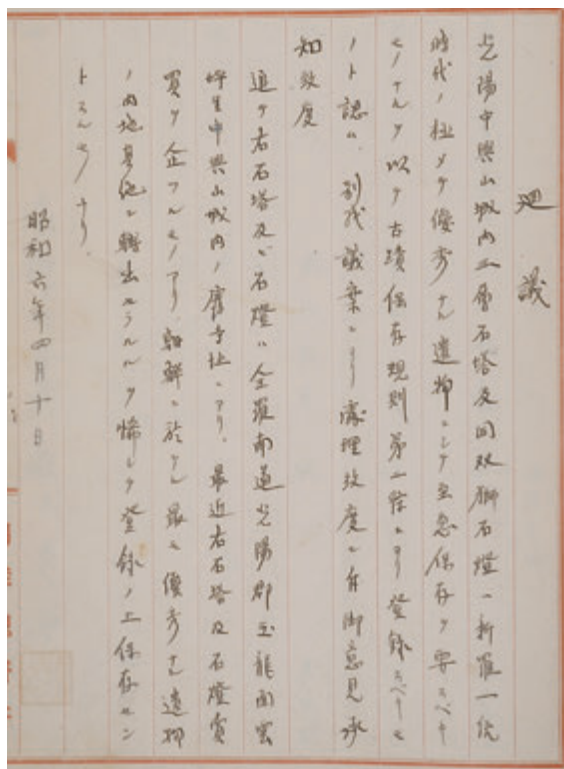


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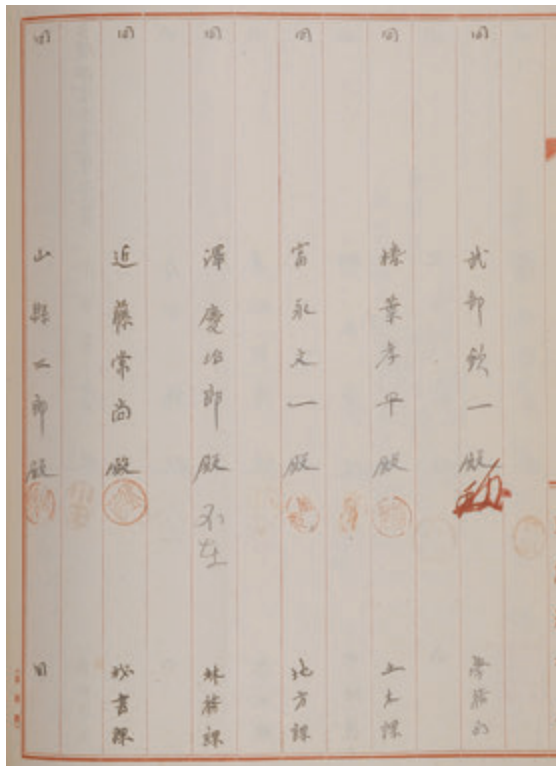
②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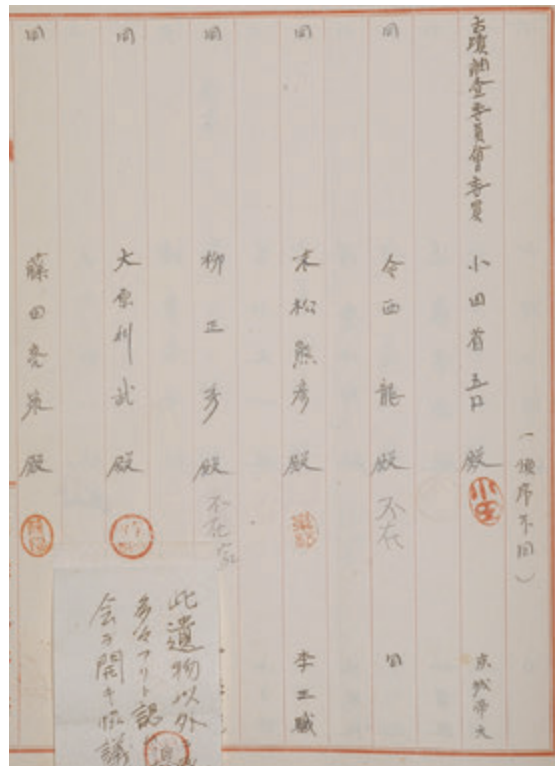
②-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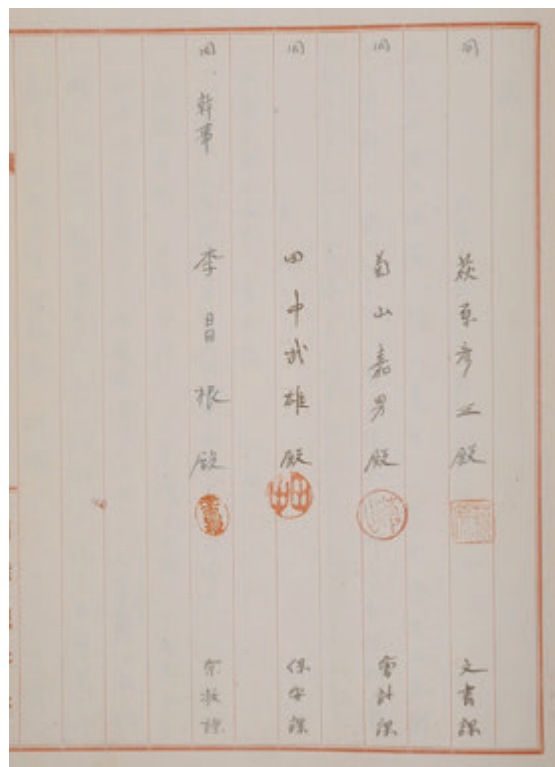
②-가



②-라



②-다



②-마

① 제34회 고적조사위원회 건 사伺

쇼와 6(1931)년 4월 9일 종 제43호 결판 쇼와 6년 4월 10일

학무국장 다케베 긴이치[武部欽一] 고적조사위원회 간사 이창근

정무총감, 고적조사위원장 고다마 히데오[児玉秀雄]

제34회 고적조사위원회에 관한 건

검토사항

표기의 건은 급히 실사가 요구되는데 고적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이 없어서 별지 서면으로 각 위원의 의견을 모아서 의결하고자 한다. 또한 위원 사이에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는 바로 집행하고자 한다.

다음

1. 석탑 및 석등 등록에 관한 건

② 회의

광양 중흥산성 내 삼층석탑과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의 매우 뛰어난 유물로 급히 보존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고적보존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인정된다. 별지 의안에 따라 처리하고자 의견을 알고자 한다.

추가로 이 석탑과 석등은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운평리 중흥산성 내 폐사지에 있다. 최근 이 석탑과 석등의 매매를 위하여 소재지의 매매를 도모하는 사람이 있다.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유물이 내지(일본 본토) 기타에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등록하여 보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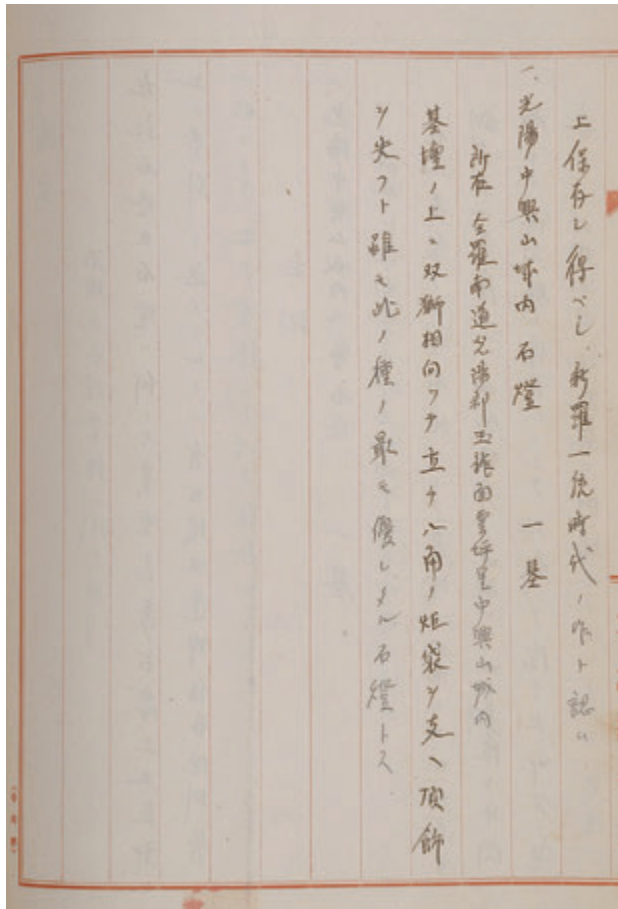
쇼와 6(1931)년 4월 10일

고적조사위원장 고다마 히데오[児玉秀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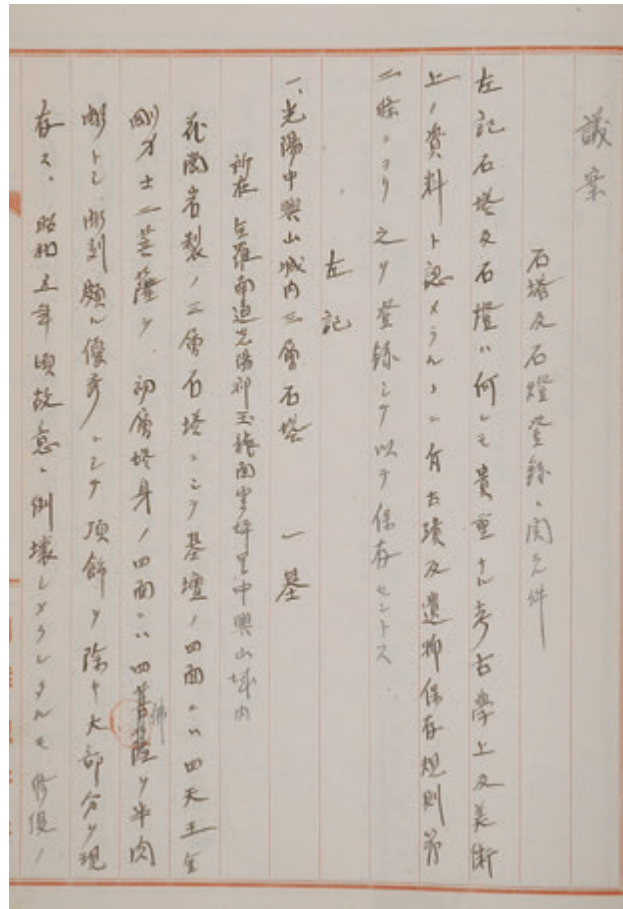
(순서부동)

고적조사위원회 위원	오다 쇼고[小田省吾] 님	경성제대
위와 같음	이마니시 류[今西龍] 님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스에마쓰 무마히코[末松熊彦] 님	이왕직
위와 같음	유정수[柳正秀] 님	중추원
위와 같음	오하라 도시타케[大原利武] 님	중추원
위와 같음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님	
위와 같음	다케베 긴이치[武部欽一] 님	
위와 같음	신바 고헤이[榎葉孝平] 님	토목과
위와 같음	도미나가 후미카즈[富永文一] 님	지방과
위와 같음	사와 게이지로[澤慶治郎] 님	임무과
위와 같음	곤도 쓰네타카[近藤常尙] 님	비서과
위와 같음	야마가타 사부로[山縣三郎] 님	비서과
위와 같음	하기와라 히코조[萩原彦三] 님	문서과
위와 같음	기쿠야마 요시오[菊山嘉男] 님	회계과
위와 같음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 님	보안과
위와 같음	이창근[李昌根] 님	총무과

③ 의안-석탑 및 석등 등록 건



③-나



③-가

의안-석탑 및 석등 등록 건

표기 석탑과 석등은 둘 다 고고학적으로도 미술적으로도 귀중한 자료로 인정되어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 제2조에 따라 이것들을 등록하여 보존하고자 한다.

다음

1. 광양 중흥산성 내 삼층석탑 1기

소재: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운평리 중흥산성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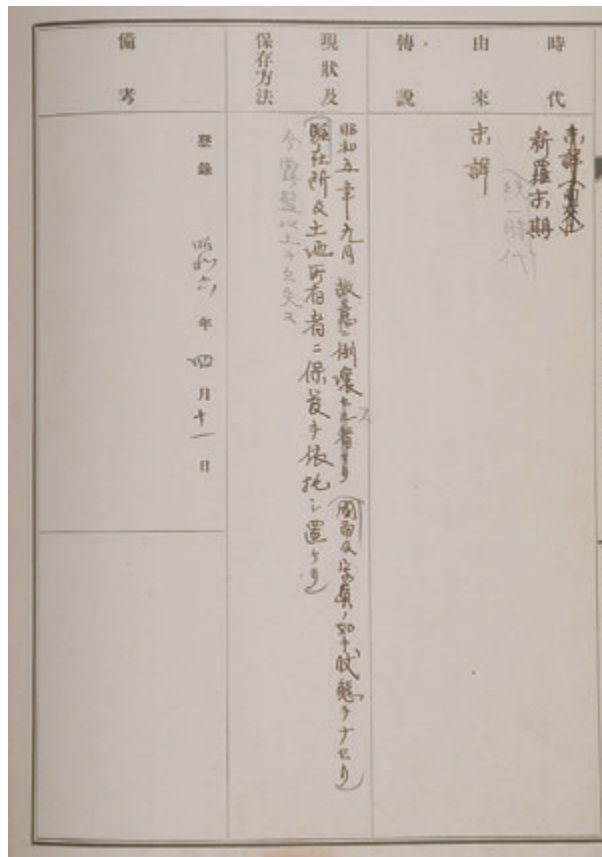
화강암으로 된 삼층석탑으로 기단 네 면에는 사천왕과 금강역사와 보살을, 1층 탑신의 네 면에는 사불을 반육조로 조각했는데, 조각이 매우 뛰어나고 정상부 장식을 제외하고 대부분 남아 있다. 쇼와 5(1930)년경 고의로 쓰러뜨리는 일이 생겼으니 수복하고 보존해야 한다.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인정된다.

1. 광양 중흥산성 내 석등 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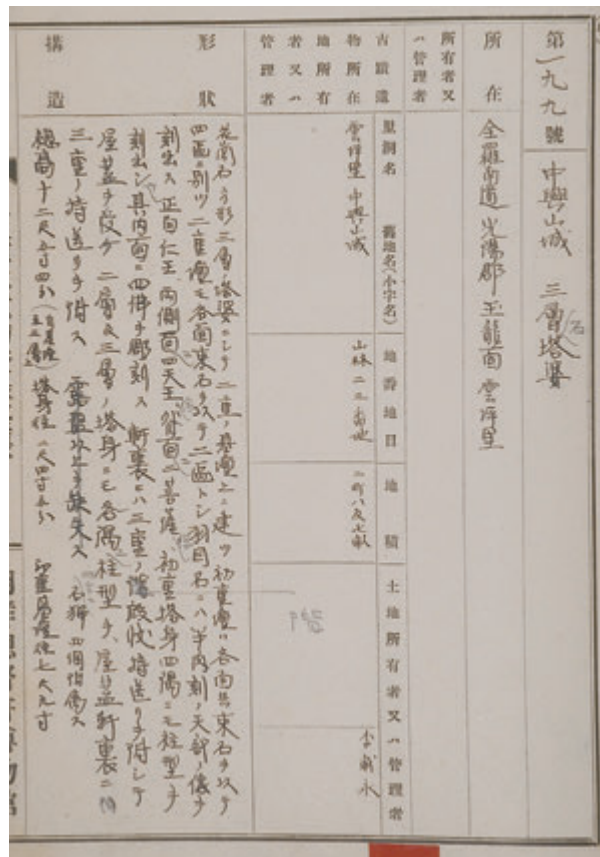
소재: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운평리 중흥산성 내

기단 위에 쌍사자가 마주 보고 서서 팔각의 화대를 받치고 있다. 정상부 장식이 상실되었으나 이러한 종류의 유물 중 가장 뛰어난 석등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제199호 중흥산성 삼층석탑



④-나



④-가

제199호 중흥산성 삼층석탑

- 소재: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운평리
- 리동명: 운평리 중흥산성
- 지번 지목: 산림 23번지
- 지적: 2정 8반 7묘
- 토지 소유자 혹은 관리자: 이재영
- 형상 구조: 화강석 방형 삼층석탑으로 이중 기단 위에 세워졌다. 1층 기단은 각 면 모두 속석(束石)(한 덩이 돌)으로 네 구역으로 나뉜다. 2층 기단도 각 면 한 덩이 돌이며 각 면마다 두 칸으로 나뉘어진 우묵석(羽目石)(분할면)에는 반육조의 천부상을 조각했다. 정면에 인왕, 양 측면에 사천왕상, 배면에 보살상, 1층 탑신 네 구석에도 기둥을 조각하여 그 안쪽에 4불상을 조각했다. 처마 밑에는 삼중의 층단식 받침턱을 붙이고 옥개석을 받쳤다. 2층 및 3층의 탑신에도 각 구석에 기둥을 옥개석 처마 밑에 삼중의 층단 받침을 붙였다. 노반 아상을 잃었다.⁴ 사방에 돌사자 4개가 부속되었다. 전체 높이 12척 5촌 4분(기단에서 삼층 끝까지), 탑신 경 2척 4촌 5분, 1층 기단 경 7척 9촌.
- 시대: 통일신라 말기
- 유래: 미상
- 현상 및 보존 방법: 쇼와 5년 9월 고의로 도괴시킨 사람이 있었다 했다. (도면 및 사진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주재소 및 토지 소유자에게 보관을 위탁해 놓았다.) 현재 노반 이상이 결실되었다.
- 비교: 등록 쇼와 6년 4월 11일

4 해당 부분이 삭제되었다.

時代	由來	傳説	現狀及 保存方法	備考
新羅市縣(堆土) <small>新羅市縣(堆土)</small>	未詳		昭和五年九月故意倒壊せし者あり <small>今五津七、八又入</small> (圖面又寫字、如、伏懸、ナ、ナ)	壁録 昭和六年四月十一日

第二〇〇號	中興山城 双獅石燈籠
所在	金羅南道 光陽郡 玉龍面 雲呼里
所有者又	
管理業者	
古蹟遺	異制名 舊地名(小字名)
物所在	雲呼里中興山城
地所有	山林 三畝地
管理業者	小字朝永

부록

光陽警保第二三五二號
昭和六年四月八日
朝鮮總督
金羅南道警察部長殿
遺物發見届出ニ関スル件
本籍、金羅南道光陽郡玉龍面雲坪里
任所、右公
農業 李 載 永
右者ヨリ首題ノ件届出アリタルニ付キ調
査ヲ遂ゲ左記ノ通り報告ス
記
一、名稱
遺物ニシテ石塔老基 燈籠老基
二、種類及形狀其他
燈籠及塔ハ何レモ石造ニシテ石塔ハ佛
像ノ彫刻アリ別紙添付圖面ノ形狀
ニシテ燈籠ハ高十六尺三寸巾四尺一寸ノ
方形ナリ石塔ハ高十五尺五寸巾二尺五寸
アリ附近ニ石造獸類型ノ破損セルモノ等
散在ス

⑥-나

三、所在地
金羅南道光陽郡玉龍面雲坪里山林中
四、所有者又ハ管理者ノ住所氏名若ハ名稱
前記發見届出人ニ同シ
五、現況
石塔燈籠共ニ老朽人々其他ニ因リ倒
壊セラレ原型ヲ止ムモノナラ散在ス
六、由來傳説等
距今一々三百年ノ昔求禮郡華嚴寺
ノ僧侶「道鏡」ナルモノ此地ニ寺ヲ建テ
中興寺ト稱シ當時建設シタルモノナリト

⑥-가

言フニ確然タル事判明セス
八、管理保存ノ狀況
昨年末該遺物ニ注目シ破片等ヲ持テ去ル
モノアリ所有者李載永ハ見張等ヲ爲シ散
逸スルヲ防ギツ、アリシガ近日夜陰ニ乘
シ遺物ヲ倒壞シ石塔中ノ遺物ヲ持去
リタルモノ如キ狀況ニアリ所有者李載永
ハ保存ノ困難ナルヲ感シ該土地遺物ヲ
大邱小倉政之助ニ賣却セントシワ、アリ
了

⑥-라

三、所在地
金羅南道光陽郡玉龍面雲坪里山林中
四、所有者又ハ管理者ノ住所氏名若ハ名稱
前記發見届出人ニ同シ
五、現況
石塔燈籠共ニ老朽人々其他ニ因リ倒
壊セラレ原型ヲ止ムモノナラ散在ス
六、由來傳説等
距今一々三百年ノ昔求禮郡華嚴寺
ノ僧侶「道鏡」ナルモノ此地ニ寺ヲ建テ
中興寺ト稱シ當時建設シタルモノナリト

⑥-다

광양경보 제2352호

쇼와 6(1931)년 4월 7일

광양경찰서장

조선총독 앞

전라남도 경찰부장 앞

유물 발견신고 건

본적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운평리

주소 위와 같음

농업 이재영

위 사람으로부터 표기의 건이 신고되어 조사를 마쳤으니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다음

1. 명칭: 유물로 석탑 1기와 등롱 1기
2. 종류 및 형상 기타: 등롱 및 탑은 둘 다 석조이며 석탑에는 불상이 조각되었다. 별지에 첨부한 도면과 같은 형상이며 등롱은 높이 6척 3촌, 폭 4척 1촌의 방형이다. 석탑은 높이 5척 5촌, 폭 2척 5촌이다. 부근에 석조 짐승형의 파손된 유물 등이 흩어져 있다.
3.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운평리 산림 중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성명 혹은 명칭: 앞서 기술한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과 같음
5. 현황: 석탑·석등은 둘 다 장작을 채집하는 인부, 기타 사람에 의하여 쓰러지고, 원형을 유지할 수 없는 채 흩어져 있다.
6. 유래 전설 등: 지금부터 1,300년 전, 구례군 화엄사의 승려 '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절을 지어 중흥사라고 칭했다. 이 유적은 당시 건설한 것이라고 전해지지만 확실한 사실은 알 수 없다.
7. 관리 보존 상황: 작년 말에 대상 유물에 주목하여 파편 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 소유자인 이재영은 감시인 등을 배치하여 유실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지난날 밤에 유물을 쓰러뜨리고 석탑 내 유물을 훔쳐 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일어났다. 소유자인 이재영은 보존의 어려움을 느껴 이 땅의 유물을 대구의 오구라 마사노스케⁵⁾에게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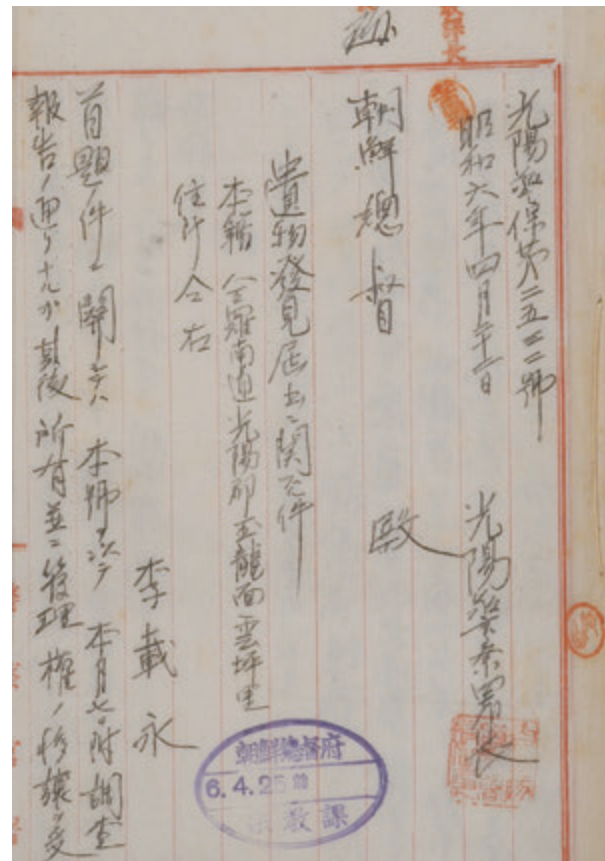
끝.

5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가 정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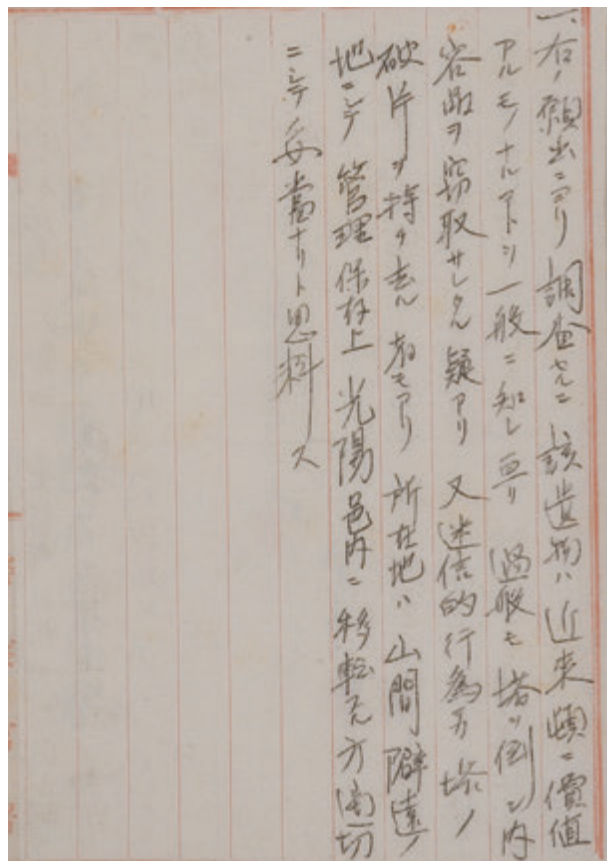
⑦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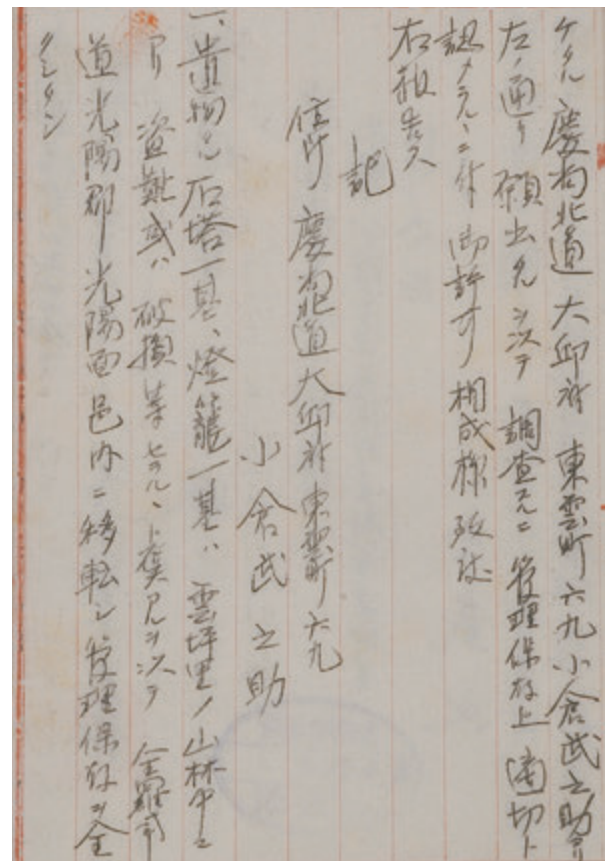
⑧ 유물 발견신고 건



⑧-가



⑧-다



⑧-나

광양경보 제2532호

쇼와 6(1931)년 4월 22일

광양경찰서장

조선총독 앞

유물 발견신고 건

본적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운평리

주소 위와 같음

이재영

표기의 건에 관해서는 이 문서번호로 4월 7일부 조사보고와 같지만 그 뒤에 소유 및 관리권 이양을 받은 경상북도 대구부 동문정 69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다음과 같이 요청을 전달해왔다. 이에 조사를 실시했는데, 관리·보존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허가해주시기 바란다.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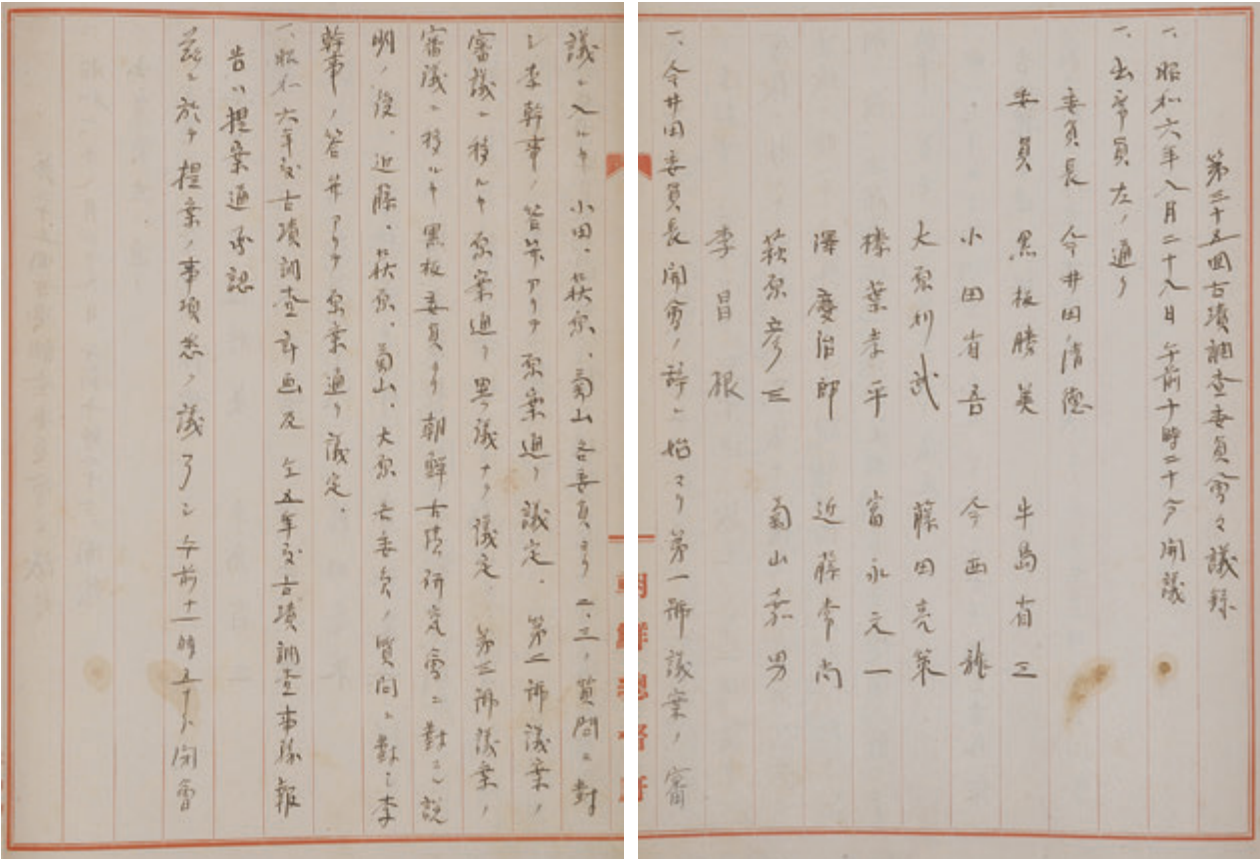
주소 경상북도 대구부 동문정 69

오구라 다케노스케

1. 유물인 석탑 1기, 등룡 1기는 운평리 산림 중에 있다. 도난 혹은 파손 등을 당할 우려가 있어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면 읍내에 이전하여 관리·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1. 이 요청에 따라 조사했는데, 해당 유물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최근 갑자기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지난번에도 탑을 쓰러뜨리고 안에 있는 물품이 도난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또한 미신적 행위인지 탑의 파편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 소재지는 산간의 벽지로 관리·보존을 위하여 광양읍내에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문건 2] 제35회 고적조사위원회

① 제35회 고적조사위원회 회의록



①-나

①-가

1. 쇼와 6(1931)년 8월 28일 오전 10시 20분 시작

1. 출석 위원은 다음과 같음

위원장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清徳]

위원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오다 쇼고[小田省吾]

오하라 도시타케[大原利武]

신바 고헤이[榊葉孝平]

사와 게이지로[澤慶治郎]

하기와라 히코조[萩原彦三]

이창근李昌根

우시지마 쇼조[牛島省三]

이마니시 류[今西龍]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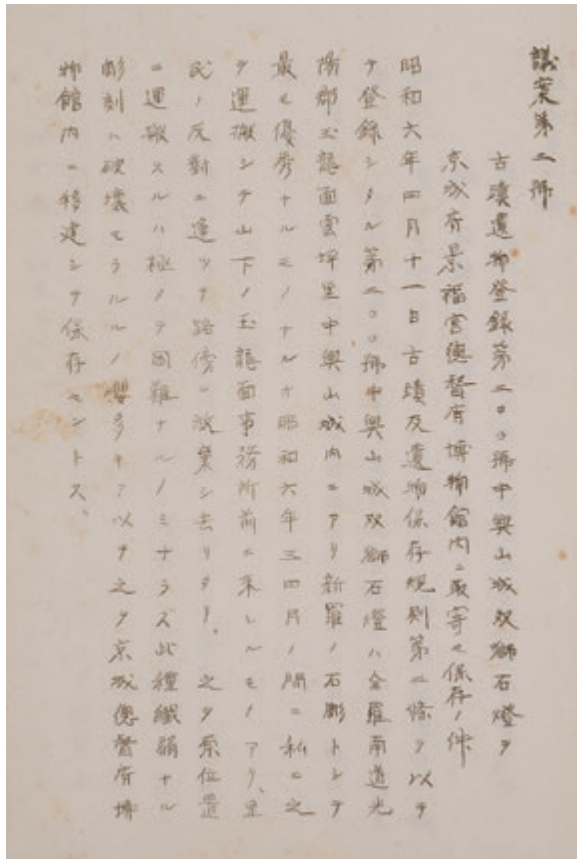
도미나가 후미카즈[富永文一]

곤도 쓰네타카[近藤常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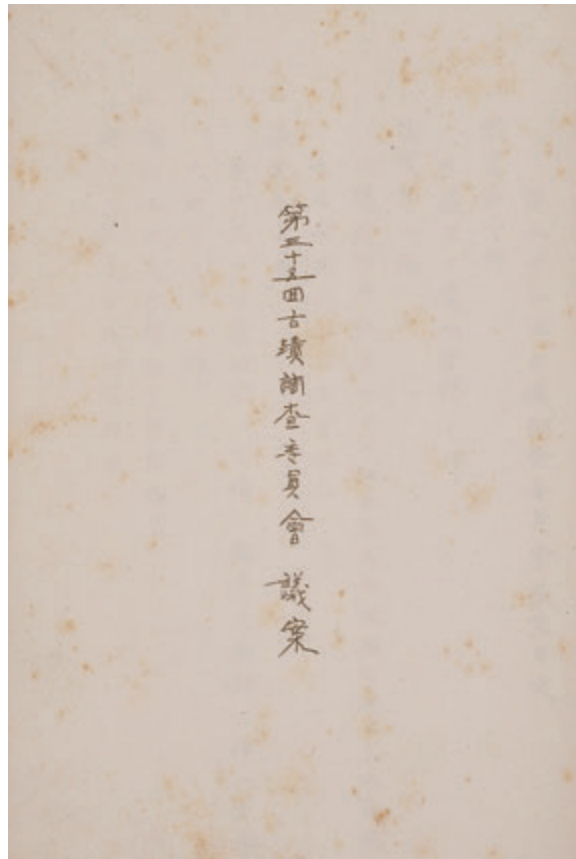
기쿠야마 요시오[菊山嘉男]
1. 이마이다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제1호 의안의 심의에 들어가자 오다, 하기와라, 기쿠야마 각 위원으로부터 받은 두세 개 질문에 대하여 이창근 간사가 답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제2호 의안의 심의로 옮기자 원안대로 반대 의견 없이 의결되었다. 제3호 의안의 심의로 옮기자 구로이타 위원이 조선고적연구회에 대하여 설명한 후 곤도, 하기와라, 기쿠야마, 오하라 각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창근 간사가 답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1. 쇼와 6년도 고적조사계획 및 쇼와 5년도 고적조사 사무보고는 제안대로 승인되었다.

이에 제안된 사항은 모두 의결되어 오전 11시 50분에 폐회되었다.

② 제35회 고적조사위원회 의안



②-나



②-가

의안 제2호-고적유물 등록 제200호 중흥산성 쌍사석등을 경성부 경복궁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 보존하는 건

쇼와 6(1931)년 4월 11일에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 제2조에 의하여 등록된 제200호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운평리 중흥산성에 있다. 신라 석조 조각물로서 가장 뛰어난 것이지만 쇼와 6년 3·4월 사이에 사적으로 이것을 운반하여 산 밑의 옥룡면사무소 앞에 옮긴 사람이 있다. 마을 사람의 반대에 봉착하여 길가에 방기되어 있다. 이것을 원위치에 운반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섬세한 조각이 파괴될 우려가 있어 경성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 세우고 보존하고자 한다.

3. 쇼와[昭和] 5~6년도 진열물품 청구서

[문건] 중흥산성 쌍사석등 외

① **물품 청구서**

所 要 期 日	大 正	年	月	日	部局課名	品名	数量	物品取扱主任
					部長			
					中興山城 双軒石燈外三台	右拂出ヲ命ス		
					金物出納帳	會計官吏	物品係	
					大正昭和七年正月拾日領收			
					出納簿登記済			
					記簿係			

(二品一集)

물품 청구서			
제호	물품청구서		
부국과명部局課名	부국과장部局課長	물품취급주임 ●●	
품명	수량	수용需用의 목적	
중흥산성 쌍사석등 외 3점			
위의 불출拂出을 명함			
물품출납명령관 이창근李昌根	물품회계관리 오가와[小川]	물품 담당(係)	
쇼와 7년 2월 10일 영수 ●●	다이쇼 년 월 일 출납부등기 완료	기부담당 ●●	
비목		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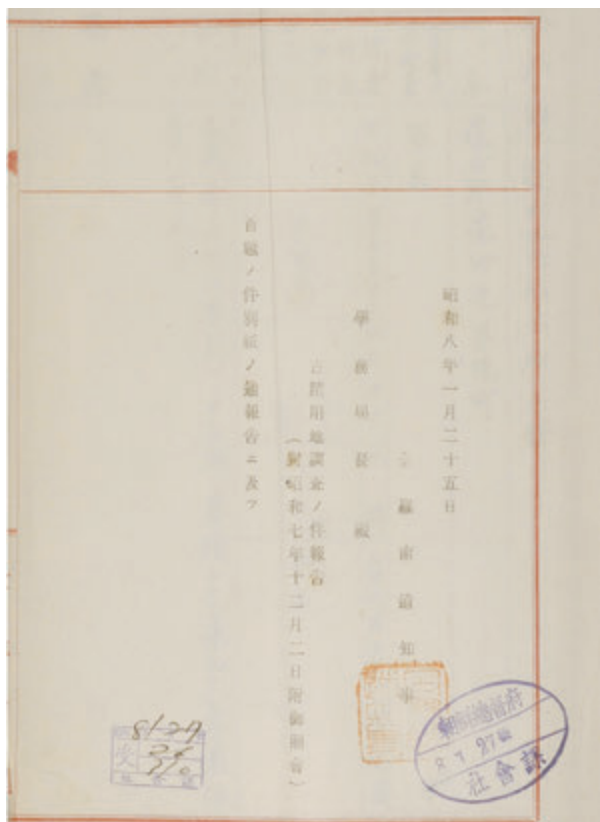
② 목록

自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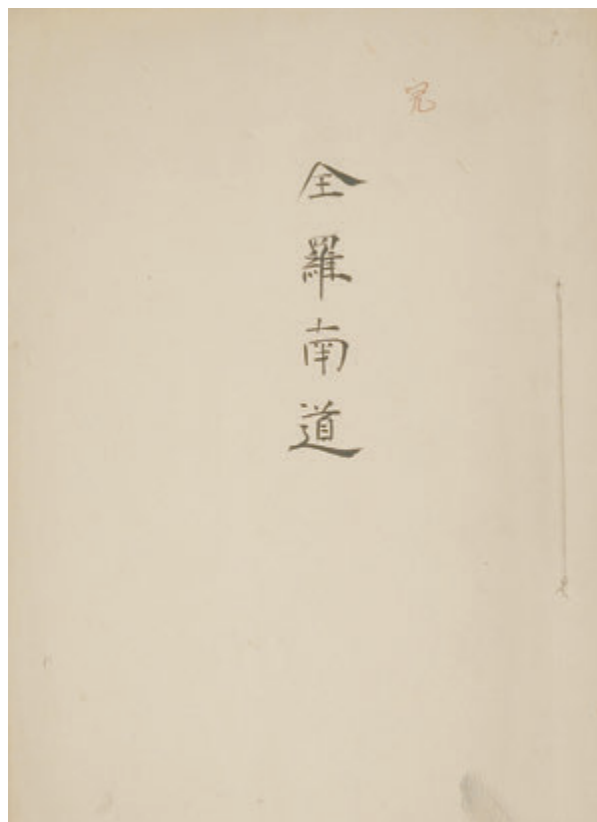
番	號	品	名	數	量	單	價	價	價	蒐	集	地	名	備	考
一	八	〇	四	中	興	山	城	石	燈	一	基				
一	八	〇	五	羅	州	石	燈	一	基						
一	八	〇	六	紫	川	橋		一	基						
一	八	〇	七	淨	境	寺	三	層	石	塔	一	基			

목록						
번호	품명	수량	평가		수집지명	비고
			단가	가격		
12,804	중흥산성 쌍사석등	1	1,000.00	1,000.00		
12,805	나주 석등	1	1,000.00	1,000.00		
12,806	금천교	1	1,000.00	1,000.00		
12,807	정도사 삼층석탑	1	1,000.00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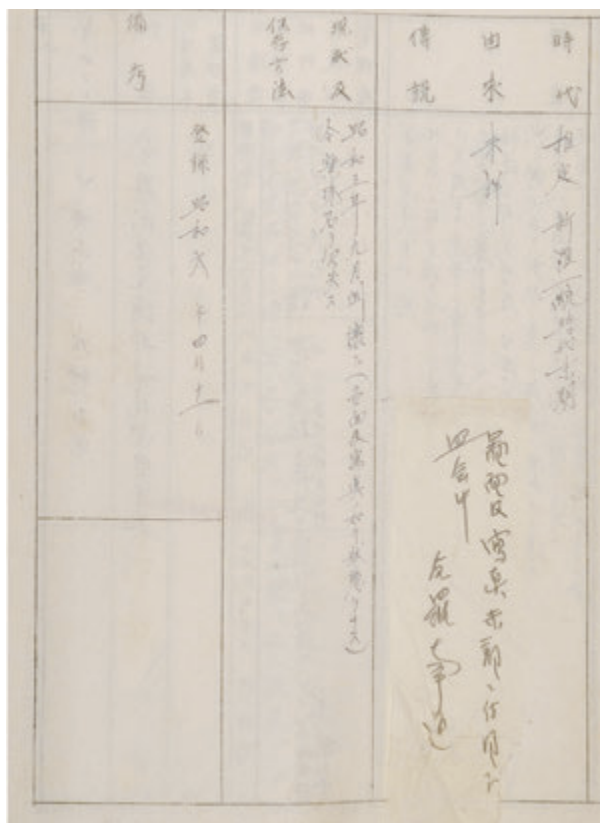
4. 각 도 소재 고적 용지 조사 관계 보물고적 대장
[문건] 전라남도 소재 고적 및 유물 지정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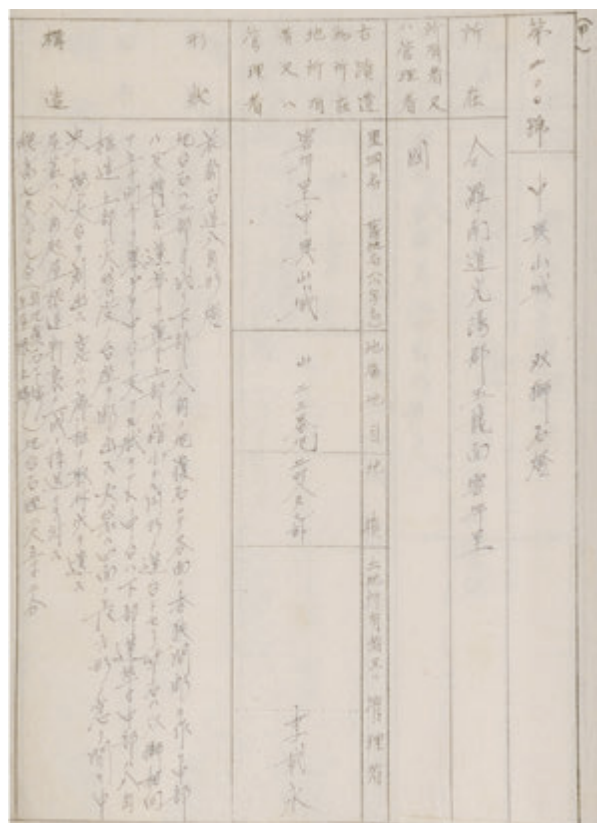
나



가



라



다

전라남도

쇼와 8(1933)년 1월 25일

전라남도 지사

학무국장 앞

고적 용지 조사의 건 보고(대 쇼와 7(1932)년 12월 2일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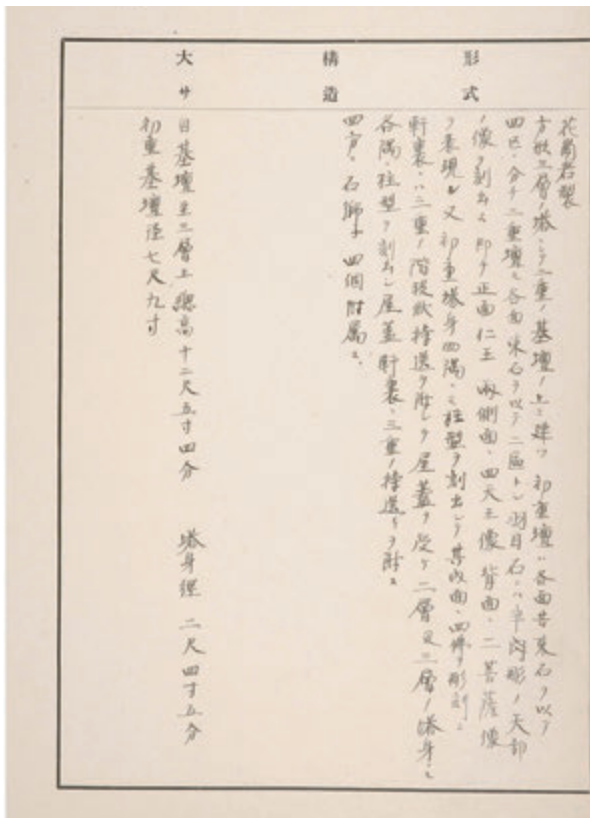
표기의 건 별지와 같이 보고드린다.

제200호 중흥산성 쌍사석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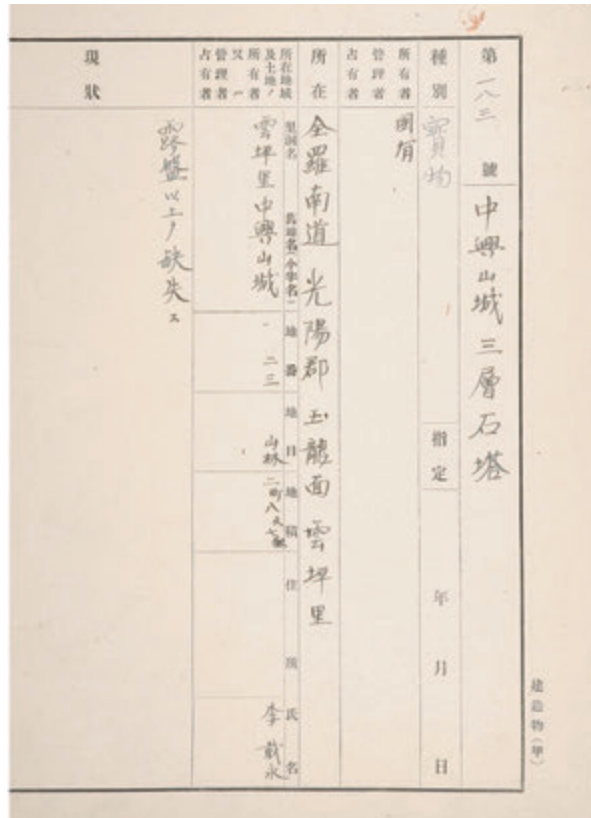
- 소재: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운평리
- 소유자 또는 관리자: 국가
- 고적유물 소재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리동명 구 지명: 운평리 중흥산성
 - 지번 지목: 산 23번지
 - 지적: 2정 8반 7묘
 -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재영
- 형상: 화강석 석조 팔각형 등. 지대석은 3부분으로 되어 하부는 팔각의 지대석이며 각 면에 안상을 조각하여 중간은 복련을 두고 상부에 다소 작은 원형의 연대를 놓았다. 간석은 쌍사자가 마주 보고 서서 양손을 들어서 중대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중대는 하부 연화, 중부는 팔각 마룻귀틀조[樞造], 상부는 화대를 받치는 대좌를 조각했다. 화대는 사방에 직사각형의 창을 열어 중앙에 등화대를 조각했다. 창에는 문비를 설치하기 위한 구멍이 남아 있다.
- 구조: 옥개는 팔각 지붕구조[起屋根造]이며 처마 밑에 1단의 받침턱을 붙였다. 전체 높이는 7척 6촌 7분(지복석 하단에서 지붕 끝까지)이며, 지대석 경이 2척 5촌 2분이다.
- 시대: 추정 통일신라 말기
- 유래: 미상
- 전설: -
- 현상 및 보존 방법: 쇼와 5(1930)년 9월 도괴했다(도면 및 사진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그때 보주석을 잃었다.
- 비고: 등록 쇼와 6(1931)년 4월 11일

5. 조선총독부 보물 지정 대장-사지 별

[문건] 전라남도 광양군 중흥산성 삼층석탑에 관한 건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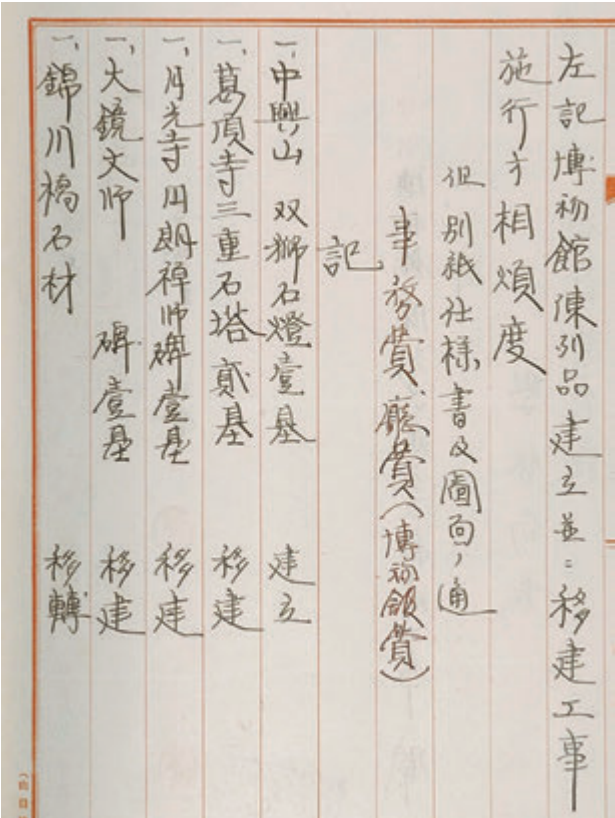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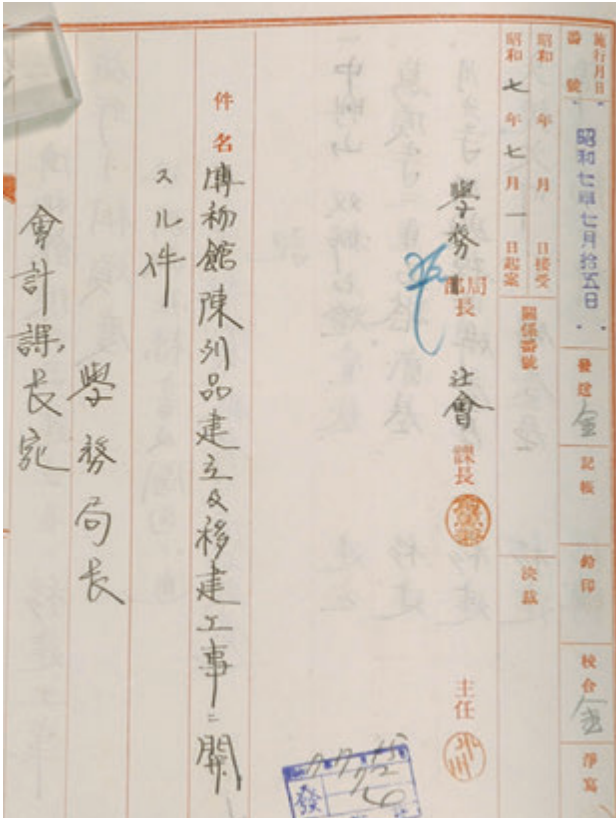
제183호 중흥산성 삼층석탑

- 종별: 보물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국유
- 소재: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운평리
- 리동명: 운평리 중흥산성
- 지번: 23
- 지목: 산림
- 지적: 2정 8반 7묘
- 성명: 이재영
- 형상: 노반 이상을 결선했다.
- 형식: 화강석제 방형 삼층석탑으로 이중 기단 위에 세워졌다. 1층 기단은 각 면 모두 속석(束石)(한 덩이 돌)으로 네 구역으로 나뉜다. 2층 기단도 각 면 한 덩이 돌이며 각 면마다 두 칸으로 나뉘어진 우묵석(窪石)(분할면)에는 반육조의 천부상을 조각했다. 즉 정면에 인왕, 양 측면에 사천왕상, 배면에 2구의 보살상을 표현하고, 또한 1층 탑신 네 구석에도 기둥을 조각하여 그 안쪽에 4불상을 조각했다. 처마 밑에는 삼중의 층단식 받침턱을 붙이고 옥개석을 받쳤다. 2층 및 3층의 탑신에도 각 구석에 기둥을 조각하고, 옥개석 처마 밑에 삼중의 받침턱을 붙였다. 사방에 돌사자 4개가 부속되었다.
- 크기: 기단에서 삼층 끝까지 전체 높이 12척 5촌 4분, 탑신 경 2척 4촌 5분, 1층 기단 경 7척 9촌.

6. 다이쇼[大正] 11년도 이후 진열물품 관계
 [문건] 박물관 진열품 건립 및 이건 공사



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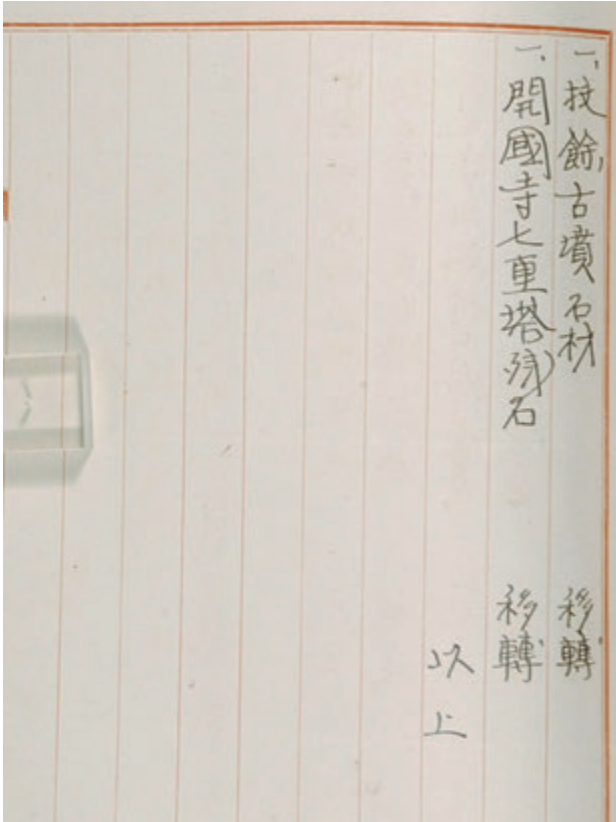
시행 날짜 쇼와 7(1932)년 7월 25일
쇼와 7(1932)년 7월 1일 기안

건명: 박물관 진열품 건립 및 이건 공사에 관한 건
학무국장
회계과장 앞

다음 박물관 진열품 건립 및 이건 공사를 시행하고자
검토를 바랍니다.
단 별지 사양서 및 도면과 같음
사무비는 청비廳費(박물관비博物館費)

1. 중흥산 쌍사석등中興山 双獅石燈 하나	건립
2. 갈정사葛頂寺 삼중석탑 하나	이건
3. 월광사月光寺 원랑선사비月朗禪師碑 하나	이건
4. 대경대사비大鏡大師碑 하나	이건
5. 금천교錦川橋 석재	이전
6. 부여 고분 석재	이전
7. 개국사開國寺 칠중탑 잔석殘石	이전

이상



다

[문건 1] 국유 석탑 및 석등에 관한 건

[문건 1] 국유 석탑 및 석등에 관한 건

나

가

다

쇼와 6(1931)년 6월 23일

광양군수

(수령인)

조선총독부

쇼와 6(1931)년 6월 24일 오전

종교과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앞

국유 석탑 및 석등에 관한 건

관할 하 옥룡면 운평리 중흥산성 삼층석탑에 관해서는 4월 27일부 국유로 등록되었다는 통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탑은 국유 등록 전 임야 소유자 이재영李載永이라는 사람이 대구부 동문정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에게 해당 임야를 매각했습니다. 그 결과, 오구라 씨는 자동적으로 임야 내 물건인 석탑 등도 본인의 소유가 된 것으로 알고 올해 4월경 이 석탑을 대구로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옥룡면 일반주민은 이것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면민대회를 개최하여 이 처치에 관해서 군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군은 이 지방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끝에 일시적으로 운반을 중지시키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국유로 등록되었는데 현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반한 채 그 일부는 옥룡면사무소 부근 길가에 흩어져 있어 보존상 우려스러운 상태입니다. 이에 이것을 원래 소재지로 운반하고 보존하려고 여러모로 면과 협의하였으나 많은 비용(약 5만 엔)이 소용되어 도저히 면에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귀관께서 부디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겸하여 말씀을 올립니다.

所有者李載永ヨリ大邱府東雲所小倉改
之助ニ金四百圓ニテ該遺物及所在地山林ヲ
賣却シ小倉改之助ハ自己現任地タル大邱ニ
運搬スヘク該買收直後運搬ニ着手シ玉龍
面雲坪里玉龍面事務所傍迄約三十町余ヲ
運搬中ヨリ面民ニ於テ目撃シ面ノ所有物ヲ面
民ニ無斷面外ニ運搬スルハ面白カラストテ物
議ヲ曠シタル事實アリ當時當署ニ於テモ
遺物ヲ運搬スルハ穩當ナキ事ト厚シ運搬中
止メ命シタル爲メ三層石燈ハ山林中ニ双
獅子石燈ハ玉龍面事務所附近路傍ニ現

나

光陽警保第二五三號
昭和六年六月六日
朝鮮總督府 光陽警察署長
金羅南道警察部長 殿
遺物保管ニ關スル件
昭和六年四月十一日附第一九九號及第二〇〇
號ヲ以テ遺物トシテ登錄セラレタル全羅南道
光陽郡玉龍面雲坪里山林ニ三畚地中ニ在
スル三層石塔及双獅子石燈ハ遺物トシテ
登錄前即ケ本年四月上旬該遺物所在地

가

存シ嚴重注意保管中ナル所在、地ハ山
間僻地ナル關係上監視不充ナルミナラ
ズ遺物トシテ登錄セラレタル後ハ該遺物ノ在
在世間ニ知ラレ聲價頓ニ上リ随ツテ物珍
ヲレク見物スル者等モ日ニ増加ノ傾向ニアリ斯
クテハ何時、如何ナル不良者ノ手ニ依リ破壊
セラレ國ハ紛失スルマ又計難ク保管極ノ困難
ニ付至急何令、御措置相抑度事由リ
具シ報告ス

다

광양경보 제2532호

쇼와 6(1931)년 6월 6일

광양경찰서장

(수령인)

조선총독부

쇼와 6(1931)년 6월 7일 오전

종교과

조선총독 앞

전라남도 경찰부장 앞

유물 보관에 관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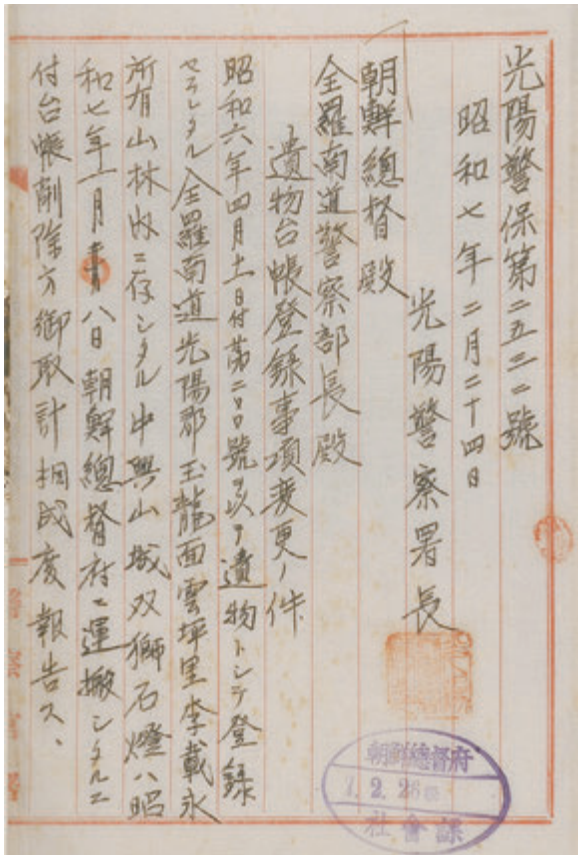
쇼와 6년 4월 11일부 제199호 및 제200호 유물로 등록된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운평리 산림 23번지 중에 존재하는 삼층석탑과 쌍사자 석등은 유물로 등록되기 전, 즉 올해 4월 상순에 해당 유물 소재지 소유주인 이재영으로부터 대구부 동문정東門町⁶ 오구라 마사노스케[小倉政之助]⁷에게 400엔으로 해당 유물과 소재지 산림을 매각했는데 오구라는 해당 유물을 본인의 거주지인 대구로 옮기기 위해 매수 직후 운반에 착수하여 옥룡면 운평리 옥룡면사무소 옆까지 약 20정 이상 운반하던 중, 면민이 그것을 목격하여면 소유물을 면민에 대한 양해 없이 무단으로 면 밖으로 운반하는 것을 못마땅해하여 물의를 빚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경찰서에서도 유물을 운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운반 중지를 명령했기 때문에 삼층석탑은 산림 중에, 그리고 쌍사자 석등은 옥룡면사무소 부근 길가에 있으므로 엄중히 조심하면서 보관 중입니다. 그래도 소재지는 산속 벽지인 관계로 감시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유물로서 등록된 뒤에는 해당 유물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져 평판이 정점까지 오르며 이에 진기한 것으로 여겨져 구경하려는 사람 등도 날마다 증가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 어떤 불량자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분실될지 예측할 수 없으며 보관이 지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급히 어떤 처치를 마련해주시기를 사유를 설명하면서 보고드립니다.

끝.

6 동문정東門町이 정확함.

7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가 정확함.

[문건 3] 유물대장 등록사항 변경 건



광양경보 제2532호

쇼와 7(1932)년 2월 24일

광양경찰서장

(수령인)

쇼와 7(1932)년 2월 26일 오후

사회과

조선총독 앞

전라남도 경찰부장 앞

유물대장 등록사항 변경 건

쇼와 6년 4월 11일부 제200호 유물로 등록된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운평리 이재영 소유 산림 내에 존재했던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쇼와 7년 1월 8일에 조선총독부로 운반되었기 때문에 대장에서 삭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제강점기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건판17243]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1932년 촬영본 추정, 뒤편에 경복궁 자경전이 보임)



[건판17673]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1932년 촬영본 추정, 뒤편에 경복궁 근정전과 조선총독부가 보임)



[건판18002]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붕괴상태 (오가와 게이키치 1931년 3월 21일 촬영본 추정)



[건판22385]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1932년 촬영본 추정, 뒤편에 경복궁 자경전이 보임)



[건판22386]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1932년 촬영본 추정, 뒤편에 경복궁 자경전이 보임)



[건판22387]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원경 (1932년 촬영본 추정, 뒤편에 경복궁 광화문이 보임)



[건판22442]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오가와 게이키치 1932년 11월 10일 촬영본 추정, 뒤편에 경복궁
광화문이 보임)



[건판22443]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오가와 게이키치 1932년 11월 10일 촬영본 추정, 뒤편에 경복궁
자경전이 보임)



[건판22500]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1932년 촬영본 추정, 뒤편에 경복궁 자경전이 보임)



[건판36685]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1932년 촬영본 추정, 뒤편에 경복궁 경회루가 보임)



1932년 11월 10일 촬영본(뒤편에 경복궁 광화문이 보임)



1932년 11월 10일 촬영본(뒤편에 경복궁 자경전이 보임)



1932년 11월 15일 촬영본(뒤편에 석조물이 보임)



1932년 11월 15일 촬영본(뒤편에 조선총독부박물관이 보임)



1934년 6월 촬영본(뒤편에 경복궁 광화문이 보임)



1934년 6월 촬영본

[도쿄대학[東京大學] 소장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 촬영 사진]



1932년 11월 촬영본(뒤편에 경복궁 자경전이 보임)



1932년 11월 촬영본(뒤편에 경복궁 광화문이 보임)

이번 보고서는 국립광주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역사·문화적인 의미를 고찰하고, 향후 관리·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시기 불교 석조물로서 조형미가 빼어난 중요 유물임이 인정되어 국보로 지정되었다.

석등은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중흥산성 내 폐사지에 석탑과 함께 조성되어 있었다. 1930년 8월, 옥룡보통학교 후원회가 기본금 조성을 위해 이 석조물의 매매를 계획하였다가 광양군으로부터 유물의 매매가 불가하다는 지시를 받았다. 1931년 4월, 산림 소유주인 이재영은 대구의 오구라 다케노스케에게 산림을 매각하였다. 오구라는 산림 내 석탑과 석등을 대구로 옮기기 위한 운반 작업에 착수하였고, 먼저 석등을 운반하던 도중 옥룡면사무소 근처에서 유물의 외지 반출에 반대하는 면민과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후 석등 부재는 면사무소 부근 길가에 계속 방치되어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유물이 일본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국유 등록하였다. 같은 해 8월, 조선총독부는 유물을 원위치로 운반하는 것이 어렵고, 방치된 유물이 파괴될 위험이 있어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 1932년 1월, 조선총독부는 쌍사자 석등을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운반하였고, 2월에 박물관에 수장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쌍사자 석등의 광물 및 암석학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 비파괴 분석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석등의 부재로 사용된 암석은 섬장암류(syenites)로 분류되었다. 또한 석등 축조에 사용된 부재가 단일 종류이지만 부재별 채석 지점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역사문화실로 쌍사자 석등을 이전 복원하면서 3차원 스캐닝 작업도 수행하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손상지도를 제작하였다.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간주석에 균열이 존재하여 향후 추가 균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번 복원 성과는 향후 유사 석조 문화유산의 재복원과 보존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report examine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Twin Lion Stone Lantern of Jungheungsanseong Fortress in Gwangyang, one of the most important objects in the Gwangju National Museum, and also outlines the basic data and materials related to its management and preservation. A masterpiece of Buddhist sculpture from the Unified Silla Kingdom, the stone lantern boasts many unique and outstanding aesthetic features, for which it has been officially inscribed as a National Treasure of Korea.

The Twin Lion Stone Lantern was originally discovered at a closed temple site on Jungheungsanseong Fortress in Unpyeong-ri, Ongnyong-myeon, Gwangyang-si, Jeollanam-do Province. In August 1930, the Ongnyong Elementary School Supporters' Association planned to sell the stone lantern as part of its efforts to establish an endowment, but the group was notified by the Gwangyang-gun Office that the sale of such a cultural heritage item was not permitted. In April 1931, Yi Jae-yeong, who owned the forested land where the temple site was located, sold the property to a Japanese entrepreneur named Ogura Takenosuke, who was based in Daegu. After taking ownership of the land, Ogura Takenosuke attempted to illegally transport the stone lantern and a stone pagoda from the site to Daegu. However, his efforts were thwarted by a group of locals, including members of the police force of Ongnyong-myeon, who intercepted the smugglers near the Ongnyong-myeon Office and prevented them from taking the artifacts. As a result, the dismantled pieces of

the lantern were left by the roadside near the Ongnyong-myeon Office. To prevent any further attempts to smuggle the lantern into Japan,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y ruling Korea at the time) officially registered the lantern as a state property. In August 1931,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decided that, rather than attempting to rebuild the lantern at its original location, it should be placed in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Museum where it could be better preserved. Thus, in January 1932,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began the process of transporting the Twin Lion Stone Lantern, and then put it into the museum's storage the following month.

This report also describes the nondestructive testing that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mineralogical and li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Twin Lion Stone Lantern. These tests revealed that the lantern is primarily made from syenites, which may have originated from different places. In addition, the report documents the restoration of the Twin Lion Stone Lantern and its relocation to the History and Cultural Hall of Gwangju National Museum, which involved 3D scanning and data-based deterioration mapping. While the overall condition of the stone lantern is good, a few cracks were found around the stem, which could presage further cracking in the future. The restoration of the Twin Lion Stone Lantern using digital technology is expected to become an important benchmark for the future restoration and preservation of other stone cultural heritage items.

참고문헌

References

단행본 및 논문

- 國立文化財研究所, 『石燈調査報告書Ⅱ』, 2001.
- 국립중앙박물관, 『중앙박물관 소장 석조문화재』, 2017.
-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현황조사 보고서』 전라남도 1, 2011.
- 박경식, 『한국의 석등』, 학연문화사, 2013.
- 順天大學校博物館, 『光陽郡의 文化遺蹟』, 1993.
- 오영찬, 「국립중앙박물관 ‘본관품’의 형성 과정과 그 성격」, 제 4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2019.
- 李龜烈, 「中興山城의 雙獅子石燈」, 『韓國文化財秘話』, 韓國美術出版社, 1973.
- 鄭明鎬, 『韓國石燈樣式』, 1994.
- 杉山信三, 「中興山城の双獅子石灯-故小川敬吉氏蒐集資料より」, 『朝鮮學報』 119・120, 朝鮮學會, 1986.
- 황호균, 「일제강점기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현지 조사와 외지 반출」, 『문화재적 관점으로 보는 국보 제103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광양시·광양문화원, 2021.

신문기사

- 「國寶巡禮28-中興山城双獅子石燈」, 동아일보, 1962년 12월 15일 기사 5면.

광양 증흥산성 쌍사자 석등

TWIN LION STONE LANTERN OF JUNGHEUNGsanseong Fortress in Gwangyang

인쇄일 2023년 11월 24일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발행처 국립광주박물관

Printed on November 24, 2023
Published on November 30, 2023
by the Gwangju National Museum

기획 편집
최장열崔章烈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노형신盧亨信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Editors
Choi Jang-yeal Head Curator, Gwangju National Museum
Noh Hyeong-sin Assistant Curator, Gwangju National Museum

원고(가나다순)
김영희金英希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노형신盧亨信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연태趙研太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영훈曹永勳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진정환陳政煥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홍성혁洪性赫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Contributors
Kim Young-hee Assistant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Noh Hyeong-sin Assistant Curator, Gwangju National Museum
Jo Yeon-tae Assistant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Jo Young-hoon·Hong Seong-hyuk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Jin Joung-hwan Head Curator, Iksan National Museum

교열
최장열崔章烈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장성욱張成旭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관
최정아崔靜娥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Copyediting
Choi Jang-yeal Head Curator, Gwangju National Museum
Jang Sung-wook Curator, Gwangju National Museum
Choi Jung-ah Assistant Curator, Gwangju National Museum

감수
소재구蘇在龜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김인덕金仁德 청암대학교

Proofreading
So Jae-goo Former Director,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Kim In-duck Cheongam College

자료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日本 京都大学 桂図書館
日本 東京大学 総合研究博物館 小石川分館蔵

Photographic Source
National Museum of Korea
Kyoto University Katsura Library, Japan
The University Museum,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번역
팬트랜스넷(영문)
필립 마허(영문 감수)
아라키 준荒木 潤(일문)

Translation
Pantransnet(English)
Phillip Maher(English Editing)
Araki Jun(Japanese)

유물 사진
케이아트스튜디오

Photography
K-art Studio

디자인
편집전문회사 꿈과놀이
t. 02-2277-3986 f. 02-2279-3986

Design and Production
Design Play with Dreams
t. 02-2277-3986 f. 02-2279-3986

인쇄
(주)나눔프린팅

Printing
NANUMPRINTING CO., LTD

© 2023 국립광주박물관
61066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t. 062-570-7000 gwangju.museum.go.kr

© 2023 Gwangju National Museum
110, Haseo-ro, Buk-gu, Gwangju, Korea 61066
T. 062-570-7000 gwangju.museum.go.kr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광주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모든 내용과 자료는 국립광주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or otherwise,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Gwangju
National Museum.

발간등록번호 11-1371082-000046-01
ISBN 978-89-86824-66-7 93910